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55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필진 문소연 허영선 박재형 박찬식 김창후

기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고수선
_ 문소연(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강평국, 시대를 넘어선
그 미완의 불꽃
_ 허영선(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장)

3·1운동 속에 빛났던
최정숙
_ 박재형(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장)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주역,
부춘화·김옥련·부덕량
_ 박찬식(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 여성을 중심으로
_ 김창후(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55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발행일 2021년 12월 2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www.jst.re.kr

디자인·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2021

ISBN 979-11-6867-003-7(03330)

비매품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55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필진 문소연 허영선 박재형 박찬식 김창후

기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발간사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되길

제주 사람의 삶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감동의 이야기로 승화시켰습니다.

20세기 제주도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제주4·3사건,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제주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특히 제주의 여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풀어쓰고 있습니다. 최정숙·고수선·강평국·부춘화·김옥련·부덕량. 그리고 무명의 여성들.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민족이 처했던 정치적 한계, 여성이 처했던 사회·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 제주인의 자존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제주의 여성들입니다. 그동안 뜻있는 연구자 등에 의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도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그들의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주학 인물사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 강좌는 도서관 자료로, 책 속에 파묻힐 수 있는 감동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보배로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자료화한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의를 함께한 수강생들께서는 "왜 지금까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인물사 강좌를 이끌어 주시고, 책 발간을 위하여 원고를 꼼꼼히 손질해주신 박재형 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장님, 문소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님,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님, 김창후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님,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진행과 책 출판을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우리 센터 김선필 연구원과 책을 품격 있게 꾸며준 도서출판 한그루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온갖 한계를 뛰어넘어 타인에게 감동을 전해준 그들의 이야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길 기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지향하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김순자**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고수선 12
_ 문소연(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강평국, 시대를 넘어선 그 미완의 불꽃 60
_ 허영선(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장)

3·1운동 속에 빛났던 최정숙 90
_ 박재형(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장)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주역, 부춘화·김옥련·부덕량 132
_ 박찬식(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 여성을 중심으로 168
_ 김창후(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고수선

문소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고수선

〈프롤로그〉

‘선각자’이자 ‘선구자’

고수선은 1898년에 태어나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90여 년 생애는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했던 우리 근현대사와 맞물려 있는데, 특히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고수선에게는 특히 여성으로서 ‘최초’를 기록한 일이 적지 않다. 여자이기에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지만, 여자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이를테면 그는 제주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의학 공부를 한 최초의 여의사였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여성단체를 결성한 사람이었으며, 제주도 현대정치에 도전한 첫 여성이었다. 고수선이 용감하게 들어 올린 첫 깃발에 힘입어 남성의 영역으로만 여기던 분야에 제주 여성들의 도전이 시작됐으며, 여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권신장을 위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수선이 제주 여성사를 이끌어간 선구자인 이유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에는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이었고, 광복 후에는 한글강습소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모자원과 영아원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자비를 들여 보육원을 운영했으며 양로원 설립에 힘쓰는 등 제주도 사회사업을 일으켰던 선각자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주례였다는 사실은 시대를 앞서간 고수선의 선각자적인 기질을 엿보게 한다.

고수선은 특히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앞장섬으로써 제주보육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부인회를 이끌며 여성계몽과 여권신장 개척에 앞장서고 향상시켰으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예총지부장이 되어 제주문화예술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다. 만년에는 노인회를 이끌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세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보다 먼저 세상일을 깨달은 선각자요, 그 깨달음을 용감하게 앞장서서 행동으로 실천한 선구자였던 사람, 고수선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지난하고 격렬했던 제주 근현대사가 보인다. 시대가 숙명이 되고 환경이 운명을 좌우했던 시기에, 고수선이라는 선각자가 한 시대의 선구자로 살며 미래를 개척하는 모습이 보인다.

가파도에서
태어나다

고수선은 1898년 5월 4일 가파리 69번지에서 태어났다. 가파도 남쪽

포구와 드넓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이다. 당시 가파도에는 90여 호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집이 고수선의 외가였다. 아버지 고영조와 어머니 오영원의 1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책과 붓이 담긴 바가지가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줍는 꿈을 꾸고 고수선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전한다.

고수선은 부모는 물론 외할아버지 오승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특히 외할아버지가 어찌나 애지중지했는지 물가에는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게 해서 고수선은 섬에서 나고 자랐어도 헤엄치는 걸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일곱 살 되던 해에는 동네 사내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웃집 서당의 널문 뒤에 숨어서 한문을 따라 배웠다.

고수선은 1898년 5월 4일 가파도 남쪽 포구와 드넓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 가파리 69번지에서 태어났다. 사진의 빈 풀밭이 생가 터.

고수선이 가파도를 떠나게 된 것은 여덟 살 무렵, 아버지 고영조의 사업 때문이었다. 가파도를 나와 지금의 대정읍 하모리에 살게 되었는데, 열 살 무렵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곳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어느 날 밤, 부모 돈 엽전 9닢을 몰래 들고 집에서 4㎞나 떨어진 학교에 갔다.

당시는 제주도에 이른바 신식 교육기관인 '학교'가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다. 고수선이 찾아갔던 학교는 1908년 대정 안성마을에 설립됐던 사립 한일학교(漢一學校)였다. 그곳에서 고수선은 '신학문'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지만 이내 좌절을 겪게 된다.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무섭게 화를 내며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다. 생전 처음 아버지에게 매까지 맞았는데, "여자가 글을 배우면 기생이 된다. 나쁜 것들이나 글을 배우는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 뒤 잠결에 헛소리로 글을 읽을 만큼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고수선에게 아버지는 어느 날 "오늘 중에 한글을 깨우치면 공부시켜 주마."라고 했다. 그날로 한글을 깨우친 고수선은 대정보통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공부를 허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성내에 있는 신성여학교로 전학시켰다.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

신성여학교는 제주도 최초의 '신식여학교'다. 천주교 제주본당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로 1909년 10월 18일 문을 열었다. 그러나 개교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여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학생 모집이 큰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남존여비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는 극히 적었다. 급기야는 신부와 수녀들이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간청했고, 취학적령기의 여아가 있는 집마다 방문해 부모들을 설득했다.

개교 당시 신입생은 30여 명 정도였는데 보통 8~9세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18세였다. 개교 당시의 교육과정은 유아 및 보통학교 초급반 수준이었지만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점차 향상되면서 학제는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1년의 5년제로 정착된다.

고수선이 신성여학교에 들어간 해는 개교하고 4년째인 1913년,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이었다. 처음에는 초등과정을 가르치는 반으로 편입했다가 이내 중등과정으로 월반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우등생이 되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고수선은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부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 달밤에는 남들이 자는 틈을 타서 밖에 나와 달빛에서 공부했다. 아마 나는 그때부터 눈이 나빠져서 평생 안경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신성여학교 시절. 고수선의 아들 김륟근은 어머니에게 왼쪽부터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이라 들었다고 했다.

개교 당시 30여 명이었던 신성여학교의 신입생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교육에 대한 주변의 몰이해와 반감에 부딪혀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했다. 조혼 풍습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혼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니 졸업생은 신입생 수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14년 3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고수선을 비롯해 강평국, 최정숙, 김정구, 송차호, 홍대옥 등 6명이었다.

훗날 고수선은 "내가 공부를 시작했던 때는 지금 학생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봉건적 사상에 젖어있는 때여서 여자는 고사하고 남자들조차도 공부하면 큰 죄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여자가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했다.

경성여고보 시절, 독립운동을 시작하다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고수선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19살 나던 해인 1916년 서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경성여고보) 2학년 편입시험에 합격한다. 그해에 모두 8명이 편입시험에 응시해 3명이 합격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고수선이었다.

고수선의 유학길에는 부모도 함께 갔다. 고수선의 부모, 특히 어머니

는 모성애와 교육열이 강한 사람이었다. 고수선이 어릴 때부터 "여자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고, 고수선의 학구열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고수선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잦은 이사를 마다하지 않았고, 고수선이 서울로 유학 갈 때도, 훗날 일본으로 유학 갈 때도 따라가 삯바느질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다.

고수선은 경성여고보에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 편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도 그랬는데, 편입한 해 1학기가 끝나자 50여 명이 공부하는 학급에서 4등을 차지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우등생 반열에 있던 육지부 학생들이 제주섬 학생에게 뒤진 데 대해 시기심과 불안감을 드러낼 정도였다. 고수선은 특히 수학을 잘했다고 한다.

경성여고보 2학년 2학기 어느 날의 수업시간이었다. 당시 경성여고보에는 역사와 미술을 가르치는 '시바다'라는 일본인 교사가 있었는데, 역사시간에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날조된 것"이라는 둥 왜곡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모욕을 느낀 고수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앙된 말투로 "내가 배운 이순신 장군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반박하며 항의했다. 이에 급우들도 한꺼번에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이 사건으로 고수선은 불령(不逞)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당시 성적표에는 학생의 품행과 행실을 평가하는 조행란(操行欄)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고수선은 늘 병(丙)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수선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반란을 일으켰다. 미술시간에 시바다가 학생들에게 일장기를 그리라고 지시하자 선생의 시선을 피해가며 태극기를 그렸던 것이다. 이 일로 고수선은 더욱 심한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강평국, 김일조, 노순렬 등의 급우와 함께 '국기동지회(國旗同志會)'를 결성하고 이때부터 하얀 천에 태극기를 그려서 소매 안에 꿰매고 다녔다. 항일정신이 뚜렷했던 고수선은 불령학생의 낙인을 두려워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이 무렵 제주도에서 서울에 유학했던 여학생은 고수선, 최정숙, 강평국 등 세 사람뿐이었다. 고수선이 경성여고보에 편입했을 때, 강평국은 이미 경성여고보에 다니고 있었고, 최정숙은 사립 진명여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들 셋이 모두 경성여고보 사범과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났고 함께 공부하게 된다.

고수선은 1917년부터 박희도(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의 지도로 만들어진 비밀서클 회원으로 활동했다. 고수선을 비롯해 강평국, 최정숙, 최은희, 김숙자, 이덕순, 이양전, 김일조, 이남재, 노순열, 이은, 이덕요, 이정의, 유재룡 등 본과와 사범과, 기예과 학생 20여 명이 회원이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했다. 당시 경성여보고 교장은 '시가'라는 일본인이었다. 학생들은 국상을 당했으니 전교생이 덕수궁으로 곡을 하러 나가기를 원했지만, 교장은 각 반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만 나가도록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반 대표가 다녀올 때까지 덕수궁 쪽을 향해 엎드려 곡을 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고수선은 학생들을 이끌어 함께 소복단장을 하고 덕수궁 대한문에 나가 군중들과 함께 꿇어앉아 통곡했다.

고종 애도기간 40여 일 동안 경성여고보 학생들은 망국의 한을 감추

지 않았다. 성복제(成服祭) 날에는 검은 댕기를 드리우고 나비 조표를 만들어 달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민족지도자들의 시국강연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고수선은 박희도의 지도를 받으며 동지들과 독립운동을 논의하고 학교 선배이자 교사인 유철경(경성여고보 1회 졸업)의 아지트를 드나들며 앞으로 할 일을 의논했다.

1919년 2월 28일, 최은희는 박희도를 만나 독립선언서와 함께 "내일(3월 1일) 정오에 전체 학생을 이끌고 탑골공원으로 나오라."라는 당부를 받는다. 그날 저녁 제주 출신 남자 유학생들이 비밀리에 기숙사로 찾아와 고수선과 최정숙을 만나, 내일 오후 한 시에 파고다공원에 나가 독립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연락을 전하고 갔다. 비밀서클 학생들은 한 방에

경성여고보 경운동 시절(1913~1920년) 학교 건물. 고수선은 이곳에서 1916년부터 1919년 2월까지 공부했다.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어보고 다음 날을 위해 붕대와 거즈, 약솜까지 준비했다.

도끼로 대문 부수고 나가
3·1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다. 경성여고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 1시에 학생 전원이 파고다공원으로 모이기로 약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수업은 긴장 속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진행됐다.

그런데 파고다공원에서 모이기로 했던 시간이 갑자기 12시로 앞당겨졌다. 제주 출신 남자 유학생 박규훈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기숙사까지 왔었지만 전하지 못하고 갔다. 학교 담 너머에 던져져 있는 독립선언서 뭉치를 발견한 학교 당국이 긴급 교직원회의를 열어 기숙사 대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학교 밖에서는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수선은 불쏘시개를 자르는 데 쓰이는 손도끼를 찾아 들고 굳게 잠겨있는 학교 기숙사 대문을 내리쳤다. 그를 선두로 학생들이 돌과 칼 등으로 대문을 함께 부수고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교직원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달려 나가는 학생들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가지는 흥분한 시위 군중과 진압하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경성여고보 학생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덕수궁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혼잡한 시위 군중 속에서 몇 갈래로 나뉘어 만세를 불렀다.

3·1만세운동으로 고수선은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어 일경에게 고문을 받는 등 고역을 치렀다. 특히 손가락 '연필 고문'의 상처와 후유증은 평생 따라다녔다.

고수선은 학생들을 이끌고 파고다공원 쪽으로 갔다. 장안은 독립만세 인파로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일경은 무차별 진압에 나서고 있었다. 고수선 일행은 종로경찰서 쪽으로 밀려가며 시위를 벌이다가 한 일경이 동료에게 "상관의 명령 없이 칼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용기가 생겨 혈서까지 써서 시위를 하며 서소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갔다.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치다 보니 머리는 풀려 헝클어졌고 신발도 벗겨져 나간 데다 치마마저 뜯겨져 꼴이 엉망이었다. 잠시 숨을 돌리

려는데 일본군 주둔지인 용산역 쪽에서 기마병들이 진압을 위해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고수선 일행은 당시 양동에 있던 세브란스병원으로 달려가 몸을 숨겼다. 그리고 병원에서 바늘을 빌려 옷을 꿰매 입고 머리를 단장한 다음 신발을 얻어 신고 학교 기숙사로 갔다. 학교에는 이미 일경들이 몰려들어 학생들을 강당에 몰아놓고 한 사람씩 불러 조사를 하고 있었다.

3·1만세운동으로 경성여고보에서는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32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그중 10여 명이 구금됐는데, 일본경찰의 조서에 고수선, 최정숙, 강평국, 최은희, 유재룡, 이명숙, 김일조 등이 주동자로 지목돼 있다. 이들 가운데 최은희는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자로, 최정숙은 제주도 최초의 여성 교육감 등으로 활약하게 된다.

3·1만세운동으로 학교에는 임시휴교 조처가 내려지고 주동학생들에게는 퇴교 조처가 내려졌다. 경성여고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생이 시위에 동참했고, 학교 당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경성여고보생들은 온순하고 모범적인 기질을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쫓기는 몸이 되어

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자 교직원과 학생들은 뿔뿔이 헤어져 저마다의 연고지로 돌아갔다. 당장 갈 곳이 없는 고수선 등 몇몇 학생들은 교사 유철경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감시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

었다. 고수선은 혼자 창덕궁 뒤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찾아가 병풍 뒤에 숨어서 지냈는데, 변장을 하고 계속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즈음 고수선의 어머니는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된 딸의 생사가 걱정돼 전전긍긍했었다. 대한문 앞에서 고수선의 시체를 봤다는 누군가의 말에 달려갔다가 딸이 아님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3·1만세 시위 후 연락이 두절됐었던 그 한 달의 기간 중에 고수선은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어 손가락 고문을 받는 등 고역을 치렀다. 일경에게 받은 고문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는데, 특히 '연필 고문'의 상처는 평생 따라다녔다. 그를 고문했던 일본인 경찰 '요시노'는 자신의 고문을 견뎌내는 고수선에게 "이렇게 지독한 처녀는 처음 본다."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고수선은 몇 날을 혹독한 고문과 싸우며 한 달 남짓 수감돼 있다가 당시 형사였던 황옥의 도움으로 풀려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뒤 고수선은 충남 논산으로 가서 논산공립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상해의 임시정부에 전달할 군자금을 모으는 등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논산에서는 만석꾼으로 알려진 이교문의 집에서 생활했다. 이교문 부부는 고수선을 수양딸로 삼았는데, 군자금을 모을 때 양아버지인 이교문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고수선과 이교문 부부와의 인연은 고수선이 논산을 떠나서도 계속 이어졌고, 집안끼리도 연결이 되어 지금도 후손들이 서로 오가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논산에서의 교사생활은 얼마 하지 못했다.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했던 일로 일본경찰의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고수선은 감시를 피해

일본과 중국 상해를 오갔다.

1920년 초순 상해에서 일본으로 간 고수선은 동경고등사범학교 수리과(數理科)에 입학했다가 그만두고 동경 요시오카 의학전문학교에 다시 입학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계속 독립운동에 관여하다가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일경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고수선이 동경 요시오카 의학전문학교 2학년 때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다. 동경에서 조선인 무차별 학살 장면을 목격한 그는 강냉이를 주워 먹는 등 반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시모노세키까지 걸어서 갔다고 한다.

부산에 도착한 고수선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그는 영양실조와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한 심장각기병에 걸려 있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서울 조선총독부 병원을 찾아가 입원했는데, 새벽 세 시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일본경찰에 의해 곧장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고수선은 1980년에야 독립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가 독립운동으로 투옥됐었던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6·25 때 종로경찰서가 소실되는 바람에 고수선이 투옥되어 고문을 당했던 기록마저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고수선은 독립운동으로 국내에서 두 번 투옥됐었지만, 그 장소가 두 번 다 종로경찰서였기에 투옥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24년 두 번째 투옥됐었던 종로경찰서에서 석방된 고수선은 다시 병원에 입원해 건강을 추슬렀다.

‘제주도 여의사 1호’

고수선이 20대였던 1920년대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공부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던 시대였다. 당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문 직종은 교사와 의사였지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다. 특히 의사가 되려면 의학전문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여학생이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다.

고수선은 경성여고보 사범과를 졸업했기에 교사직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일본에서 의학전문학교를 다녔었기에 의학공부 쪽을 생각했던 듯하다.

고수선은 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의전) 진학을 준비했다. 당시 경성의전은 소수의 여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청강생으로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고수선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경찰 고등계에 문제 학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종로경찰서로 뛰어가 자신을 취조했던 형사를 찾아 “공부를 하겠다는데 왜 앞길을 막으려느냐.”라며 항의했다. 형사들은 고수선의 대담하고 당당한 태도에 결국 ‘배일사상의 혐의는 있으나 반성의 기미도 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써주었다고 한다. 고수선은 그것을 들고 다시 학교로 뛰어가 내보였고, 그제야 학교에서는 응시원서를 받아들였다. 고수선은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경성의전은 일제강점기 동안 6:1~30:1의 매우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였던 것으로 유명했다. 경쟁률이 치열해 남자도 어렵다는 경성의전에 합격했던 것이다.

고수선은 경성의전을 다니며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졸업 직전인 1925년 12월 겨울방학 때는 잠시 귀향해 ‘제주여자청년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고수선은 제주의 신진 인텔리 여성 80명으로 구성된 이 여청의 초대 회장으로 피선된다. 당시 핵심부에는 강평국, 최정숙, 김시숙, 이재량 등이 있었다.

고수선은 1926년 3월 22일 경성의전을 졸업했다. 당시 ‘경성의전을 졸업한 여자 의사’는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됐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그랬기에 드문 일이었던 것이다.

1926년 의사 자격을 취득한 고수선은 경기도 개성의 남성병원 소속 개성고려여자관 영아부(開城高麗女子舘 嬰兒部) 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여의사’가 된 것이다.

29세 때 ‘제주도 여의사 1호’가 되어 귀향한 고수선은 다음 해 김태민과 결혼했다.

김태민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정규의사 자격을 취득한 ‘제주도 의사

직업의 첫거름

경성의전 졸업 무렵 동아일보 기사. 당시 ‘경성의전을 졸업한 여자 의사’는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됐었다.

1호'다. 그는 1913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전신인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국비장학생으로 뽑혀 일본 교토제대의학부로 유학, 외과수련과정을 마치고 의학자가 됐다.

고수선도 김태민도 경성의전 출신이어서 그 학교의 교수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소개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스승과 제자 사이로 시작됐었다. 김태민이 의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스무 살 무렵에 잠시 대정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당시 열 살이었던 고수선이 대정보통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고수선도 '운명적인 만남'임을 느꼈는지 김태민과의 만남을 두고 훗날 "내가 10살 때 대정골학교 학생으로 있었을 당시 처음 뵌 분인데 그로부터 무려 20년 후에 결혼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우연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장춘의원과
제주도 1호 부부 의사

'제주도 제1호 의사, 김태민'과 '제주도 제1호 여의사, 고수선'이 결혼해 함께 의사생활을 함으로써 이들은 제주 역사에 '제주도 최초의 부부 의사'라는 또 하나의 '제1호'를 기록하게 된다. 고수선의 독립운동 전력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는 일제로부터 '요시찰인(要視察人)'이란 딱지가 항상 따라다녔다.

김태민·고수선 부부 의사는 제주 곳곳으로(한림, 서귀포, 고산 등) 이동하

30대 초반 고수선의 모습. 30세에 결혼한 그는 사회운동, 환자 진료, 판매업 운영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쁘고 활동적인 30대를 보냈다.

며 병원을 개업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병원 이름은 언제나 '장춘(長春)의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언제나 생명력 왕성한 봄처럼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부의사의 인술 철학이 담겨 있다.

1933년 고수선은 지금의 서문통에 면포, 곡물, 식료품, 잡화 등을 파는 '공익상회'를 개설하고 스스로 운영했다. 이는 토산 장려, 조선인 제조 물산 소비, 일본인 상점 폭리 견제, 일인상품 불매 등을 목적으로 했던 당시 제주사회의 민족소비운동과 맞물려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신생활운동' 등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고수선은 사회운동하랴,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랴, 판매업을 직접 운영하랴,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안일을 돌보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하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독립운동 전력으로 늘 요시찰 대상이었던 고수선은 점점 더 심해지는 일제의 감시와 억압을 피해 가족과 함께 제주를 떠나게 된다. 태평양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제주도에서 최후의 옥쇄작전을 펴려고 6만 병력을 집결해 배수진을 칠 때였다. 악에 받친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제주섬이 최후의 격전지가 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섬 전체가 긴장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당시 제주에는 그 공포의 난리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피난을 갔다. 그 무렵 고수선 가족도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충남 강경에서 8·15 광복을 맞다

고수선 가족이 피난처로 삼은 곳은 고수선이 논산공립보통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을 때 생활했던 충남 강경이었다. 고수선 부부는 강경의 중심인 중앙리에 '장춘의원'을 개업했다. 김태민의 실력과 고수선의 정성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의사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고수선 부부는 강경에서도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고수선은 살아생전 누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 물으면 어김없이 "1945년 8월 15일"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강경에서 해방을 맞은 고수선은 어찌나 좋았던지 공주를 거쳐 대전까지 돌아다니면서 해방된 분위기를 만끽했다고 한다,

해방된 나라에서 고수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글강습소를 차리는 것이었다. 국민계몽을 위해서 무엇보다 한글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글강습소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건강교실도 아울러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다.

고수선은 1945년에 창당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에도 참여해 논산 지구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대한여자국민당은 여성의 권리와 정치참여 그리고 남녀평등의 사상을 강조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강령과 정강을 내걸었다. 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남녀평등권'이 고수선의 마음을 움직여 동참하게 했고 논산 지구당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道) 승격, 4·3, 그리고 6·25

고수선의 시아버지 김홍석은 해방이 되자 바로 제주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도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제주도(島)를 도(道)로 승격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강경에서 생활하고 있던 고수선은 네 차례나 시아버지인 김홍석을 모시고 서울에 갔고, 대한여자국민당 당수였던 임영신을 통해 군정장관을 만나 도 승격을 부탁했다. 고수선은 "군정장관을 만났을 때 도제 실시를 위해 세 시간이나 설득했다."라고 한다. 그렇게 도제 승격을 미군정청에 건의한 지 10개월 보름 만인 1946년 8월 1일 드디어 제주가 도(島)에서 도(道)로 승격됐다.

1948년 강경에 있던 고수선은 제주도에서 4·3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몇 달 후, 정부의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과 수많은 양민 학살에 따른 흉흉한 민심을 풍문으로 들으면서 귀향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태웠다. 고수선은 "강경에서도 제주도 사람은 빨갱이라는 모함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게 됐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1950년 6월 김태민은 제주도립병원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고수선 부부는 가족들을 강경에 둔 채 제주행 배를 타기 위해 목포로 갔다가 6·25가 발발했다는 방송을 듣게 되자 발걸음을 다시 강경으로 돌렸다.

전세는 날로 불리해 갔다. 고수선 가족은 '강경 주민들은 피난하라'는 방송에 비상식량과 옷가지들만 대충 챙겨 피난했다. 고수선은 "피난 당시, 4·3사건 때 호응 않고 제주도에서 도망쳐 나온 반동분자라며 공산분자들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져 대나무숲에 숨어살았고, 남편은 공산분자에게 체포되어 8번이나 인민재판을 받았으나 평소 의사로서 주민들에게 인술을 올바르게 펴온 것이 인정되어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9·28 서울수복이 되자 고수선은 가족과 함께 다시 강경의 집으로 돌아왔다. 강경 지역은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고, 병원 건물도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고수선 부부는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약품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주었고, 그들이 보답으로 가져다준 식량으로 겨우 연명하며 몇 달을 버텼다. 다음 해 1·4후퇴가 시작되자 고수선 가족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제주로 돌아오게 된다. 고수선은 6·25로 인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훗날 "6·25 때가 내 생에 있어서 최악의 해"였다고 회고하곤 했다.

운주당의 꿈

6·25의 와중인 1951년, 고생고생하면서 귀향한 고수선 가족은 운주당에 정착한다. 이 운주당은 고수선 가족이 살았던 개인저택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제주읍성 동쪽에 세워졌던 관아 '운주당'이 자리했던 부근이어서, 저택의 이름도 '운주당'이라 했던 것이다. 운주당에서의 생활은 고수선의 시아버지 김홍석으로부터 시작됐다. 저택 운주당은 규모가 매우 컸다. 정원공간이 1,700여 평으로 나무가 울창해 풍치가 매우 좋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말 가족과 함께 강경으로 피난했던 김홍석은 1945년 8·15 해방이 되자마자 운주당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제주도 유지들과 회합하며 도 승격 문제를 숙의했었다. 운주당이 제주도 승격 논의의 발원지였던 셈이다.

1951년 고수선 부부가 운주당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김태민은 어느덧 63세가 되어 있었다. 이때 김태민은 의사 생활을 완전히 접는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운영을 권유했지만 "나이가 들면 오진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남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건 큰 죄악"이라며 완강히 거절했다.

고수선 부부의 운주당은 이들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강경에서 돌아온 부부가 가장 먼저 운주당 공간을 함께 한 곳은 6·25 와중인 1951년 9월 25일 개교한 제주여자고등학교였다. 《제주여고 50년사》는 "당시 동문통 교사가 육군의 조병장으로 징발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삼성혈 천막교사에서 개교식을 가졌지만 실제 수업은 운주당 터의 고수선씨 집에서 시작되었다. … 이 본채에서 1,2학년 50여 명이 수업을 하면서 제

주여자고등학교가 출발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고수선은 제주여고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고수선이 운주당으로 돌아왔을 때의 나이는 53세였다. 그러나 고수선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나섰고, 김태민은 적극 격려하고 도와주었다.

운주당은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고수선은 1951년부터 1983년 운주당을 떠날 때까지 32년 동안 운주당 안팎을 넘나들며 많은 활동을 했다. 그 일들을 열거해보면 한글강습소, 무료조산원, 모자원, 영아수용소, 홍익보육원, 대한(한국)부인회 제주지부장, 도의원 및 민의원 선거 출마,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자유당 제주지부 부위원장, 민주공화당 제주지부 부위원장, 여성저축생활추진위원회 제주도지부장, 사회사업연합회 제주도지부장, 선덕어린이집, 인당민속무용예술단 결성,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부장,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주도지부 부지회장 및 제주지회장 등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맡은 일마다 수년에서 십수년 동안씩 활동했으니, 그 활동햇수를 다 합하면 80년이 넘는다.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53세부터 32년간 80년 넘는 기간만큼 활동한 셈이니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생활했을지, 그 열정과 노력의 두께를 짐작하기도 버겁다.

고수선이 운주당에서 꾸었던 꿈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펼친 활동들은 제주현대사, 특히 제주여성의 현대사에 '개척'이라는 굵직한 획으로 후진들의 앞날을 열어놓게 된다.

남다른 어린이 사랑으로 보육사업

고수선은 1951년 제주에 돌아오자마자 한글강습소를 열어 부녀자들에게 한글과 자녀양육법을 가르쳐주는 한편 친구 한여택을 중심으로 무료조산원을 함께하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모자원과 영아수용소를 개설했다. 당시 제주는 9만여 명의 4·3이재민이 발생해 있었고, 15만여 명의 6·25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고수선이 두 팔 걷고 나선 것이다.

당시 황온순이 원장으로 있던 한국보육원은 제주에서 설립됐지만 서울에서 데려온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다가 1955년 서울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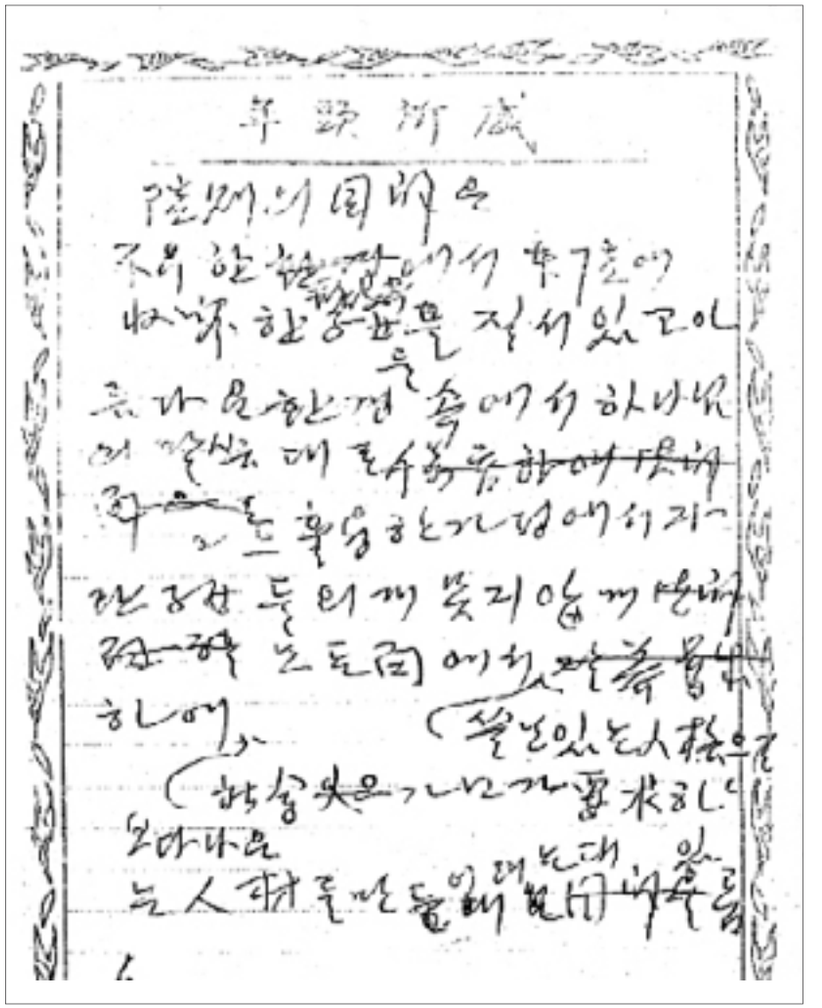
고수선은 제주도 고아들을 위해 1951년부터 보육원 운영에 뛰어들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자비로 보육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운주당에서는 갖가지 공장이 가동됐는데, 보육원 운영비를 충당하고 원생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다. 엿공장, 두부공장, 새끼줄 제조공장, 화장품공장, 분뇨를 이용한 비료공장을 운영했는가 하면, 쌀장사도 했다. 그의 아들 김률근은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보육원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우리가 당신 아이들이라고 해서 받은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섭섭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철들면서부터는 당신 아이들이나 보육원 아이들이나 평등하게 대하셨던 점이 참으로 훌륭하게 여겨졌습니다."라고 했다. 고수선이 지녔던 평등과 박애정신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19년 동안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의 아이들과 보육원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길렀던 것이다.

고수선이 남긴 육필기록 중에는 자신의 보육원 운영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쓸모 있는 인격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메모도 보인다. 그가 어떤 정신으로 보육원을 운영했는지,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느끼고 키웠을 사랑과 자존감이 얼마나 크고 단단했을지 짐작된다.

고수선은 운주당에서 1967년 선덕어린이집을 설립해 홍익보육원과 같이 운영했다. 초창기 어린이집은 무료탁아소였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보내지 않아서 집까지 데리러 다니곤 했다. 무료탁아 일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지원도 전혀 없을 때여서 자비로 운영해야 했다.

고수선이 모자원과 영아수용소, 보육원,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것은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고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수선은 또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자주 거론하며 특히 영유아 시기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선악의 기준도 어릴 때 생기는 것이고, 기본적인 습관도 어릴 때 정해지는 것이니 어릴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곤 했던 그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야단치지 마라. 아무리 어려도 대화로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타이르라."라는 말도 자주 했다.



고수선의 육필 메모. 보육원 운영철학이 엿보인다.

여성단체 활동으로
여권신장 개척

고수선은 여성인권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인생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여권신장을 위한 일에 매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가 제주에서 처음 여성 관련 활동을 한 것은 1925년 경성의전 졸업 직전 겨울방학 때 잠시 귀향해 제주에서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여성들과 함께 '제주여자청년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했던 일이다.

해방 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여성단체는 1946년 창립된 '제주부녀회'다. 회장은 한여택이었다. 이 제주부녀회를 모체로 1948년 '대한부인회' 제주도지부가 설립되었는데 초대 회장은 최정숙, 2대 회장은 탁명숙이었다. 그리고 1951년 충남 강경에서 귀향한 고수선이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1968년까지 활동했다.

고수선은 부인회장으로 17년 동안 활동하면서 주로 여권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운동과 사업을 전개했다.

2006년에 발간된《제주도지》에 제주도여성단체 중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1965년부터 신생활운동, 왜식일소반대운동, 청소년 선도 및 윤락여성 선도, 미화작업 등을 벌이고, 창립기념예술제를 열어 제주도내 문화예술발전에도 기여하였다. 1967년 10월에는 한국부인회 임원으로 여성저축회를 구성하여 저축의 생활화에 기여하였고, 1967년에는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식생활개선운동, 소비절약실천운동도 전개하였다.

> 특히 한국부인회는 1968년 고수선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제주도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달라고 재일동포가 기증한 72평의 부지를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여 1969년 제주도여성회관 건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당시 고수선은 제주도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다. 마침내 1969년 10월 13일, 5천여 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제주여성의 전당인 '제주도여성회관'이 제주시 이도2동에 준공되었다. 여성교육기관으로 개관한 제주여성회관을 시작으로 '제주여성의 전당'은 발전을 거듭했고,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수선은 운주당에서 보육원과 어린이집의 원장 일을 하면서도 밖으로는 한국부인회 제주도지회 회장(1951~1968), 대한적십사 제주도지사 상임위원 및 부지사장(1952~1957), 사회사업연합회 제주도지부장(1967~1976), 여성저축생활 추진위원회 제주도지부장(1967~1975)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1인 다역을 해냈다. 당시 5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는 시기였으니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에너지가 아닐 수 없다.

이 시기에 펼쳤던 사회활동으로 고수선은 1966년 3월에 '여성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부녀자 지도육성과 불우여성 선도 등 부녀복지사업에 헌신한 공'으로 보사부장관 표창, 1967년 4월에 대통령 표창, 5월 8일에 한국부인회가 선정한 '착한 어머니'로 국회의장 표창, 1969년 12월에 '공익후생복지사업 및 여성운동에 앞장선 공로'로 제주도지사가 주는 '공익상', 1971년 4월에 제주방송국장 표창, 1972년 9월 25일에 저

축장려운동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 1978년 9월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는 제15회 '용신(容信)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여권신장을 위한 도전, '의원(議員) 출마'

고수선이 대한부인회 제주도지회장에 선출되고 몇 개월 뒤인 1952년 5월 10일에 제주도의회 초대 도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 때에 고수선은 북제주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고수선에게 도의원 출마는 "여다(女多)인 제주도에서 여성지위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권신장을 위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라고 한다. 신문지에다 남편을 비롯해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동원, 붓으로 쓴 벽보를 사용했다.

> 여자라면 보통학교만 출입하여도 시집 못 간다던 반세기 전에 인습을 박차고 감연(敢然) 남자와 자리를 같이하여 경성의전을 마친 사실은 바로 고여사의 의지와 인생관을 넉넉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배웠다'는 층에 흔히 있기 쉬운 부박(浮薄)한 여성에 반하여 그가 온순한 양처이며 자후(慈厚)한 현모일 뿐 아니라 몸소 배운 인술을 통하여 연약한 여성을 돌보기에 여가 없는 그날그날을 바쳐온 것은 세인이 모두 아는 바이며, 지금 역시 읍내에 홍익산원을 세워 자모 보호를 뜻하여 봉사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
> "우리 30만 도민의 살림을 마련하는데 남자들에게서만 맡겨서야 여성으로서 안심할 수 있나요?"라고 말하는 여사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
> "어려운 일은 남성에게 맡기고 나는 수천 년을 구속받아온 여성의 자리를 하루바삐 높이기 위해 우선 '한글'만이라도 보급시키기에 힘쓰겠습니다. 수많은 미망인들의 자립을 위해 그네들에게 알맞은 일터를 말해주는 것도 긴급하고요. 나는 남자 사이에 끼어 남자가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우면서도 여성으로서는 중대한 일을 여성의 편에 서서 부르짖고 실현하겠습니다."
>
> 어려운 일은 남자에게 맡긴다고 말은 겸손하나 미소를 띠운 여사의 표정은 남자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만만한 자신을 내뿜는 듯, 사실 그는 정견발표 당시에도 누구에게도 손색없는 무게를 보여주었다는 정평을 얻고 있다.

1952년 5월 9일자 《제주신보》 〈도의원후보를 찾아/북선거구 고수선 여사〉 기사 내용이다. 당시 제주사회에 비친 고수선의 분위기와 그가 하고자 했던 공약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읽힌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이른바 '배운 여자'에 대한 편견을 엿보게 한다.

이 선거에서 고수선은 낙선했다. 고수선은 "나의 출마 동기는 어디까지나 본도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중상모략을 받으며 고전을 치른 선거는 낙선으로 끝이 났다. 나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여성운동을 할 수 있는 강인한 투지력이 새로 살아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도의원 선거 2년 뒤인 1954년 고수선은 제3대 민의원 선거에 북제주군 갑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는 "여성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1954년 고수선은 제3대 민의원 선거에 북제주군 갑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여성도! 국회로!!"라는 구호가 눈에 띄는 당시 벽보.

것이 당시로서는 우스웠는지도 모르지만,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찾는 길은 남성보다도 여성 스스로가 쟁취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여권신장'을 부르짖으며 출마했다."라고 한다. 이 민의원 선거에서 고수선은 '여성을 국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결같이 "여성을 계몽시켜야 한다. 여다(女多)의 제주에서 여성지위가 낙후돼서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고수선의 출마는 제주여성으로는 정치에의 첫 도전이었다. 특히 민의원 출마는 제주여성사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만큼 당시 제주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대대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된다.

고수선은 특히 유세장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입후보자들 가운데 홍일점이라는 것만으로도 눈길을 끌었는데, 연설 솜씨 또한 뛰어났기 때문이다. 고수선은 유세장에서도 늘 원고 없이 연설을 했는데,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 나서 상황에 맞춰 대처했다."라고 한다. 그의 뛰어난 순발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당시 오현고 교감인 고담용이 고수선 후보에게 '누님 나오지 맙서. 암탉이 운다고 날이 샙니까.' 하는 내용의 사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발송했는데 이게 사직당국에 포착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든 것이다. 이 일로 고담용이 구속되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현직 교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처음이었다. 더구나 고담용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제주대학 교수를 지낸 인물이어서 더욱 그랬다.

이에 고수선은 유세장을 돌면서 '여자가 많은 제주에서, 여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고담용을 공박했다. 그러나 경쟁 상대들로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소리를 숱하게 들어야 했다.

> 정견발표 때마다 남자후보자들로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비방을 당하는 고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나는 그때마다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공박을 하며 맞섰다. 이 선거에서도 나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
> - 1978년 6월《제주신문》〈내가 살아온 길〉 중에서

북제주군 갑구에서는 일곱 명이 출마했는데, 세 사람이 각축전을 벌였다. 고수선은 3위였는데, 득표수의 75%가 제주읍 지역에서 나왔다. 당시 언론이 "제주읍내에 전력을 기울여 가정주부들에게 여성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적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했던 것으로 미루어 제주읍내 여성들의 전폭적이 지지가 있었던 듯하다.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민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수선은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그에게 '선거에 나오지 마라.'라는 편지를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고담용이 신문에 낸 '인사의 말씀' 광고가 발단이 되어 고담용과 신문광고를 통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이다.

고수선은 광고내용 중에 '정치는 이성적인 남자가 하는 일이며, 감정적인 여자에게는 부적당하다.'라는 것에 흥분했다고 한다. 고수선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박하고, 이어서 '대한부인회 제주읍지부' 이름으로 "여권을 무시하는 고담용에게 반성을 구하면서 친애하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보고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고담용을 성토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첫 기록, '여성 주례'

한국 최초의 여성 주례는 1972년 영화감독 이장호의 결혼식 때 주례를 했던 영화배우 최은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수선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62년부터 주례를 맡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주례를 맡은 것은 1962년 11월 12일 양재박·박유자 부부의 결혼식에서였다. 양재박은 "당시 고수선 여사는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사회사업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유명하기도 하고 존경받는 분이었다. 물론 나도 많이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고수선 여사를 찾아가 주례를 해주십사 부탁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셨는데, 신랑신부가 좋다는데 누가 뭐랄 거냐며 거듭 부탁드렸더니 승낙하셨다."라면서 당시 고수선의 주례사 중에 신부에게 '자식들한테 우던 닮았다고 하지 마라.'라고 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고수선의 주례사에는, 결혼하고 자식들 낳아 기를 때 힘들게 하면 흔히 '누구 닮아 그렇다' 탓하기 일쑤인데 그러지 말고 특히 어머니 곧 여성이 앞장서서 자식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수선이 첫 주례를 했던 1962년에서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여성 주례의 결혼식은 흔하지 않은 풍경이다. 주례는 남자가 한다는 관례를 이미 반세기 전에 처음으로 깬 고수선도 대단하지만, 양재박 부부의 열린 사고도 당시로서는 대단한 결단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고수선 역시 이들을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 후로도 고수선은 몇 번 더 결혼식 주례를 맡았었다.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고수선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남편 김태민이 1956년 운주당에 '제주국악원'을 설립하면서부터다.

1956년 7월의 어느 날, 사회활동으로 여념이 없었던 고수선이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 김태민이 대문 앞에 '제주국악원'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고 한다. 깜짝 놀라서 "광대집을 만들려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은 예술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인생은 짧아도 예술은 긴 것이다.

김태민, 고수선 부부. 1959년 운주당에서의 고수선 회갑 기념사진이다.

지금 제주도의 예술은 가장 뒤떨어졌다."라고 하더란다. 그렇게 시작된 제주국악원은 국악 분야에 소질이 있는 피난민들로 결성, 운영되었는데, 당시 민요창을 잘했던 김해석을 초빙해다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야홍 타령〉 악보를 만들기도 했다.

1965년 김태민이 세상을 떠난 뒤 고수선은 제주국악원의 간판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창고를 청소하다가 그 간판과 마주하자 "비로소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고 유지를 받들어 예술 사업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 그리고 1972년 2월 9일 국악에 대한 김태민의 유지를 기리는 뜻에서 그의 아호인 '인당'으로 이름 붙인 '인당민속무용예술단'을 탄생시켰다. 인당민속무용예술단은 1972년 4월 11일에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12월에는 제주시민회관에서 창단기념 공연을 가졌다.

1972년 4월 9일에는 '국악협회 제주도지부'가 재발족되고, 고수선이 지부장에 선출된다. 국악협회 제주도지부는 1976년 제15회 한라문화제 때부터 문화예술행사 중 '국악의 향연', '국악제' 등을 주관했다. 고수선은 1980년 9월까지 국악협회 도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1976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부지회장을, 1978년 1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제17~18대 도지회장을 지냈다. 예총지회장으로서 한라문화제를 집전하기도 했다. 예총 제주지회장 역시 여성으로서는 고수선이 최초였다.

운주당에서의 마지막 활동, '노인회장'

1974년 10월, 고수선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일을 시작했다. 그의 나이 77세였다. 고수선이 초대 노인회장을 하게 된 이유를 아들 김률근은 "1957년도엔가 제주에서 처음 시작된 양로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어머니가 양로원을 개설하시려고 했었는데, 직접 못 하니까, 다른 분한테 하도록 하고 뒤를 봐주셨다고 한다. 그것이 제주양로원의 효시였다. 어머니가 일찌감치 노인 돌보는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직접 못 했기 때문에 노인회 일을 기꺼이 맡으셨다고 생각된다."라고 한다.

제주노인회의 시작도 운주당이었다. 고수선은 노인회장으로 한창 활동하던 중인 1977년 10월에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스스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라며 "죽을 때까지 뛸 작정"이라고 했던 고수선은 85세가 되던 해인 1982년까지 노인회장으로 활동했는데, 회장 자리를 물려준 뒤에도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노인회 일에 관여했다고 한다.

고수선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활동을 마지막으로 유서 깊은 운주당을 떠나게 된다. 운주당 시절에 고수선이 마지막으로 받은 상은 1980년 8월 14일에 '조국의 자주독립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받은 독립유공자 표창과, 같은 해 10월 28일에 받은 제1회 '만덕봉사상'이었다.

고수선·강평국·최정숙,
삼총사의 아름다운 우정

1981년 11월 10일, 고수선은 황사평 묘역으로 갔다. 1933년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 강평국의 추도비가 세워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84세의 노인이 된 고수선은 강평국을 떠올리며 10대 소녀였던 신성여학교 시절을 되새겨보았을 것이다. 더불어 강평국과 함께 '삼총사'처럼 친하게 지내던 또 한 명의 친구 최정숙을 떠올렸을 것이다.

고수선의 생애에서, 신성여학교 동창생이라는 인연으로 출발해 1회로 졸업한 후 같은 듯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변치 않는 우정을 쌓았던 이 삼총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셋은 1914년 신성여학교를 졸업하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다른 유학길에 올랐다가 1918년 서울의 경성여고보 사범과 동창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제주도라는 동향에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이라는 연대감으로 이 삼총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져갔다. 세 사람은 서로를 독려하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함께 독립운동 비밀서클에 가담해 활동하고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독립운동을 이어가 고초를 겪었고 저마다 학업을 이어갔다.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삼총사가 제주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1925년 12월의 일이다. 당시 서울 경성의전에 재학 중이던 고수선이 졸업 직전 겨울방학에 잠시 귀향해 강평숙, 최정숙, 김시숙, 이재량 등과 더불어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고수선이 초대 회장에 선출된 제주여자청년회는 여성의 의식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창립되어 근대민족여성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고수선은 다시 서울로, 최정숙은 목포로 떠나고 강평국도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셋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경성의전을 졸업한 고수선이 첫 의사면허를 발급받아 제주로 돌아오게 된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간 강평국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일본에서도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1927년에 도쿄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 집행위원장으로 뽑혔고, 1928년에는 민족유일당 여성단체인 근우회를 창립해 도쿄지회의 의장단으로 활약했다.

1932년 최정숙은 전주 혜성학교로 옮겼다. 그곳에서 예술제를 준비

하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라는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속돼 세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 무렵 일본에서 활약하던 강평국은 병을 얻게 된다. 병이 심해져 학업을 포기하고 1933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해 1월 12일 광주에서는 전남 일대 여자청년회를 탄압하기 위해 여성비밀결사활동을 트집 잡아 여성운동가들을 검거할 때였다. 강평국은 병으로 꼼짝할 수도 없는 몸 상태에서 광주 지역의 여성운동가들과 연루되었다 하여 일제 경찰에 의해 광주로 연행되었다. 얼마 뒤 제주로 돌아왔지만, 병이 더욱 악화되어 같은 해 8월 12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유해는 황사평 천주교 공동묘지에 묻혔다.

고수선이 제주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중인 1939년 최정숙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다. 의전을 졸업하고 서울 성모병원에 근무하던 최정숙이 제주로 돌아온 1944년 고수선은 일제의 소개령으로 충청남도 강경으로 떠나게 된다.

제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최정숙과 강경에서 제주로 돌아온 고수선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1951년이다. 이후 최정숙은 교육계에서 고수선은 사회사업을 통해서 주로 여성 보호와 권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제주도 여성지도자로서 도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자주 만나 제주사회를 위한 일에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우정을 쌓았다.

최정숙은 1977년 2월 22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고수선은 친동생을 잃은 듯 몹시 슬퍼했다고 한다. 고수선이 손수 최정숙의 수의를 입히는 등 염을 해주었다.

최정숙이 세상을 떠나고 4년 뒤인 1981년, 고수선은 84세가 되어 있었다. 그해 11월 10일에 황사평 묘역에 '아가다 강평국 선생 추도비'가 세워졌다. 고수선을 비롯해 장시우, 김정순, 한려택, 김소아, 김계숙, 박은표, 양병효, 고혜영, 김서옥, 김창제, 문연실, 고인식, 오매실, 강어영, 강순자 등 강평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친우, 동지, 동료, 후배,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강평국의 뜻을 기리는 비를 세운 것이다.

33세의 아까운 나이로 요절한 친구 강평국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았던 고수선은 어떤 심정으로 그의 추도비를 바라보았을까. 삼총사 가운데 홀로 세상에 남아있고,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고수선은 가슴에 묻은 강평국을 떠나보내지 못했다. 여러 방면으로 애썼지만 강평국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독립유공자 대열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수선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평국을 안타깝고 애석해했다고 한다.

고수선·강평국·최정숙, 이들이 걸었던 길을 되돌아보면 세 명이 온전히 함께했던 시간은 넓게 햇수로 쳐서 따진다 해도 신성여학교 시절 2년, 경성여고보 사범과 시절 1년,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했던 해 1년 등 4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우정의 깊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 이들이 제주여성사에 끼친 영향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운주당을 떠나
세상과 이별하다

1983년 고수선은 운주당을 떠나게 된다. 많은 사업을 했지만 돈 버는 일이 아닌 사회사업을 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자손이 많다 보니 집안 사정이 맞물려 운주당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운주당은 고수선에게 둥지였고 무대였다. 운주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한창 젊은 나이였는데, 86세의 노인이 되어 그곳을 떠나는 고수선의 마음은 어땠을까. 운주당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고, 운주당에서 겪었던 숱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이니 만감이 교차했을 터이다.

반세기를 함께했던 공간을 떠나려니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릴 만도 한데, 고수선은 평온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운주당을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운주당 저택 건물을 해체함으로써 '고수선의 운주당 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운주당을 떠난 고수선 가족은 제주시 일도2동으로 옮겨 '선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했다. 그때까지도 건강한 편이었던 고수선은 뜻밖의 사고로 골반 뼈를 다치고 만다. 수술을 받고 한동안은 여기저기 외출할 만큼 괜찮았는데, 얼마 후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후진들에게 '함부로 놀러 다니지 말 것', '싸우지 말 것', '말을 많이 말 것'을 말한다. 나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가장 싫다."라던 고수선은 그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던 삶을 마감하며,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과 이별했다. 1989년 8월 11일 밤 10

운주당에서 만년의 고수선.

시 20분의 일이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운주당 할망

고수선이 스무 살 때부터 아흔 살까지 70여 년 동안 활동하며 이루어낸 일들을 살펴보면 한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싶어진다. 활동가로서의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독립운동가, 의사, 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운동가 등등 제주사회가 고수선에게 붙였던 칭호가 여럿이기도 하거니와 어느 이름 하나 가벼이 붙인 게 없기 때문이다.

고수선은 사회활동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 집안의 딸이고 며느리였으며, 한 남자의 아내였고, 7남 2녀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였고 장모였으며 할머니였다. 그렇게 여자로 태어났기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했으며, 그 어떤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밖으로는 쉼 없이 사회활동을 하고 안으로는 주어진 역할을 모두 소화하려니, 안팎으로 얼마나 바쁘고 고단했을까. 그러나 그는 조급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수많은 활동과 역할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고수선의 호, '우인(又忍)'에 품은 뜻이 그 답이 아니었나 싶다.

고수선은 늘 공부하고 깊이 생각했으며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에게서 받은 느낌을 '명석했다, 온화했다, 대범했다, 진취적이었다, 진중했다, 차분했다, 겸손했다' 등등으로 표현했다. 만년의 그는 '마음이 큰 지도자', '훌륭한 여성',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일컬어졌다.

고수선의 유해는 1989년 8월 14일 산천단에 있는 김태민 무덤 옆에 안장되었다가, 16년 만인 2005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에 있는 국립묘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졌다.

고수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걸었던 길을 선명하게 따라가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의 활동과 업적에 비해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고, 그가 활동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노령이어서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의 만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대 간격이 커서 단편적인 이미지만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선의 생애는 더할 수 없이 드라마틱해서 수시로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했다. 때로는 비장한 얼굴로 앞장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때로는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는가 하면, 때로는 한없이 따뜻한 표정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에 안은 거대한 어머니 같았고, 때로는 그 어떤 것도 담아낼 크나큰 그릇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렇듯 '인물 고수선'의 생애 속으로 떠나본 여정(旅程)은,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헤치며 펼쳐지는 대하드라마 같았다.

고수선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설명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발자취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강조하며 지주로 삼았던 정신은 '애국애족'과 '홍익인간'이

었다.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시대에 따라 또는 시대를 개척하며 독립운동, 여성운동, 사회사업 등에 평생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고수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일을 해냈던 시기에 무대가 되어준 운주당 터가 복원사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조선시대 운주당의 수백 년 역사가 그 안에 배어 있듯, 고수선이 함께했던 운주당의 수십 년 역사 또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제주가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 제주여성사 더 나아가 제주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고수선의 이야기도 운주당과 함께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 제주의 영원한 운주당 할망 고수선의 정신과 발자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 믿는다.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又忍 고수선 傳》에서 발췌해 정리.

〈참고문헌〉

경기여자고등학교·경기여고동창회 경운회,《경기여고 100년사》, 2009.
고시홍, 〈고수선〉,《제주여인상》, 제주도문화원, 1998.
김종배,《도백열전 제1권》, (사)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도서출판 세림, 2006.
김찬흡,《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회,《제주도적십자회 50년사》, 1999.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탐라문화제 50년》, 2014.
제남신문, 〈내가 걸어온 길〉, 1973.
제주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 60년사》, 2006.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시대를 앞서간 제주여성》, 2005.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신문기사 자료집《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2002.
제주발전연구원,《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 Ⅱ》, 2011.
제주신문, 〈내가 살아온 길〉, 1978.
제주여자고등학교,《제주여고 50년사》, 2001.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보센터,《제주보육 50년사》, 2009.

강평국, 시대를 넘어선 그 미완의 불꽃

허영선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장)

강평국, 시대를 넘어선
그 미완의 불꽃

그의 시대와 강평국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다. 2019년 불꽃처럼 살다간 제주의 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비로소 부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절 제74주년에 그의 독립운동을 인정,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것이다. 강평국. 그가 비로소 후대들의 노력에 의해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오른 이 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였고, 그의 탄생 119년이었고, 그의 사후 86년 만이었다. 후손이 없던 그의 삶 뒤에 유족 외조카 최봉기(2020년 작고) 씨가 서훈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

강평국, 세례명 아가다. 누구보다 앞선 시대정신의 소유자였던 그의 생애를 관통한 것은 무엇인가. 생애를 다해 구국애에 자신을 태웠으나 그토록 원했던 독립을 맞이하지 못한 33년의 짧은 생. 그러기에 자신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그는 '미완의 불꽃'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

강평국 선생.

취는 용암처럼 뜨겁다. 강평국, 그는 누구인가. 그의 삶을 뚫고 흐르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1900년, 바닷소리 넘나들던 제주시 일도리 1390번지에서 아버지 강두훈과 어머니 홍유리안나(홍소사)의 1남 2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그의 호적상 이름은 연국(年國)이었다. 본관은 진주, 원적은 산북 애월면 광령리.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 태어났으나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되었다. 1901년 신축교안, 소위 '이재수의 난'에 천주교 신자였던 아버지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강평국은 그야말로 19세기의 마지막 문이며, 20세기의 문을 여는 시기에 세상과 만났다. 구한말, 한 세기를 이어온 통념, 관습을 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가의 길목에 그가 있었다. 이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여성들이 오래도록 억압된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자아에 눈을 뜨기 시작하던, 자유를 열망하던 시대였다. 이 시기, '자유', '여성해방' 이런 말들은 가부장제 통념에 젖어 있던 남성들에겐 매우 거슬리는 언어였다.

거칠고 팍팍했던 배경이 삶의 테두리였던 강평국의 시대, 제주 여성들은 대개 낡은 유습에 따라야 했고, 노동이 최고의 미덕이었다. 글을 깨치는 것만도 그야말로 호사였던, 모든 것이 어두웠던 때였다.

선택받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능동적인 교육 수혜는 결국 여성의 수동성을 파괴함을 의미했다. 때문에 신학문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의 경우란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조금은 따가운 눈초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삶을 영위하기 급급한 섬의 삶 속에서 여성들이 학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흔치 않았다.

이러한 물결 속에 강평국의 시간이 있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다는 것은 언제나 삶을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기에 치열한 독립의지와 투쟁은 시대정신의 산물이었다. 누군들 한 번뿐인 생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유독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가 강평국, 그의 전생을 노도처럼 뒤흔들었다. 그는 누구보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하였고, 모순에 걸린 여성들의 족쇄를 풀어내는 데 몰입하였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 그는 당시 제주 '신여성'의 아이콘이 되었다.

교육 그리고 유학

그가 태어났던 당시 열여섯 살의 나이 차가 있던 언니 강춘길은 이미 결혼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교육열이 뜨거웠던 어머니와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어갔던 오빠 강세독의 지원으로 비교적 수월

하게 신학문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후일 교육자의 삶을 살다간 오빠 강세독은 1911년 제주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이며, 관비 유학생으로 1916년 경성고등보통학교와 동교 부설 사범과 졸업생이었다. 열린 시각은 누이동생의 미래를 지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강평국은 1909년 구마슬(Lacrouts) 신부에 의해 설립된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자 가톨릭계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강평국과 학생들은 당시 교사들에게서 역사의식을 배태할 수 있었다. 빼앗긴 조국의 딸들에게 무엇보다 가슴을 달구게 한 것은 조국이란 이름이었다.

강평국의 담대한 도전은 1914년 졸업과 함께 섬을 떠나 서울 유학길에 오르면서 시작된다. 후일 운명적 항일운동의 동지였던 고수선, 최정숙 역시 신성여학교 동기였다. 특히 이 학교 이 곤자가, 김 아나타시아 수녀의 영향을 받았던 이 용감한 세 여성들은 부모에게 각자의 미래를 설득하거나 혹은 관문을 돌파해야 했다. 떠나는 시기는 달랐으나 이들은 섬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 이 출륙은 아마도 의식이 남달랐던 어머니들의 영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누군가의 영향은 다음 세대 누군가에게 새로운 자각을 주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당시로선 여자들이 공부하기 위해 섬을 떠났다는 것, 그 자체가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우여곡절 끝에 이들 세 여성은 1919년 서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경성여고보) 사범과에서 만난다. 신학문을 향한 첫 번째 여성들인 이들 세 여성은 후일 모두 전문직인 의학을 공부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여성들의 문맹퇴치, 여권신장, 교육에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공통점을 갖는다.

3·1독립운동, 항일의 길

1) '수령급' 활동과 강평국의 검속

강평국. 그는 현존 사료 속에서 경성여고보 3·1만세시위의 '수령급'으로 드러난다. 생존 동료, 제자, 후배들의 증언과 3·1운동 후 함께 활동했던 최은희의 사료, 동료의 판결문 등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한 항일 의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다.

강평국의 지점은 늘 항일에 있었다. 서울 유학길에서도 학교에서의 공부보다 조국을 찾는 일이 우선순위였다. 그러기에 재경 제주유학생들과의 교류도 그것이 화두였다. 오로지 조국의 해방을 가슴에 품었던 그들의 항일운동은 1919년 3·1만세시위에서 분출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파편적이지만 객관적으로, 3·1운동의 핵심이었던 경성여고보 동기생 최은희의 저술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같은 학교 동기생으로 3·1의 선두에 섰던 최은희. 후일 우리나라 최초 여기자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언론인 최은희의 치밀한 조사와 증언 등이 바탕이 돼 나온 저작물인《여성 전진 70년》(최은희, 최은희기념사업회 편, 1991),《조국을 찾기까지》(최은희, 탐구당, 1973) 등은 근대 여성 운동 자료가 부재한 현대에 매우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그는 이 기록을 통해 묻힌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지였던 제주 강평국과 고수선, 최정숙은 독립 운동의 맥락에서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을 거론하고 있다.

3·1만세시위를 앞두고 최은희는 과자를 먹는다는 핑계로 7~8명의 학생이 모인 기숙사 식모 방에서 박희도가 준 〈독립선언서〉를 펼쳤다. "1919년 2월 27일 28일경, 이날 밤 제주에서 유학 온 두 남학생이 몰래 제주 출신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을 만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두 남학생은 〈예심종결서〉 등 문건 속에서 밝힐 수 있는 제주 출신 유학생 박규훈과 채순병임을 알 수 있다. 민족의식에 불타던 제주 출신 유학생들이 명동을 중심으로 자주 모임을 가질 때였다.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한 최은희,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은 모두 경성여고보 졸업반이자, 소녀결사대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1919년 경성여고보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면서 3·1독립운동 함성의 선봉에 섰다. 경성여고보 79명의 소녀결사대가 독립선언문과 나라를 구하자는 삐라를 치마폭에 감추고 학교 담장을 넘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 맨 처음 내가 박 선생(박희도) 앞으로 데리고 간 학생은 후에 역사가 장도빈의 부인이 된 당시 22세의 김숙자였고… 우리들 4인 이외에 최근 제주도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 현 제주도 홍익보육원장 고수선과 강평국, 이남이, 노순열, 이숙, 김일조, 이정의, 유재룡, 이금자 등이 그때의 멤버들로 중추 인물이었고, 의정학교 후배로 총독부 병원 간호부가 된 차정순도 모였다. (최은희,《조국을 찾기까지》, 탐구당, 1973.)

최은희의《조국을 찾기까지》 21장 '3·1운동편'(90쪽)에는 "경성여고보는 전국의 수재가 모이는 학교라 일찍부터 민족운동자들의 관심이 컸었고,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실패를 산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33인 측에서 직접 지도를 하였다고 적혀 있다. 경성여고보 3·1만세운동은 1917

년부터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박희도의 지도로 학생들의 비밀 서클이 조직되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우선 교내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을 고뇌하던 젊은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조국 해방에 대한 시대적 책무를 지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에는 수많은 고교가 있었지만 여학교로는 유일하게 경성여고보가 주도적으로 3·1만세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이미 2년여에 걸쳐 학습된 정신무장이 있었기 때문임도 밝히고 있다.

제주 출신 유학생 박규훈이 기숙사 소사 숙소의 창문에 지게를 세워두면 강평국은 지게를 타고 밖으로 내려가 연락을 취하고 독립운동 정보를 얻어와 공유하곤 했다. 그만큼 강평국이 외부와의 연락책으로 중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대외 협력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직접 채록했던, 그의 제자 김서옥 등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주로 명동성당 등지에서 남학생들과 비밀 연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제주 출신 재경 유학생들의 교류와 독립을 향한 공통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3월 1일 오후 1시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연락이 다 됐었는데 갑자기 낮 12시에 만세를 부르게 되자 박규훈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숙사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이미 '독립선언서'를 쓴 유인물이 학교 운동장에 살포돼 있었다. 교직원들은 수업을 중단한 채 긴급회의를 열었고, 기숙사 대문은 자물쇠로 잠궈 폐쇄해버렸다. 몇몇 학생이 '대문을 부수자!'고 소리쳤다. 고수선과 동료 학생 김일조가 도끼로 문을 부쉈다."

최정숙은 생전 회고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속옷에 주소, 성명, 학교, 고향, 부모 이름까지 써 붙이고 파고다공원에 갔다."라고 썼다. 부서진 대문을 밟고 나간 학생들은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동료 학생들과 파고다공원으로 가다 독립선언식을 마치고 나오는 인파와 마주쳐 대열에 합류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3·1만세운동 당일 붙잡힌 최정숙은 닷새 동안 경무총감부에서 고문을 받았다. 최은희는 회고록에서 "우리 학교(경성여고보) 학생 32명이 잡혔는데 학교로 연락한 결과 교장이 명단을 조회하고, '최정숙과 최은희는 그쪽 처분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전화가 걸려온 뒤 교무주임을 보내 30명의 학생만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학교 분위기를 그릴 수 있는 풍경이다. 학생들은 화장실 벽에 비장한 문구를 써 붙인다.

> "'불의(不義)코 백년 살지 말고 의(義)코 하루 살아라'를 변소 벽에 기록하고 한 사람씩 가보게 한다. 하오 1시경에 독립선언서 1장이 들어왔기로 몰래 들여다보고 있을 때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울리다."(상하이판 《독립신문》, 〈여학생 일기〉, 1919. 10. 16.)

이러한 결기 속에서 여성들의 독립의지는 더 불타고 있었다.

최은희는 《조국을 찾기까지》에서, 경성여고보 비밀 조직은 민족운동가들과 연락하며 3·1만세운동을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본과생 최은

희, 김숙자, 이양전과 사범과생 최정숙·강평국·고수선 등이 중심이 됐다."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강평국은 어떻게 검속되었는가. 강평국의 검속은 3월 5일 있었던 2차 시위 때다. 경성여고보 학생들은 3월 5일 새벽 사감의 눈을 피해 남대문 역으로 나가 만세운동에 참여한다. 이때 역시 강평국은 동료 학생들과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성여고보 7인과 함께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3월 24일 풀려났다. 3·1만세운동은 그로부터 닷새 후 다시 일어난다.

다음은 최은희의《조국을 찾기까지》에 나타난 3·1만세 2차 시위에 관한 기록이다.

"…그날 밤 제주에서 유학하는 두 남학생이 비밀리 제주 학생 최정숙·고수선·강평국을 만나고 갔다…"(96쪽)

"경성여고보는 남학생의 연락으로 기숙생 전원 70명이 5일 새벽 사감의 눈을 피하여 남대문 역 앞으로 나가서 데모에 참가하였다. 그날 검속된 노순열·이남재·강평국·유재용·이금자와 정신학교 임충실·박남인·김경순, 숙명여고보 조경민 등이 함께 있게 되었고, 동경 유학생 황애덕이 최종 5일간 같이 있어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104쪽)

아래 기록은 고수선이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두기 위해 말년에 기억을 더듬어 썼던 내용이다. 고수선이 세상을 뜨던 해였다. 필자가 채취한 그의 노트 맨 뒷장에 보이는 육필 기록은 이렇다.

"돌연히 순종이 붕어하셨다는 소문이 민간에 유포되었다. 우리가 신문 호외로서 알기는 이튿날 오전 열시였다. 전교생의 울음 소리로 (학교는) 바다가 됐다. 학교가 왈칵 뒤집히니 교장도 도리가 없어 전교생을 학교 강당에 모이게 하고 각 반에서 일인씩 대표로 대한문 앞에 (참배에) 참가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받았다. 그러나 수업종을 친 뒤에도 한 사람도 교실에 안 들어갔다. 일본 선생들이 말하기를 조선 여자같이 지독한 여자는 없다고 탄복했다."

강평국과 동료들. 오른쪽 두 번째가 강평국.

그러면서 그들의 독립운동을 상상하게 하는 대목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아래 기록을 보자.

> "강평국과 외부 연락을 했다. 박규훈 씨가 창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종로 경찰서 앞까지 갔다. 서울역에 당도, 용산서 총을 쏘아대자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피신. 4인(강평국·고수선·최정숙·박규훈)이 약속키를 우리는 끝까지 계속 일할 것을 약속, 제동 유철경 선생댁에서 등사, 머리동이를 만들어 박규훈 씨에게 전달. 최 선생은 종로로 가다 대중에 휩쓸렸다가 체포. 수고는 강 선생이 많이 했다."

강평국과 함께 3인방이었던 최정숙과 고수선이 남긴 공통된 표현은 "수고는 강 선생이 많이 했다."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정숙 역시 생전에 〈내가 살아온 길〉을 통해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나는 사상범으로서 서클 대표로 올라 있기 때문에 면회가 금지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은 고수선, 강평국 씨 등이 나보다 더욱 수고했는데 내가 주동으로 몰린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당시 제주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외조카 최봉조(작고, 1989, 필자채록)는 "외숙(강세독)도 서울 가서 공부할 때였는데, 동생이 만세 부르다 잡혀갔다."라며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성품이 곧고 깐깐하기로 이름났던 오빠 강세독이었으나 바로 곁에서 만세운동에 깊이 참여하던 누이동생이 끝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은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2) 최정숙·최은희의 신문조서를 통해본 강평국의 항일

강평국은 2월 27, 28일경 외부와 연락을 하면서 3·1독립만세를 준비하며 맹활약을 펼친다. 강평국의 3·1독립운동에 대한 비중을 엿보게 하는 대목들은 최정숙의 재판 기록에 수차례 등장한다. 또한 최은희의 저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1919년 3월 17일자로 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생 최정숙(18세)에 대한 조서이다.

"3월 1일 학생 소요사건에 관해 본정경찰서에 검거되어 현재 경성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바 그 소요 전에 그 사람이 그 학교에서의 동정을 참고로 보고한다."라는 내용이다.

> "학업성적이 좋으므로 교내 및 기숙사에서도 세력을 얻어 그 학교 생도의 지도권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 소요사건에 관해서 그 학교 직원은 말하기를 본인은 이미 지난 달 27·28일경부터 그 학교 기숙사생 최은희, 강평국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계획을 학생 사이에서 밀의한 흔적이 뚜렷하다."

경성여고보 본과 3년생이었던, 최은희의 조서 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번 소요에 관해서 본인은 이미 남학생 측에게서 2월 26·7일경에 독립운동소요의 상의를 받은 모양이며, 그 27일인지 28일경에는 동숙생 최정숙, 강평국, 유재용, 이명숙, 고수선, 김일조 등과 상의하고, 다만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형적이 충분하여 그 학교에서 수령급은 본인 및 최정숙, 강평국이 수령금의 주된 자라고 그 학교 내의 학생 및 직원은 말했다."

이는 1919년 3월 27일자로 된 3·1 독립선언 관련자 조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동정급성행조회'의 대목이다. 소요 당시 및 재학 중 동정을 참고로 보고하면서 최은희와 강평국, 최정숙이 '수령급' 인물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1919년 6월 26일자로 작성된 경성지방법원에서의 2차 신문조서를 보면 수령급 인물이었던 3인방 제주 여성과 3·1 만세운동 과정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판사인 신문자는 핵심 인물을 거명하며, 그들과의 연계성을 찾고자 계속 유도하고 있다. 최정숙에 대한 신문에서 강평국 이름을 세 차례나 거론하고 있음이 그 근거다.

문: 강평국·유재용·이명숙·고수선·김일조 등을 아는가.

답: 이명숙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은 모두 같은 학급 사람이므로 알고 있다. 이명숙은 모른다.

문: 그런 것이 아니고, 최은희·강평국 등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운동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듣고 학교에서 상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답: 그런 일이 없다. 3월 1일에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문: 그때 최은희·강평국 등도 같이 나왔는가.

답: 기숙사생이 같이 나왔지만 누구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문: 피고 등이 기숙사생을 인솔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아닌가.

이렇듯 최은희, 강평국의 독립운동 개입을 밝혀내기 위한 유도 신문은 다시 한번 이어졌던 것이다. 어떻게든 그들과의 연계성을 밝혀보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정숙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3) 증언을 통해 본 강평국의 서울·제주 항일운동

강평국은 3·1만세 1차 시위 당시에는 수감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평국에 의해 신학문을 접하게 됐던 제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강평국의 제자였던 김서옥은 생전에 이렇게 증언했다.

"3·1운동 당시 만세를 불렀는데, 최정숙 선생님은 종로로 나가다 붙잡혔고 선생님은 안국동 방향으로 나가다가 일본 기마병에 쫓길 때 어느 집에 들어가 병풍을 치고 앉아 머리를 쪽지고 앉아버렸다 해요. 그래서 색시처럼 보여 붙잡히지 않았다고 해요."(1989, 필자 채록)

대정 공립보통학교 시절, 강평국의 제자였던 이운방(1909년생, 작고)은 생전 증언에서 "당시 모슬포에서도 독립만세가 있었다. 강평국이 독립만세에 간여했기 때문에 전근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는 증언들이 각기 달라 강평국의 경성여고보 졸업 후 제주에서 대정공립보통학교, 조천공립보통학교, 제주보통학교 등 이동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위해 추후 좀 더 세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함

을 밝힌다.[1]

이운방은 생전 필자가 채록할 당시 증언 외에 자신의 육필기록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한다.

> "강평국 선생은 1919년 4월 말 또는 5월 초경에 대정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하자 우리의 1학년 담임 선생이 되었는데 2학기(9~12월) 때부터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내가 제주공립보통학교 5학년에 진급한 해인 1922년 9월이 되어서는 이 학교로 전근해 왔으며, 나를 보자마자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선생으로부터 먼저 '운방아' 하고 반가이 불러주는 것이었다. 강 선생의 자택은 제주 성안 칠성골에 있었다… 아마도 대정지역에서의 독립만세 운동은 오대진과 강평국 등 두 선생의 합작과 지도의 산물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서울에서의 항일운동이 제주까지 이어진 것이다. 열아홉 살의 강평국이 당시 모슬포 청년회의 핵심이었던 오대진(1898~1979) 등과 합류, 대정지역의 항일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항일운동은 비단 3·1만세시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조선어 교육을 하면서 고초를 당했던 자취들에서도 나타난다.

강평국은 전라남도 진도의 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2] 강평국은 제주 최초의 여교사이기도 했다. 진도로 갈 때 그는 고향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찬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서도 요주의 인물로 찍혔고, 학생들에게 조선역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투옥된다.

제자 한여택(진명여고보 졸·조산원· 1989년 당시 91세)의 증언이다.

> "목포에서 강평국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1학년 담당이었던 강 선생이 너희들은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학생들에게 일깨워줬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와 함께 공부하러 갔던 김소제가 나한테 달려와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학생들에게 조선글을 알아야 한다고《유년필독》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지요. 그런데 강 선생이 같은 학교 직원의 밀고로 잡혀갔던 것이지요."(1989, 필자 채록)

이처럼 강평국과 관련 여러 증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3·1독립운동 이후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당한다.

강평국과 여성해방 운동

1) 여성 교육활동

강평국은 당시 모순된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여성 문제를 대사회적으로 제기한 여성해방에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다. 식민지 시대의 딸로 태어난 그는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이라는 시대정신을 끌고

1) 참고로, 강평국의 호주로 된 오빠 강세독은 1911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서울에 유학, 1916년 경성고보와 동교 부설 사범과를 졸업한 뒤 대정공보교 교사를 지내고 있었다. 일제경찰 문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2) 진도보통학교 시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아직까지 미발굴이다.

가야 했다.

그 첫걸음으로 여성들의 문맹퇴치에 헌신적이었다. 제주에서 최정숙 등과 함께 1921년 '여수원(女修園)'이라는 야학을 설립한 것은 그 성과였다. 당시 돈 2원씩 내고 다니던 이 학습관은 제주 여성들의 문맹을 터주는 역할을 한 본산이 되었다. 이는 또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시원이 되었다.

이때 강평국의 제자들로는 김서옥·김창제·김소제 등이 있다. 이때는 제주북교가 4년제로 5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정식 절차라 할 것도 없었다. 아는 선생이 누구 누구 조카다, 누이다 해서 입학이 됐던 시절이었다.

1925년 새로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격을 띤 '제주여자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 계몽운동에 역점을 둔 이 청년회는 고수선·최정숙·강평국·이재량·김시숙 등이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생존 제자들은 강평국 선생이 항상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라.", "여자들도 배워야 한다. 여자도 똑같은 인간이다."(1989, 필자 채록)라며 불합리한 체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늘 보여 왔다고 했다. 강평국은 이 밖에도 부인회를 조직, 구습을 깨고 동등한 인간의 권리를 찾기를 바랐다.

2) 기고문 '여자해방의 잡감' 통해 대사회적 메시지

강평국이 당시 한 시대 여성사의 흐름을 통찰하고 있던 의식은 그가 직접 쓴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필로 《동아일보》에 기고한 1925년 6월 1일자와 7월 20일자의 〈여자해방의 잡감(女子解放의 雜感)〉이다. '별부재(別付在) 강평국'이라고 쓴 이 글을 통해 그가 당시 기고문을 쓴 곳이 일본의 별부재, 즉 벳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벳부에 있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여성 필진이 드물던 이 시기, 그의 첫 문장은 "최형! 과거의 역사는 여자가 남자의 노예이다 함을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도덕을 아니 법률을 작성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 합니다."로 시작한다.

> "형님! 우리 여자는 오늘날까지 남자에게 물건시하여 왔으며 가축시하여 왔습니다. 형님! 현대의 남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역사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여 왔다 하며 혹은 본래 육체의 구조나 두뇌가 남자에게 비교하여 차이가 심하다 하여 도저히 가정 상에 관한 일이나 혹은 사회에 대한 문제도 토의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천직은 양모현처주의로 남편을 잘 봉양하고 시부모를 잘 공경하고 아이 잘 나서 잘 기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의학상 증명이나 역사상 유전이니 말하고 완전한 인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중략)"
>
> "…형님! 세계의 사조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말랐든 초목이 따뜻한 춘풍을 만나 장차 움을 내여서 초하의 날빛이 반짝반짝 비추일 때 자유자재로 생장의 수도에서 서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진의 생을 발휘하려고 준비에 분망하고 있습니다. (중략) 온 천하의 노예는 그 옥을 발출하여 장차 향할 길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노예였든 여자들은 잠을 깨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조선여자만

은 밤중이외다. 그대로 숙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옥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들을 보라. 그에게 내재된 여성해방 의식이 얼마나 화산처럼 치솟았는지 가늠하게 한다. 또한 당시 세계적으로 여성해방의 대명사였던 입센(Ibsen)의 〈인형의 집〉 노라를 언급하면서 모순된 그 시대상을 엿보게 한다. 그러면서 당시 여성해방이 어째서 중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간략하게 인용하는 이 글을 보자.

"우리 여자는 노예였다. 천하의 노예는 감옥을 벗어나 장차 향할 길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여자를 노예로 취급하려는 자와는 힘이 없고 돈이 없지만 싸워야 한다. 결혼 자유, 연애 자유, 사회에 대한 사교 자유 등 여자의 자주독립에 관한 문제는 공상적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적 유물주의의 경제적 독립에 있다."

이것은 조선의 여성들만이 아닌, 1920년대 유교사상이 뿌리깊은 지식인층, 남성들을 향해 단호하게 던지는 대사회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꽉 막힌 삶을 살던 조선의 여성들을 향해 여성에게도 소중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앞선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엿보게 한다. 그가 세계의 여권을 통찰하며 이 글을 쓸 때 그의 나이 만 스물다섯이었다.

강평국의 동경여의전 시절과 항일운동

강평국은 일본에서도 항일운동에 몸을 던졌다. 평생 구국과 불평등한 여성의 권익 쟁취가 우선이었다. 제주 최초의 여교사였던 강평국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동경여의전)에 입학하면서 여자로선 거의 선두에 선 동경유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유학생활은 학업보다 항일운동에 더 전념하게 만들었다. 당시 여성으로선 드문 유학길이었음에도 그가 온몸을 불사른 것은 구국의 길이었다. 오죽하면 강평국을 곁에서 지켜봤던 이도 그러한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겠는가.

"동경여의전 시절, 틈만 나면 자금을 모으러 다니며 공부보다는 나라 걱정을 더 했다."라는 것이 같은 곳에서 하숙 생활을 했던 동료의 증언이다. (장시우, 제주시, 1989, 필자 채록)

동아일보 1927년 3월 21일, '재일본 동경 동부조선노동조합에서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임원을 개선하다.' 제하에 부인부 집행위원에 선출된 강평국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강평국은 1927년 1월 16일에 창립된 도쿄조선여자청년동맹(1928년 2월 22일 해체)의 초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동경지회가 창립되자 부인부 책임자로 선임되어 활약하였고, 1928년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유일 여성단체인 근우회(槿友會) 동경지부를 창설하여 도쿄지회 의장단으로 활약하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제주항일독립운동사》, 395쪽)

당시 동아일보는 "근우회의 도쿄지회 창립대회는 1928년 1월 21일 도쿄대 기독청년회관에서 열렸다. 박화성의 개회로 시작된 대회는 격

렬한 토론을 별여 아홉 가지 회의 유지를 결의했다. 이어 역원선출이 있었다. 위원장으로는 박화성이 선출되었고, 그 외 각 부서의 역원들도 선출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때 강평국은 정치문화부 소속 역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봉건유습을 타도하자! 노예적 교육정책에 반대하자! 녀성에 대한 일제 차별 대우에 항쟁하자! 전조선 피압박녀성은 단결하자!' 등 '전 조선 피압박 민중이여!'를 제목으로 한 근우회 동경지회(1928년 5월)의 선전주간 슬로건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곳에서도 수많은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주도적인 여성운동, 항일운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강평국, 그 미완의 묘비명 앞에서

1) 33세 미완의 생

강평국은 동경여의전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항일 활동으로 인해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폐질환으로 결국 귀향한다. 1933년 1월 12일 광주에서 여성 비밀 결사 활동이 일경에 의해 발각돼 전라남도 일대의 여자청년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신여성 운동가들을 검거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시기였다. 이때 경찰은 병으로 요양 중인 강평국을 광주로 구인했고, 강평국은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병이 더 악화돼 1933년 3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의 유해는 황사평 천주교 묘역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의 묘역은 표시가 불분명하고 주변이 바뀌면서 찾을 길이 없어졌다. 묘역을 찾는 일 역시 과제다.

오랫동안 묻힌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이 지역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것은 1981년 11월 13일 제주 황사평 묘역에서 열린 그의 묘비 제막식이었다. 그의 동지와 후배 등 지인 16인의 지극한 단성이 모여 '아가다 강평국 선생 추모비'를 세웠다.

"슬프다 시대의 선각자요, 여성의 등불인 그는 3·1운동 때 피흘려 청춘을 불살랐고, 청운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품은 이상 이루지 못한 채 애달픈 생애 담고 여기 길이 자노니. 지나는 길손이여 앞에 발 멈춰 전사의 고혼에 명복을 빌지어다. 여기 뜻있는 이 모여 정성들여 하나의 비를 세우노니. 구천에 사무친 애로운 영이여 고이 굽어 살피소서."

강평국 묘비 앞에 선 사람들(1981. 11. 제주신문).

이 묘비명을 통해서 강평국, 그는 그의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또한 후배와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느낄 수 있다.

강평국. 그는 시대를 넘고 넘어 자신의 역사를 쓴 사람이 되었다. 한 세기를 뛰어넘은 그의 여성해방 의식은 탁월했다. 제국에 저항하며 목숨 걸었던 항일운동의 전사였으며, 여성의 권리를 향한 여성해방 운동가였다. 그의 시대, 생애를 통한 그의 시선은 온전하지 못한 조국에 꽂혀 있었다.

그는 자유를 꿈꿨으나 조선에 순교하였다. 여성에게 주어진 테두리 속에서 격동기, 주체적 삶이란 멀기만 했던 여성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개인의 꿈보다 조국이 우선 가치였던 삶을 살다 갔다. 그는 그 앞에 밀려왔던 시대의 파도를 넘어 100년을 앞서 살았던 사람, 조국을 잃어버린 시대, 자신을 가로막아선 바다를 건넜고, 닥쳐온 파도에 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바다를 스스로 열었던 사람이다. 여성이 깨어 있어야 조국의 독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던, 확신에 찬 인식이었다. 온 힘을 다해 불평등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깼다. 그러면서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뜨거운 혁명가였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조국이 그의 이름을 불러내기까지 한 세기의 시간, 100년이 걸렸다.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랬을까. 그의 이름은 늘 응시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 강평국 재조명 작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주지역에서 언론을 통해 1980년대부터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등도 들 수 있다.

국가가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서지 못했던 묻힌 여성들에 시선을 준 것 자체도 매우 늦었다. 유독 짧았던 생, 해외유학, 독신의 삶 등으로 인해 공적 기록 발굴이 늦어졌던 점이 훗날 그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2) 강평국의 서훈 운동과 기념

"독립의 불꽃 다시 일어서라", "강평국을 서훈하라".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은 공식적으로 국가보훈처에 강평국 서훈을 신청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3월 1일 관덕정 광장에서 대대적인 강평국의 서훈 운동과 고수선, 최정숙을 함께 재조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신성학원 총동문회, 신성여고 재학생들과 교직원, 천주교 제주교구 등에서 참석, 세 여성 독립운동가와 강평국 선생의 서훈을 촉구하는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태극기 물결 속에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 걷기 역시 주목을 끌었다. 또한 그해 7월 20일 천

신성학원 총동문회와 최정숙기념사업단 주최로 관덕정 광장에서 열린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서훈 운동.

강평국 선생 생가터 제막식.

주교 제주교구 3·1운동 100주년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신성학원 총동문회가 후원한 〈3·1운동과 제주여성〉 주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는 2019년 8월 강평국 선생에 독립운동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후, 강평국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성학원 총동문회 최정숙 기념사업단은 2021년 8월 15일 제주시 일도1동 1390번지 고 강평국 선생의 생가터에 표지석 제막식을 여는 등 후대들에게 선생의 족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강평국의 늦은 부활과 더불어 안타까운 일은 3·1운동 100주년에도 제대로 된 초상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이미 검증을 통해 강평국의 초상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도 오류의 강평국 초상이 인터넷 등에 떠돌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제주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한 시대의 인물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역사의 진실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시대정신을 연결하는 일이다.

마치며

이 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상징적인 열사로 주목받고 이름을 올린 몇몇을 제외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3·1만세시위 등 항일운동에 나섰으나 묻혀 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입증할 연구자료, 고증이 어려

강평국 사후 86년 만에 받은 서훈(2019).

훈장과 훈장증을 받고 강평국 선생 묘비 앞에 선 유족들(좌), 훈장증(우).

운 탓도 있으며, 세월이 흘러 생존 후손들마저 자취를 찾을 길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오랜 시간 정부의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한 홀대를 들 수 있으며 정부의 융통성 없는 서훈 기준 탓도 있다. 또한 독립운동은 당연히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도 작용한다.

여성들의 경우 일시 구금되거나 고문당했어도 판결문 등이 부재했던 경우가 많다. 그러한 흔적들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은반지 찾기 아닌가.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온전하게 자료들이 남아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묻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 작업을 벌여야 한다.[3)]

역사 속에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재조명, 기념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 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앞서간 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의 현재 앞에는 격동기에 나라를 되찾는 데 투신했던 제주 항일 여성들이 있었다. 조국이 부유하던 시대에 태어났기에 개인의 꿈 대신 조국을 품었던 한 시대의 여성들을 지운 채 어떻게 역사를 말하겠는가. 그것이 오늘을 있게 한 불꽃 혼들에 표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래야 정신의 유산이 흘러간다. 독립운동에 생을 불살랐던 제주 여성들이 여성사의 빛나는 지류를 이루고 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3) 2019년 3월 현재 뒤늦게 서훈된 여성 독립유공자는 총 75명.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는 357명에서 432명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여성 독립유공자들의 훈격도 낮으며, 전체 독립유공자 1만5천511명의 2.7%에 불과하다. 작년 말 기준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1~3등급 947명 중 여성은 12명으로 1.26%에 불과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인정 기준에서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학생의 경우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등 징계를 당한 경우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성은 일기, 회고록, 수기 등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내용이 인정되면 서훈하기로 했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독립투쟁을 했어도 인정받지 못해 문서로 기록될 기회가 적었던 것을 참작한 것이다.(《연합뉴스》, 2019. 3. 8.)

3·1운동 속에 빛났던 최정숙

박재형

(제주특별자치도문인협회장)

3·1운동 속에 빛났던
최정숙

프롤로그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에 공적을 많이 남기거나 상을 받아야 하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 혁혁한 공을 세워야 하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나, 아니면 학자나 과학자로 연구실적을 남기거나 후학을 양성하여 청출어람의 제자를 남겨야 하나?

남자건 여자건 세상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을 값있게 살면 1차 산업에 종사하건 전문가가 되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여성 중에서 성공한 삶을 산 이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제주 사람들을 길러낸 모든 여성들이라고 대답하겠다. 밭일로, 물질로, 가사노동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며 철의 여인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낙원 제주를 건설한 제주 여성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데 모

최정숙.

두 동의할 것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들 중에 조선시대에는 김만덕과 홍윤애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에는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을 들 수 있다.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은 신성여학교 출신으로 3·1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교사 생활을 거쳐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의학 공부를 한 선구자들이었다. 이 세 명의 여성들 중에서 선종할 때까지 제주의 여성교육과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었던 최정숙의 업적은 놀랄 만한 것이어서 성공한 삶을 살다 가신 대표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여학교 입학과 3·1운동

최정숙은 1902년 2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초대 법원장을 지낸 아버지 최원순과 어머니 박효원의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1907년 제주 최

초 여학교인 신성여학교에서 당시 학제였던 5년 동안 학교에 다녔다. 1914년 3월 25일,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후, 친구인 고수선과 강평국이 서울로 공부하러 가자 최정숙은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근무처인 함경북도까지 찾아가고 매일 편지를 썼으며 마지막에는 단식으로 유학을 허락받았다.

1915년 10월, 정숙은 마침내 서울에 있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진명여고보)에 편입할 수 있었다. 당시 신성여학교는 5년제로 고등과정을 1년 다닌 셈이었다. 신학기 수업이 시작되어 몇 달이 지나 공립학교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경성여고보)에는 입학이 불가능해서 사립인 진명여고보 중등과정 2학년에 편입하였다. 당시 학제는 초등은 4년, 중등은 3년이었다.

정숙은 수녀님의 주선으로 명동성당 수녀원에서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중도에 입학한 정숙은 진도가 앞선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힘들었는데, '심심금고(深深禁錮)[1]에 갇힌 여성을 위하여 살리라'란 시를 지어놓고 그 시를 읊으며 졸음과 게으름을 이겨내 첫 시험인 기말고사에서 2학년 전체에서 2등을 차지하여 친구들과 선생님을 놀라게 했다.

정숙은 한눈을 팔지 않고 공부한 보람이 있어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고, 친구들은 정숙을 반장으로 뽑아 주었다.

일본 여선생님이 장학금을 주었다는 소문을 들은 일본인 교감이 여

1) '깊고 깊은 법'이라는 뜻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법과 제도에 얽매인 여성들의 한을 가리키는 말.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쫓아낸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립학교였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교감은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정숙네는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적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일본인 교감이 헐레벌떡 교장실로 달려왔다가 정숙과 마주쳤다.

교감은 얼굴이 벌게져서 큰 소리로 퇴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감 선생님, 자식 같은 우리 학생을 퇴학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없었던 일로 칩시다. 공연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고종의 후궁인 엄상궁의 사촌오빠 엄준원 교장 선생님은 한국 학생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말했다.

얼마 후, 이은 황세자가 진명여고보로 행차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정숙은 일본의 야욕으로 볼모로 잡혀가 일본 왕가의 사위가 되어 버린 이은 황세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어 환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은 황세자는 고종의 후궁인 엄상궁이 세운 진명, 숙명,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감격스럽게 했다. 정숙은 학생 대표로 연단에 섰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 왕이 될 수는 없지만 황세자를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을 담은 환영사를 힘주어 읽어나갔다.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교장이 불러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원장 수녀님과 부모님의 반대로 유학을 갈 수 없었다.

3·1 만세운동에 참가하다

정숙은 진명을 졸업한 후 심상소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 당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공립 경성여고보 사범과에 편입시험을 보아 합격했다. 고수선이 여자잠업강습소 1년을 6기로 졸업하고 2학년에 편입하여 다니고 있었다. 강평국은 1학년부터 입학하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 세 친구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었다.

경성여고보에는 본과와 사범과가 있었는데 교사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고, 학생들도 일본인이 많았다. 일본 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이라며 무시하곤 했는데, 사범과에서도 일본인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일본 학생들을 우대하였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하셨다. 명성황후에 이어 일본인에게 독살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22일, 승하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고종 황제의 승하 소식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였고, 경성여고보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교장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하여 반 대표를 대한문에 보내주었다. 그래서 반장을 맡고 있던 정숙은 경복궁 대한문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당시 경성여고보 본과에는 최은희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었다. 최은희는 훗날 여자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공창과 인신매매 폐지, 여성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를 주장한 여성 운동가가 된다.

박희도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의 한 분이며, 기독교중앙감리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다. 박희도 선생은 학생봉기 담당이었고, 최은희를 통해 79명의 비밀결사대를 경성여고보에 조직하였다. 일고(경기고 전신) 학생이었던 제주 출신 유학생 박규훈이 연락책이어서 평소에 동향이라 잘 아는 정숙과 고수선, 강평국에게 연락을 하게 하였다.

고종 황제의 인산날(태상황, 임금, 황태자, 황태손과 그 비들의 장례일)인 3월 3일이 다가오는 그 시기는 사범과 학생들의 교생실습 기간이었지만 아침에 운동장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지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문과 기숙사 문을 잠가버렸다.

이튿날인 3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1시가 넘어 조화를 가르치던 유철경 선생이 눈치를 보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오늘 새벽에 독립선언서가 운동장에 뿌려지는 바람에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거다."

유철경 선생님이 말을 끝내자마자 종로경찰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유재숙이라는 학생이 들어왔다. 얼굴이 샛노랗게 된 유철경 선생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작업도구를 챙겨 급히 교실을 나가고 학생들도 기숙사로 돌아왔다.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종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만세를 불렀다.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만세 소리가 들려오는데 교문이 굳게 잠

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여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교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일본인 수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수선을 비롯한 학생들은 교문을 부수고 교문을 빠져나와 파고다 공원을 향해 달려갔다. 여학생들은 파고다 공원을 향해 걸어가다가 만세를 부르며 달려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정숙은 정오가 가까워오는 시간에 각기병(비타민 B1 결핍으로 생기는 병)으로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전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지만 아픔은 가시지 않았다. 정숙은 기숙사 방에 가서 누웠다가 친구들이 교문을 부수고 나가는 걸 보고 아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운동장으로 내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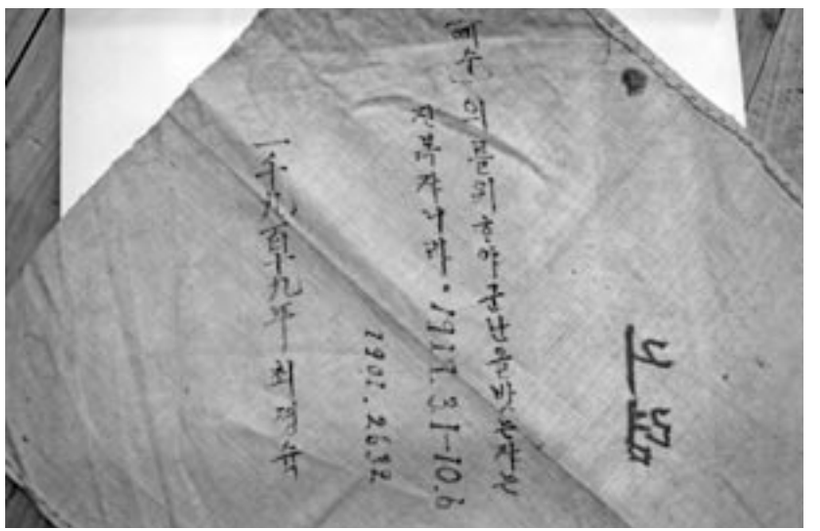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79명의 소녀결사대는 미국영사관 담벼락을 돌아 나오다 뿔뿔이 흩어져 군중 속에 파묻혀 버렸다.

일본 순사는 3월 4일 고종의 인산날에 모인 군중들이 소란스러운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기마병을 동원하여 총을 쏘고, 몽둥이로 구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정숙은 일본 헌병에게 붙잡혔다. 일본 헌병은 정숙의 따귀를 때리고, 구둣발로 종아리를 차더니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정숙이 끌려간 곳은 정무총감부였다. 옷이 찢어지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힘센 일본 헌병의 무력 앞에서도 정숙은 굴하지 않고 맞섰다.

그날 만세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경성여고보뿐이었는데 체포된 학생만 해도 서른두 명이나 되었다. 만세사건으로 학생들이 총감부에 갇히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대표인 사범과 학생 정숙과 본과 최은희만 남기고 나머지 학생들은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정숙과 최은희만 남고 다른 학생들은 그날로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정숙은 5일 동안이나 고문에 시달렸다. 일본 순사는 정숙을 괴롭히며 주동자를 대라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만세를 부르러 나갔느냐며 괴롭혔다.



최정숙은 1919년경 손수건에 직접 글을 남겼다.

서대문 형무소로

정숙은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져 2632번이란 죄수번호를 가슴에 달고 1901호 감방에 갇히고 말았다. 최은희 역시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와 정숙을 만났다.

서대문 형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잡혀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곳이어서 정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들려오는 매질 소리와 욕지거리, 신음 소리로 정숙은 고통스러웠다.

정숙은 하얀 광목에다 '태극'과 '귀렴'이란 글자를 색실로 수를 놓고 그 바탕에 의(義)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의기(義氣)라는 글을 써놓고 매일 그 글을 들여다보며 고통을 참았다.

그런데 15일이 지난 3월 20일, 간수가 정숙이 갇힌 감방 문을 열었다.

일본 형무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들어서는 정숙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최정숙, 사범학교 학생이라고? 오늘이 20일이니까 25일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장을 받아. 그리고 일본 천황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란 말이야."

형무소장은 인심이나 쓰듯이 말하며 정숙을 형무소에서 내보내주었다.

학교로 돌아온 정숙은 평국에게 일본 국가를 부르며 졸업장을 받는

서대문 형무소 수형기간 동안 최정숙이 수를 놓은 녹죽열녀정 창송군자절.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은 없다며 졸업장을 받지 말자고 말해 동의를 얻는다. 정숙과 평국은 손을 굳게 잡고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튿날,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다.

고향으로 내려온 정숙은 자리에 눕고 말았다. 형무소에 있는 동안 시달리고 굶주림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얼마 후, 우체부(집배원)가 졸업장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왔다. 졸업식에 참가하지 않은 정숙과 평국을 위해 담임 선생님이 보내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일본 순사가 찾아왔다. 순사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경성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정숙은 주모자로 잡혀 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말았다.

정숙은 독방에 갇혔다. 고문과 취조는 이미 경험한 것이라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그래서 평국에게 부탁하여 들여온 수틀과 수실, 헝겊으로 수를 놓았다. 소나무·대나무·학 등을 수놓은 후 '녹죽열녀정(綠竹

烈女情)' 그리고 그 대구(對句)로는 '창송군자절(蒼松君子節)'이라 써 넣었다. 즉 '푸른 대나무는 열녀의 마음씨이다.', '푸른 소나무는 군자의 절개이다.'라는 뜻이다.

정숙이 형무소에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느 감방에선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가 도화선이 되어 형무소 안이 온통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가득 차고 말았다. 사람들은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독립의 소망을 분수처럼 뿜어 올렸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형무소 안을 채우고 좁은 창문을 빠져나와 서울시내로 퍼져나갔다.

그 이튿날, 맨 처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이 유관순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유관순은 이 사건 때문에 형량이 추가돼 7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

일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을 수감하기 위해 1916년에 여성옥사를 새로 지었다. 이곳 지하에는 독방을 설치해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애국지사들을 수용하여 고문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지하 감옥의 면적은 190㎡이며, 사방 1m도 안 되는 독감방 4개가 있다. 특히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신 곳으로 일명 '유관순 굴'이라고 한다. 1920년 10월 12일, 유관순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차가운 지하 감방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정숙이 형무소에 들어간 지 8개월이 되는 1919년 10월에 간수가 편지를 건네주었다. 진명여고보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왔다. 그런데 정숙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오랜 수형생활로 몸이 수척해진 데다가 고문으로 걸린 복막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복막이 협착되고

말았는데, 복막협착은 평생 멍에가 되어 정숙을 괴롭혔다.

정숙은 그길로 제주로 내려왔다.

어머니는 야윈 정숙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고 건강이 조금 나아질 무렵 정숙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11월 6일, 정숙은 다시 서울로 끌려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학생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미 8개월 동안 형무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정숙은 석방이 되었다.

여수원과 명신학교

정숙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 두 차례의 형무소 생활과 고문, 재판에 끌려 다니느라 정숙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다.

정숙은 1920년에 여자장학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장학회를 기반으로 하여 1922년에 여수원의 문을 열었다. 신성여학교 동창들과 힘을 모아 야학을 열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도, 조천, 대정소학교 교사를 거쳐 제주소학교(현 제주북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강평국과 함께 여수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정숙의 성격이 온순하고 온화한 반면 평국은 남자처럼 날카롭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성격이 달랐지만 제주 여성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여수원에 공부하러 나오라고 하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

모의 반대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갈 수 없다고 변명을 하면서 울상을 지었다.

정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시절 집까지 찾아왔던 서양 신부님을 떠올렸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신부님들은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딸이 있는 집을 찾아가 사정을 했던 것이다. 또한 천사처럼 공부를 가르쳐 주시던 수녀님들을 생각하면서 정숙은 힘을 내어 열심히 여자아이들을 모으러 다녔다. 보수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수원에 매달렸던 정숙에게 사생활이란 아예 없었다. 그런데다가 '불령선인'으로 분류된 정숙의 주위에는 순사의 감시가 늘 따라 붙어 정숙은 자유가 없었다.

정숙이 악착같이 여수원을 운영하려는 데에는 신성여학교의 폐교도 그 원인 중의 하나였다. 1916년 7월 25일 제3회 졸업생을 끝으로 신성여학교는 문을 닫았다. 프랑스인 구마슬(Lacrouts) 신부가 전주 전동성당으로 전근되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관헌들의 횡포와 탄압으로 7년 9개월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신성여학교의 건물을 몰수해 버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당시 재학생은 70명이었고, 졸업생은 1회 6명, 2회 6명, 3회 16명이었다. 김 아나타시아 수녀와 이 곤자가 수녀는 서울 본원으로 돌아갔다. 이후 학교 건물은 일제 당국에 강점되어 일본인 사찰 본원사(本院寺)의 유골 안치소로 바뀌고 말았다.

정숙은 뜻이 맞는 청년들과 의논을 한 끝에 여수원의 문을 닫고 명신학교[2]를 열었다. 명신학교에서는 강평국과 송택훈, 박교훈, 한상호, 김

2) 현재 제주은행 본점 앞 주차장 자리(포교당)에 있었음.

택수, 김명식 등이 같이 공부를 가르쳤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이들은 상당수가 제주도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다. 명신학교에서는 낮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밤에는 성인반과 학령초과자 등 200여 명이 모여 공부를 했다. 몰려드는 학생들을 보며 정숙의 가슴은 뛰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일에 매달렸던 정숙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병이 너무 중하여 도립병원 의사는 서울로 가기를 권했다.

정숙은 치료를 받기 위해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몸을 추스르지 못하면 영영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하는 수 없이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정숙이 병과 씨름을 하고 있던 1924년, 일제의 부당한 간섭으로 명신학교는 제주관립보통학교(현 제주북초등학교)에 흡수 통합되어 버렸다.

정숙은 병원에 누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열두 살에 천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느라 수녀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병만 나으면 내가 수녀원에 들어가야겠다.'

정숙은 굳게 결심을 하고 문병 온 수녀님께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수녀원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며칠 후, 원장수녀님으로부터 온 소식은 정숙을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사상범으로 형무소에 다녀온 사람은 수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숙은 수도자의 길로 들어서고 싶은 마음을 접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수녀의 꿈을 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정숙은 비록 수도자의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수녀처럼 살았다.

1925년 4월, 정숙은 오랜 입원 치료를 통해 병마를 털고 일어났다. 다시 아플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지만 제주로 내려온 정숙은 강평국, 김시숙, 이재량 등과 함께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여성운동을 펼쳤다. 회장은 경성의전을 나온 의사와 결혼하여 제주로 내려온 고수선이 맡았다.

그때, 정숙이 제주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안 목포 소화학교 원장 신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신부님은 목포로 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

정숙은 고민 끝에 목포로 가기로 하였다. 경성여고보 사범과를 졸업하여 소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어린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었다.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사상범이어서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소화학교에 가는 것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다.

정숙은 여자청년회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목포로 건너갔다. 정숙이 도착하자 신부님이 목포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목포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전주에서 김양홍 신부가 찾아왔다. 김양홍 신부는 1916년 2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구신부가 프랑스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해 3월 5일 제주에 부임했던 적이 있어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전동성당에서. 맨 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최정숙.

"베아트리스(최정숙의 세례명) 선생, 열정적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젠 전주로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최 선생이 꼭 필요합니다."

신부님은 정숙에게 할 일이 많다면서 부탁을 했다.

전주는 윤지충과 권상연이 조상의 위패를 불살랐다가 순교를 당한 곳으로 1914년에 준공된 서양식 근대건축물인 전동성당이 있어 수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정숙으로서는 한번 머물고 싶은 곳이었다.

정숙은 섭섭해하는 소화학교 신부님과 교사들, 어린이들을 뒤로하고

전주 해성학교로 옮겼다. 해성학교에서도 소화학교에서처럼 정숙은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정숙은 가지고 있는 '소년문고' 책을 모두 어린이들을 위해 기증했다. 출판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때라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책은 아주 극소수였다. 해성학교로 간 얼마 후, 예술제가 열리게 되었다. 정숙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라는 노래를 가르쳤다. 정숙은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민족혼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예술제가 끝나고 무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순사가 찾아와 정숙을 찾았다. 놀라는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정숙은 당당하게 경찰서로 향했다. 비록 수갑은 찼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다시 옥에 갇힐지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학생 시절. 앞에서 오른쪽 두 번째가 최정숙.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서대문 형무소에도 갔다 온 몸인데 어딘들 못 가랴?' 하는 마음으로 따라나섰다.

정숙은 그길로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며칠 후, 정숙의 건강을 염려한 신부님과 주위의 도움으로 다행히 풀려나왔다.

1925년 8월 11일에 구마슬 신부가 선종하였다. 전주로 건너가 열정적으로 선교를 위해 노력하던 중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셨다. 구마슬 신부는 제주교안을 겪으면서도 제주본당(현 제주중앙성당)의 터전을 닦는 데 열정을 다 바쳤으며, 신성학교의 설립을 통해 여성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제주도의 문화발달에 큰 공헌을 한 분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친구 강평국이 폐렴이 악화되어 고향 제주로 내려와 선종했다.

평국이 죽은 후, 1937년 3월 정숙은 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의전)에 다니기 위해 전주 해성학교 교사 생활을 마감했다. 정숙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1943년 마침내 졸업을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 고등학교 학제가 3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어 정숙은 고등학교 학력 미달로 졸업이 보류되고, 의사면허가 나오지 않았다. 5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졸업을 앞두고 내려진 조치는 정숙을 실망시켰다. 너무 억울해서 사정을 해 봤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는 더 우길 수도 없어 가슴만 태웠다. 다행히 의사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받아주어 졸업장도, 의사면허도 없는 의사가 되었다.

정숙의 딱한 사정을 알고 신봉조 이화여고 교장으로부터 1년만 학교에 다니면 4년제 졸업장을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정숙은 이화여고생이 되었다. 성모병원 내과 의사, 위생감, 학생, 1인 3역의 역

할을 해야만 했다. 42세에 두 번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의전 1회·2회 졸업생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졸업 후, 이화여고 4년 졸업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마침내 의사면허를 받은 정숙은 정식으로 의사가 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정숙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준 성모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리라 다짐을 했다.

제주로 내려오다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라 일본은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빨리 제주로 내려오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정숙은 제주해협을 건너 한라산을 마주하게 되었다.

1944년 10월, 정숙은 병문골(현 삼도2동 주민센터 앞동네)에 '정화의원'을 열었다. 중앙성당이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는데 정숙이 병원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와도 정숙은 싫은 기색 없이 친절하게 치료를 해주곤 했다.

1944년이 되자 일제는 제주읍 정드르(현 제주국제공항 터)와 신촌 진드르에도 군용비행장을 만들었으며, 해안과 오름에 120여 개의 동굴을 팠다. 제주 사람들은 물론 전라도 사람, 광부들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다. 일본군은 미군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지로 제주도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공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파다 죽거나 다쳤지만 일본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다.

일본군은 1945년 4월 오키나와가 미군에게 점령되자 제주도에서 최후결전 계획을 짜놓고 미군이 상륙을 하면 최후의 항전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에 58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본 정규군 96사단, 108여단과 만주 관동군의 111, 121사단 등 7만 5,000명의 병력을 제주도에 집결시켰다.

일본군 대장은 정숙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일본 관동군 제주 주둔병력 육군 야전병원 군의관'이란 감투를 씌우고 일본군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정숙은 바쁜 중에도 야전병원으로 왕진을 다녔다.

그런데 정숙이 한복을 입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한국인 노무자 부상병들이 정화의원으로 몰려들었다. 야전 병원에서는 이들을 차별하여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숙을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강제로 징용된 사람들로 가진 게 없었다. 그들은 치료와 함께 먹을 것을 원했다.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아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노무자들은 치료를 받는다는 구실로 병원까지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정숙은 난처했다. 한국인 노무자 환자들이 매일 30~40명씩 몰려들어, 치료를 하고 음식을 주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었다. 여유가 있는 일반 환자들을 치료해야 그나마 자금이 있을 텐데, 군인들을 치료하느라 병원을 자주 비우니 환자들이 오지 않았다. 그런 데다가 가끔씩 찾아오는 일반 환자들도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군 환자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약과 식량을 축냈다. 일본군에 끌려가 고생하는 것

도 서러운데 병고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군인 환자를 외면하기에는 정숙의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피골이 상접한 이들에게 계란이나 과일 등을 사주고 나면 주머니는 늘 빈털터리였다. 정숙은 힘에 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로 힘을 얻곤 했다.

정숙은 다시 비어있는 향사청에 명신학교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명신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을 모아 중등과정의 공부를 시켰다.

어느 날, 단파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이가 찾아와 해방이 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이 눈앞에 다가오다니, 정숙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다. 정숙은 궤(반닫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깊이 감추어두었던 태극기를 꺼냈다.

정숙과 젊은이는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를 생각을 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선생님, 태극기를 빌려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게요."

"그렇게 하세요. 태극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정숙은 망설이지 않고 태극기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벽장을 뜯어 감추어 두었던《우리말본》과《조선어학회 월보》를 꺼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집필한《우리말본》을 가지고 있다가 일제에 들키면 감옥으로 직행하던 시대라 정숙은 벽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항복을 했고,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무덤 속 같이 조용했다. 6만여 명의 일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 함부로 만세를 부를 형편이 아니었다. 해방이 되었지만 일본 군인들이 두려워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었다.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 것은 9월 하순이었다. 미군이 들어와서야 일본 경찰이 무서워 숨을 죽였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복의 기쁨을 축하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정숙이가 사람들에게 빌려준 태극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영효가 선물로 준 태극기를 분실하여 정숙은 아쉬움이 컸다.

해방이 되자 일본군 노무자로 온 조선인들이 다시 정화의원으로 몰려들었다.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어 정숙에게 손을 벌리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정숙은 주머니를 털어 여비를 손에 쥐여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제주에는 일본 군인 5만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해방이 되자 한국 병사와 노무자 1만 7천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성여학교 교장이 되다

해방이 되자 정숙은 더욱 열심히 명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명신학교에서는 매일 밤 글을

읽는 소리가 남폿불 빛을 따라 퍼져나갔다. 교사, 급사, 조무원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앞장섰다.

"빨리 신성여학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명신학교에서는 수준 높은 공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서울과 같이 반듯한 여학교가 들어서야 합니다."

정숙은 지역 인사들이나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학교의 설립을 호소하곤 했다. 명신여학교 졸업생들이 국민학교 교사 양성소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보람을 안겨 주기도 했다.

신성여자중학원 학생들. 맨 앞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가 최정숙(1948. 5. 16.).

친구들과 함께 강연회, 요리강습회 등을 다니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계몽, 생활개선에 힘썼다. 조상대대로 영위해온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을 버리고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

1946년 2월 10일, 제주고등여학교가 일도리에 4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제주고등여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정숙은 신성여학교를 재건해야겠다는 꿈에 박차를 가하였다. 결심이 서자 정숙은 곧 천주교 신자들과 지방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신성의 부활을 역설하고 도움을 청했다.

정숙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문을 닫은 지 29년 만인 1946년 9월에 신성여자중학원이 문을 열게 되었다. 수이니(Sweeney) 신부의 도움으로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중앙천주교회 사제관 옆에 교실을 지어[3] 야간 1학급으로 발족하고, 명신학교 학생들을 신성여자중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성여자중학원은 3회까지 학생들을 입학시켜 야간에 운영하다가 신성여자초급중학교로 인가되면서 주간학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야간으로 다니던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초급중학교 3학년, 2학년으로 편입하여 주간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학교가 문을 열자 학원장은 수이니 신부가 맡고, 정숙은 교사가 되어 한자를 가르쳤다.

1949년 8월 3일, 마침내 신성여자초급중학교는 6학급 설립 인가를

3) 지금의 천주교제주교구청과 제주중앙성당 자리.

1949년 신성여자중학교 입학식.

받았고, 이사장은 브레난(Brennan) 신부가 맡았다. 학교의 설립에는 수이니 신부, 라이언(Ryan) 신부, 사베지(Savege) 신부가 광주 가톨릭 재단을 드나들며 애를 쓴 공이 컸다.

수이니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성여자중학교를 정숙이 맡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권하여 정숙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교장 임명을 승낙했다. 신성여학교 졸업생이 초대 교장이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

학교가 지리를 잡기 시작하자 정숙은 일제에 빼앗긴 신성여학교 터와 재산을 찾기 위해 미군정청을 방문하여 탄원을 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숙은 포기하지 않고 간곡하게 미군청정 직원들

을 설득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1947년 10월이 되자 신성유치원도 향사청 건물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 창가학회에서 사용하던 향사청은 연고권이 있는 신성학원의 소유가 되었다가 정부재산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사들여 신성유치원을 운영하였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실천한 삶

정숙은 교장이지만 개업을 한 의사였기에 무보수로 교장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데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가 학교에 있으니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기껏해야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가난한 이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에게서 치료비를 넉넉히 받을 수 없었다. 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치료비를 내라고 말할 수 없었기에 정숙은 그냥 돌려보내는 날이 많았다. 동네 사람들이나 신자 가정의 환자들도 정숙은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다. 그래서 늘 생활비가 쪼들렸다.

정숙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모르는 환자들은 큰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 돈이 많은 환자들은 도립병원이나 다른 개인병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 신자들이 정화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도 가난한 학생 두 명을 수양딸 삼아 데리고 살면서 밤에는 학교에서 공

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정숙은 교훈을 학생들에게만 강요한 건 아니었다. 비록 수도자는 아닐지라도 늘 천주님을 모시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삶을 살면서 천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학생들 눈에는 교장 선생님이 성모님이나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숙은 학교의 부흥을 위해 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대교구장 현 하롤드(Harold) 주교님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하롤드 주교님은 열성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정숙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숙이 특별교실을 지어달라고 주교님까지 찾아가 사정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부 신자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다. 현 하롤드 주교님은 정숙의 열정에 감복해서 교실을 짓고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제주도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생기고, 피난민들이 몰려왔다. 제주북교에는 피난민 초등학교가, 오현중고등학교에는 피난민 중고등학교가 생겨 천막 속에서 공부를 하였다. 피난민들이 정화의원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정화의원 소문은 피난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1951년 3월, 교육법 개정으로 학제가 6-3-3-4제로 바뀌면서 1951년 8월 31일자로 제주여자고등학교가 6개 학급 설립 인가를 받고, 9월 25일 정식으로 개교하여 입학식을 가지게 되었다.

정숙은 제주여자고등학교의 개교를 보며 다시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가난한 천주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어서 쉽사리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틈만 나면 현 하롤드 주교님께 간청을 하고, 기도를 했다.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숙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 무렵인 1953년에 신성여자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대신학교(천주교 사제 양성기관)와 수녀원에 대한 정숙의 헌신적인 봉사는 현하롤드 주교를 감동시켰고, 학교재단의 파격적인 투자가 결정되어 그해 11월 21일 신성여자고등학교 설립(3학급) 인가를 받은 것이다.

어느 날 정숙은 공부를 잘하는 한 여학생이 교문 앞까지 와서 머뭇거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 시절.

리는 걸 보았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정숙은 머뭇거리는 여학생을 억지로 교실로 떠밀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내주었다.

그리고 정화의원에 데려다 치료를 해준 학생들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약장은 자주 비었고, 간호원은 약이나 주사약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약을 살 돈이 없어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어머니는 곧 눈치를 채곤 해결해주셨다.

학교일이 바빠지자 정화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씩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오면 기꺼이 치료를 해주곤 했지만 본격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었다.

정숙은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다. 다행히 교구청의 도움으로 석재로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교실난을 해결할 수 있었고,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가사실습실을 마련하여 좋아하기도 했다. 여학생들이 재봉틀을 돌리거나 요리를 만들 때면 정숙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천주님께 영광을

1955년 4월, 정숙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신성학교의 설립자인 현 하롤드 주교가 광주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최 교장 선생님, 제주에 갑니다. 만납시다."

주교님은 로마 교황 훈장을 받게 되었다며 축하해 주었다. 로마 교황 훈장이라면 가톨릭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네 번째로 받는 상인데, 교육, 사회, 의료사업 부문의 공로훈장이었다.

정숙은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58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지사장에 뽑혔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적십자정신은 같은 것으로 여기고 부녀봉사대원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뽑아준 것이었다. 그 외에도 정숙은 UN 가입 제주도추진부위원장, 교육회 이사, 중등교육회장 등으로 활동을 하였다.

1959년에는 신성여자중학교가 9학급으로 증설되었으며, 1960년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가 6학급 인가를 거쳐 12월에는 9학급으로 인가를 받았다.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늘어나자 정숙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교정이 너무 비좁아 교실을 지을 터가 필요했다.

마침 울타리를 이웃하고 있던 제주남국민학교가 옮겨가게 되어 정숙은 미안함도 잊고 현 주교님을 찾아가 사정했다.

정숙의 정성은 헛되지 않아 현 주교님의 배려로 제주남국민학교 부지와 이웃하고 있는 집을 몇 채 사들여 신성여중고의 교정을 넓힐 수 있었다. 땅을 구입하고 교실을 새로 짓는 큰돈은 골롬반회 신부님들이 독일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1962년, 정년을 맞이했다. 정숙의 퇴임을 안타까워하는 김영관 도지사가 학교로 찾아와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군사혁명에 성공하여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교원 정년을 60세로 낮추어 버려 5년이나 일찍 퇴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을 늦출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남들과 같이 퇴직을 하겠다고 우겼다.

정숙이 레몬드 고두희 수녀에게 교장 자리를 물려주고 학교를 떠나는 날, 학교에서는 성대한 정년퇴임 기념식을 치러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식장에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제주도내 기관장들과 지인들이 참석해 주었고, 입구에는 군인 의장대가 사열을 하여 정숙을 맞이했다.

1964년이 되자 시·도를 단위로 하는 교육자치제가 시작되었다. 제주에서도 제주도교육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도민과 언론의 관심이 교육감

제주도교육감 시절 신양분교장 방문.

선출에 모아졌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1대 교육감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자주 소개되곤 했는데, 정숙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1월 5일,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제주신문에는 〈열을 꼽는 물망자〉, 〈관심은 온통 오늘 교육감 선출에〉라는 머리기사로 교육감 선거 분위기를 띄웠다.

당시 교육감을 꿈꾸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 한 분과 교육대학 학장님이었는데, 선거의 열기가 과열되어 교육위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래서 도지사를 포함한 교육위원 7명이 모여 누구를 뽑을 것인가 갑론을박하다가 한 분이 "공정하고 중도의 입장에서 제주교육을 이끌어 갈 최정숙 교장을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교육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숙을 교육감으로 밀자는 데 찬성했다.

정숙이 교육감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큰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남녀차별이 존재했고, 모든 직장의 최고책임자는 남자들이 독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자인 정숙이 교육감으로 선출된 것이다. 정숙의 교육감 당선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제주 사람들도 신성여학교에서 보여준 정숙의 실력과 성실함, 교육자로서의 품위,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온 마음, 그리고 늘 청빈하면서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고, 정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축하를 해주었다.

얼마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남문통(현 KAL제주사옥 자리)에 제주도교육위원회 건물이 들어섰다. 정숙은 여학교 설립에 앞

장섰고, 바른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

정숙은 교육청 예산으로 풍금을 마련하기에는 힘이 부쳐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풍금이 없어 음악교육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숙의 말을 들은 재일교포 중에 표선면 가시리가 고향인 안재호 사장으로부터 제주도의 모든 학교에 풍금 1대씩을 기증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안재호가 보내준 풍금은 어린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정숙의 열정은 헛되지 않아 대정여자중·고등학교가 분리되고, 한림여자중·고등학교 설립하게 되었고, 1964년에 문을 열었다. 또한 제주시

5·16 민족상 수상 환영(제주비행장). 왼쪽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최정숙.

내에 사립여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립인 제주중앙여자중학교와 제주여자실업고등학교(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세웠다. 제주여실고를 설립할 때는 강원도에 배정된 여학교를 제주로 유치하기도 하였다.

얼마 후, 정숙이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축하합니다. 이번 5·16민족상 교육 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생님이 결정되었습니다."

전화로 수상 소식을 알려온 정부관리가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에 정숙은 쑥스럽기만 했다.

당시 5·16 민족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었다. 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오현고 밴드부의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제주공항에는 제주도내 많은 관리들과 지인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식 지사와 문종철 제주대학장, 한국부인회장, 각급 교육계 인사와 학생들이 마중을 나가 정숙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다.

제주공항 청사 밖으로 나오자 가두행진을 위한 지프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정숙을 앞세운 지프차들이 용담로, 서문로를 거쳐 중앙로로 접어들자 많은 시민들이 열렬히 손을 흔들며 축하를 해주었다. 자랑스러운 제주의 여인 최정숙, 교육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5·16민족상을 받았으니 그 영광은 도민의 것이었다.

시민회관에 도착하자 축하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식에 이어 축하 음악회가 열렸다. 식장에 온 인사들과 학생들은 정숙의 수상이 마치 자기 일이라는 듯이 축하를 해주고, 즐거워했다. 환영식이 끝나고 음

악회가 펼쳐졌다.

정숙은 5·16민족상을 수상하고 나서 받은 상금 중 1백만 원으로 정화의원에서 생긴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 1백만 원은 정화장학회를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천주님 곁으로

정숙은 65세가 되자 교육감 직에서 벗어났다. 도교육청 강당에서 치러진 이·취임식에서 정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자로서 중책을 맡아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교육가족에게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특히 100여 학급에 달하는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 제일 미안합니다. 부탁이 있다면 교육자는 더욱 정신 무장을 해서 양심적이고 참다운 교육자적인 자세로 생활해주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 수도자의 정신으로 여생을 조용히 보내면서 넉넉지 못한 기금이나마 불우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육영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정숙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힘을 이웃을 위해 바치리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신성여고 합창단이 정숙을 위해 고운 목소리로 〈스승의 은혜〉를 불러주었다.

그런데 정숙이 거처할 집이 없었다. 평소 돈을 쓰기만 했지 벌어놓은 게 없으니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교육감에서 물러나기 며칠 전 교구청 신부님이 정숙에게 물었다.

"교육감님, 거처할 곳이 있습니까?"

"아 예, 전셋집이라도 빌려서."

"그러지 말고 신성여학교 관사에서 사십시오. 고두희 교장은 수녀원에 사니까 관사를 비워두었으니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집 걱정은 덜었네요. 실은 참 난처했었습니다."

"참 의사 선생님에다 교장 선생님, 교육감까지 지낸 어른이 집 한 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나야 천주님 빽이 있지 않습니까?"

최정숙 선생 영결식 미사 장면.

정숙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해서 신부님은 박장대소를 했다.

"교육감님은 수도자 이상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숙의 말에 신부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집 한 채, 밭 하나 마련하지 않은 정숙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부자였다.

정숙은 76세가 된 1977년 2월 22일 아침 9시, 심장마비로 숨을 멈추었다. 감기로 며칠 앓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은 곧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떠나 천주님 곁으로 갔다.

정숙의 타계는 제주도에 크나큰 슬픔을 가져왔다. 평생을 독립운동, 문맹퇴치, 신성여학교의 설립 및 제주도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어른을 잃은 슬픔으로 정숙을 아는 사람이건 이름만 아는 사람이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정숙의 귀천을 알리며 아쉬워하였다.

정숙의 수의는 프란치스코 3회의 복장인 갈색 수도복이었다. 수녀가 되어 입고 싶었던 옷을 죽어서야 영원히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복을 입고 누운 정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넘쳐났다.

영결식은 신성교정에서 제주도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직원들이 나와 영결식을 마련했다. 사제와 수녀, 신자들과 제주도내 인사들과 흰옷을 입은 신성여학교 졸업생,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로 영결식장이 가득 찼다. 영결식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과 제자들은 정숙과 헤어지는 슬픔을 눈물 속에 담아내고 있었다. 영결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숙의 삶을 칭송하고 저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빌었다.

영결미사가 끝나고 천주교 공동묘지인 황사평까지 꽃으로 단장한 상여를 타고 정숙은 떠나갔다.

1993년 정숙은 애국지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에필로그

최정숙은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간 의사이며, 교육자, 수도자, 자선가의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여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으며, 늦은 나이에도 의학전문학교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었다.

또한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자주 고해성사실 앞에 줄지어선 최정숙을 보며 신성 여학생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고해성사를 보실 게 있을까.' 하고 소곤거렸다고 한다.

평생 의사로 교장 선생님으로 사셨으며 늘 제주 여성의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에 매진하셨다. 여수원, 명신학교, 소화학교, 해성학교, 신성여학원, 신성여중, 신성여고, 제주도교육감 등 교육자로 살아오신 선생님의 업적은 제주교육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한 사람의 환자를 살리는 일보다 수많은 제자의 미래를 열어준 선생님의 업적을 얼마나 나열해야 할까?

또한 남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셨다. 교장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환자를 돌보아 얻은 수익을 아낌없이 남에게 내주었으니 그보다 더 공

이 많은 천주교 수도자가 있을까? 평생 동정녀로 살아오시고, 제주도에 레지오마리에, 재속프란치스코회 등의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온 업적 또한 매우 지대한 것이다.

어머니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면 최정숙은 제주 여성을 위해 일생을 희생봉사로 살아오신 분이시니 최정숙 교육감은 제주의 어머니시다.

〈최정숙 약력〉

1902년 2월 10일	제주시 삼도리에서 출생
1909년 10월 18일	신성여학교 입학
1914년 3월 25일	신성여학교 1회 졸업
1915년 10월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학교 편입
1918년 3월 22일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1917년 4월 1일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입학
1919년 3월 1일	3·1만세 운동 참가, 투옥
1919년 3월 25일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
1919년 11월 6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925년 4월 15일	목포 소화학원 교사
1932년 4월 1일	전주 해성학교 교사
1939년 4월 1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입학
1943년 9월 30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졸업(1회)
1943년 11월 1일	경성 성모병원 의사, 이화여자고등학교 편입
1944년 3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졸업(2회)
1944년 10월 5일	정화의원 개원
1946년 10월 18일	신성여자중학교 교사
1949년 9월 1일	신성여자중학교 교장
1953년 11월 25일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중·고 겸임)
1954년 4월 10일	로마 교황 훈장 수훈
1956년 9월 10일	UN 가입 제주도추진위원회 부위원장
1958년 10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

1960년 6월 27일 제주도교육회 이사
1960년 7월 6일 제주도 중등교육회 회장
1960년 9월 1일 대한교련공제조합 제주 2지부장
1961년 11월 7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제주도본부 지도위원회 부위원장
1962년 4월 28일 국민운동 제주도지부 도위원회 부의장
1963년 5월 1일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 지부장
1962년 8월 15일 문화포상(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1964년 2월 4일 초대 제주도교육감 선출
1967년 5월 16일 5·16민족상(교육 부문 본상) 수상
1977년 2월 22일 천주의 품으로 돌아감
1993년 애국지사로 선정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주역, 부춘화·김옥련·부덕량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주역, 부춘화·김옥련·부덕량

개항과 제주 해녀의 출가

1876년 개항 이후 선진 어업기술을 갖춘 일본 어민들의 제주도 어장 침탈에 따라 해녀들의 채취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이들은 타 지역으로 출가(出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개항 이후 자본주의화의 영향으로 제주 해녀들의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경남 지역에 주로 진출한 일본 해조업자들은 일본인 해녀에 비해서 작업 능력이 뛰어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주 해녀들을 대거 내륙지방으로 끌어들여 고용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남해안에는 해조류 산지가 산재했는데, 그 지역 어장의 어민들이 해조류를 채취하지 않아서 해녀들의 자유로운 어장 이용이 가능했다.

특히 경상남도 기장과 울산은 그 당시 경제적 가치가 큰 우뭇가사리

일본 해녀(아마).

제주 해녀.

와 미역 어장이었다. 1892년경부터 매년 1, 2월경이 되면 일본인 상인들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은 객주들이 제주 해녀를 모집하여 기장과 울산 어장으로 이동시켰다. 일본인 학자 마쓰다 이찌지(桝田一二)는 제주 해녀가 "이세(伊勢) 및 일본 해녀에 비해서 노동 임금이 저렴하고, 비교적 능률이 높고 추위에 강해서 출가 해녀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라고 기록했다.

제주 출가 해녀들의 채취물은 1900년경부터 일본 무역상들의 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환금성이 강한 상품으로 여겨졌다. 결국 출가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상품가치가 높아져서 해녀의 소득이 증가했다. 우뭇가사리는 일본에서 가공업이 발달하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

복이나 미역보다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해조류가 되었다. 제주 해녀들이 경남 지역으로 많이 진출한 이유였다. 1916년 우뭇가사리 가격은 미역의 66배였으며, 1930년대에는 1,033배까지 폭등했다. 우뭇가사리(石花菜, 天草, 寒天)는 식품용(양갱, 잼이나 젤리, 크림, 아이스크림), 공업용(호료용 : 견직물의 풀, 의류의 마감용), 도료용(천, 종이, 고무 등의 방수용), 양조용, 인쇄용, 의약용(배독용, 완하제, 고약, 혈액응고저지제), 화장품용, 학술연구용(세균배양용)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되었다. 또한 출가 해녀들이 주로 채취했던 감태는 태운 재(搗布灰)를 원료로 삼아 화약, 요오드(소독약)를 만들었다.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1887년 경남 부산의 목도(牧島, 지금의 영도)로 간 것이 시초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

우뭇가사리(국립수산과학원).

부 지역, 일본, 다롄(大連), 칭다오(青島),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넓어져 갔다. 출가 해녀 수는 1910년대에 2,500여 명이던 것이 1930년대로 들어오면 4,000여 명에 달했다. 1930년대 후반에 나온 자료를 통해 당시 해녀들의 출가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가 해녀의 진출지와 수효

1937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408	19	1,650	473	110	54	32	5	50	2,801
	일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靜岡	千葉	愛媛	德島	합계
		750	130	55	215	65	265	51	10	50	1,601
1939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367	7	1,581	308	141	60	106	–	14	2,584
	일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靜岡	千葉	愛媛	德島	합계
		686	95	18	144	54	365	67	35	28	1,548

濟州島廳,《濟州島勢要覽》, 1937; 1939 참조.

1929년경 출가 인원은 3,500여 명이고 어획고가 50만여 원인 데 대하여, 제주도내 작업 인원은 7,300여 명이고 어획고는 25만여 원이었다. 해녀들은 매년 4월경에 출가하여 9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해녀가 많이 분포한 구좌면·성산면의 경우 해녀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될 정도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해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출가 어로에 나서려고 했다. 해녀 출가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2년에 제주도 해녀조합원의 총수가 8,862명이었는데, 그중 57%인 5,078명(일본 1,600명, 한반도 3,478명)이 출가했다. 이와 같이 제주 해녀의 출가 노동은 일제강점기에 일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출가 해녀의 진출 지역.

제주 해녀들의 국내 출가 실태에 대해서는《매일신보》1916년 7월 28일 기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주 해녀들이 국내 각처로 나간 것은 지금부터 이삼십 년 전(1880~189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경상남도 울산·기장 두 해안에 제한되었으나 지금은 전라남도의 모든 섬, 경상남도 거제도·부산·울산·기장, 경상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도 연해 각처까지 진출했다."라고 기록했다. 19세기 말부터 부산 영도가 경남·강원·함경도 지역으로 출가하는 제주 해녀들의 1차 기착지였다면, 1930년대부터 어항으로 발전한 경북 울진군 죽변은 동해안을 따라 출가 물질을 나갈 때 중간기착지였다.

제주 해녀들의 출가 방식은 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과 독립 출가 형식이 있었다. 경남·강원·함경도 지역으로 출가하는 해녀들은 대개 동력선이나 기선 편으로 부산 영도에 기착한 다음에 출가 대상지로 떠났고, 전라도 지역으로 출가하는 해녀들은 범선을 타고 갔다. 해녀의 일을 돕는 뱃사공이나 감독자 역을 맡은 남성들은 따로 어선을 타고 다른 지방에 도항했다. 국내 출가 시 이용했던 해로는 화탈도와 추자도를 경유한 다음에, 서해안 방면은 울돌목을 거쳐서 갔고, 동해안 방면은 소안도를 경유하여 남해안 다도해를 따라서 갔다.

제주 해녀들은 일반적으로 봄에 다른 지방으로 출가하여 5~6개월 정도 물질을 하고 가을 추석 무렵에 제주도로 귀향했다. 한 해 더 벌어서 돌아가려고 겨울철에도 일하며 남아 있는 해녀를 '과동녀(過冬女)'라고 불렀다. 제주 해녀들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전복·해삼·미역 등을 채취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식량공급 어업에 치중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우뭇가사리·감태 등 해조류를 채취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공업용 어업의 원천 인력이 되었다. 국내외로 진출한 해녀의 수입은 객주와 일본 상인 등의 착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해녀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았다.

출가 해녀의 입어권 분쟁 발생

19세기 말까지도 한반도 연안의 어민들은 바다 밑 패조류(貝藻類)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연안어업에 대한 전용어업권의 설정도 없었다. 때문에 제주 해녀들은 남해안으로 진출하여 자유롭게 출가 어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제주 해녀들이 처음 출어한 지역인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은 우뭇가사리와 미역 중심 어장인데, 일본 상인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던 우뭇가사리 채취를 위해 제주 해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미역을 중시하고 미역밭(藿田) 소유의식이 강한 현지 어민들의 반감을 의식해서 제주 해녀들은 우뭇가사리, 은행초 등을 주로 채취했다. 20세기 초까지 출가 해녀들과 현지 어민 사이에 큰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다.

1896년부터 100여 명의 해녀들이 경남 통영군 동부면 저구리에서 천

작업하는 잠수부의 모습(국립해양박물관).

초 및 은행초를 채취하다가 이들 지역이 영친왕(英親王) 소유 어장이므로 1898년부터 1902년까지 해녀 백여 명을 입어하게 하던 중 영친왕궁에서 위원을 보내어 매년 구역별로 50원의 세금을 거두었다. 1906년에 거제도에 한하여 모곽전조합을 설립하고 지원주민과 해녀가 조합원이 되어 피차간 채취하는 동시에 구역을 나누고 그의 대소와 좋고 나쁨을 전형한 후 매 구역당 5~10원씩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1910년대에 들어와서 출가 해녀들의 채취물 가격이 높은 것을 간파한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착 권리를 주장하면서 해녀들로부터 입어료(入漁料)를 대폭 늘려 징수하려고 했다. 이에 제주 출가 해녀들과 지방 어민들, 현지 어업조합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12년에 일어났던 울산 소요사건이었다.

1911년 울산 장생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야스도미 노베구마(安富暢態)가 대화강 유역에서 한천 제조를 시도하고 울산군 전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초·은행초 등의 채취권을 연간 3,200원에 매수하기로 30리동(里洞)과 계약하고 군 및 도의 승인을 얻었다. 야스도미는 제주 해녀를 제외한 지역 어민 및 일본 미에(三重)현 해녀들을 고용했다. 1912년 5월 우뭇가사리 채취기에 제주 해녀들이 울산군으로 들어오자 지역민들은 야스도미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주 해녀들은 입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때문에 제주 해녀와 지역 동민들 간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 소동은 울산·부산 경찰관과 부산 헌병의 출동으로 겨우 진압되었다. 이것이 입어 문제 분쟁의 시초이다.

이 소동은 겉으로는 지역 동민과 제주도 해녀들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진상은 일본인 야스도미와 부산 해조상 간의 상권 확보를 위한 분

쟁으로서, 지역 어민과 해녀들은 표면적으로 소동을 벌인 데 지나지 않았다. 이 분쟁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호사다(帆定) 식산국장, 아카구라(赤倉) 경남도 내무부장, 하야시(林) 경남도 기사 등을 현지에 출장시켜 이후에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녀입어협정〉을 체결했다.[1] 결국 경남 연안에서의 해녀들의 입어권은 인정되었고, 1913년부터 제주 해녀들은 새로 생긴 울산군 서생면의 4개 어업조합과 동래군 기장어업조합의 제6종 면허어장에 입어료를 내고 채취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3년 협정 이후에도 해녀 입어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난항이 거듭되었다. 1913년 당시 울산 지역 어장의 해녀 1인 입어료는 4원 30전으로서, 1912년 전년도 3원에 비해 대폭 인상되었다. 해녀 1인의 천초(天草, 우뭇가사리) 평균 채취량은 감소하는 데 반해 입어료는 인상됨으로써 제주 출가 해녀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다. 때문에 울산 방면으로 출가하던 해녀 수가 매년 1천7~8백 명이었는데, 1913년에 1천3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채취량의 감소와 고가의 입어료 때문에 제주도로 돌아가는 해녀가 점점 늘어서 1913년 6월 8일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배편으로 약 150명이 제주로 귀환했고, 울산에서 종사하는 제주 해녀는 8백 명 내외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해녀의 총대(總代)인 주정회(周晶會)와 송해옥(宋海玉) 등은 6월 10일 수산조합 본부에 출두하여 해녀들의 구제책을 건의했고, 6월 17일에는 제주해녀를 중심으로 부산 목도(영도)에서 대집회를 개최하여 입어료 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제주도 및 한반도 각 지역의 해녀들은 연합하여 전라남도청에 1914년도 해초조업료(입어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도 해녀 객주업자 24명의 총대(總代) 김경찬 외 6명, 부산 해초 객주업자, 수산조합 관계자 등이 1915년 4월 23일 제주도 해녀 입어요금 출자에 대한 상담회를 열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결정을 보지 못했다. 1917~1918년 제주도 조천면 출신의 주정회(당시 해녀객주업조합장 겸 제주도출가해녀연합회 대표, 영도 거주)는 출가 해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상남북도 연안의 해녀 출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상호 분쟁 사건을 여러 건 중재했다. 그 결과 해녀들의 입어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시키고 어장 매매를 금지케 하는 데 주력했다.

해녀조합의 설립과 입어권 분쟁

일제강점기 출가 해녀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했던 것으로 당시 기록들은 전하고 있다. 해녀들은 채취한 해조류를 객주에게 팔았는데, 객주들이 무지한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이 허다했다. 이들 객주는 매년 1~2월경에 제주도에 와서 해녀들을 모집했다. 응모자에게는 채취물을 좋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출어(出漁) 준비자금이라 하여 해녀들에게 전도자금을 주기도 했다. 전도자금은 고리대로 대여되었고 물품 대금은 어기(漁期)를 끝내고 지불했으므로, 그

1) 〈경남에서의 제주도 해녀 입어문제 경과〉(제주해녀박물관 소장).

간에 자금이 바닥나버린 해녀들은 하는 수 없이 객주에게 다시 자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해녀들은 객주들에게 예속되어 싫든 좋든 수확물은 모두 객주에게 팔지 않을 수 없었다.

객주들의 자금은 거의 일본 상인들이 대어 주고 있었다. 이들 상인들은 객주와 결탁하여 해녀들의 채취물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일본인이 세운 해조회사에 넘겼다. 이외에도 해녀들이 타고 다니는 어선에는 소위 거간꾼이 있어서, 객주와 해녀 사이에 거간료를 가로챘다. 결국 해녀들이 고생하며 채취한 해조류는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중간상인이 이익을 가로채 버렸다.

이와 같은 출가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한 제주도의 유지들은 출가 해녀들을 보호하고자 1919년 10월경에 김태호 등이 발기하여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조직했다. 그리고 1920년 4월 16일 정식으로 해녀조합이 창립되었다. 이 해녀조합은 해녀가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도 하여 주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설립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상위행정구역인 전라남도에 의뢰하여, 전남 도지사가 해녀들의 주요 활동 지역인 경상남도 당국과 협상을 했다. 그러나 마침 부산에 일본인이 조선해조주식회사를 세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전남 도지사는 해녀조합을 이 회사에 부속시키기로 하여 버렸다. 이에 대하여 해녀조합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여 제주도사를 앞세워 직접 경상남도 당국과 협상을 했다. 그 결과 1920년 4월 28일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제주도, 경상남도, 조선수산조합, 조선해조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해녀조합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었다.

결국 전남 측에서는 해녀어업조합을, 경남 측에서는 해조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녀가 채취한 해초를 해녀조합이 해조주식회사에 위탁하여 경매에 붙여서 최고가격으로 판매하게 하고, 해조회사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제 울산, 동래, 기장, 부산 등 각 연해에서 채취하는 해조는 전부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감독 하에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위탁 판매하기로 결정되었다.

해녀조합은 제주도 일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8,200명을 가입시켰다. 본부는 제주읍내 삼도리에 두고 각 면에 12개의 지부를 설치했다. 출가 해녀의 보호를 위해 부산에 출장소, 목포·여수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했다. 해녀조합은 1920년 5월 21, 22일 이틀에 걸쳐 조합원 총대회를 열어, 조합자금 3만 원을 식산은행 제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고 해녀들의 어로품은 조합 부산출장소와 제주도 내 각 지부에서 공동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해녀조합은 해녀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에 있는 조선해조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공동판매를 조합의 직접 관할로 하게 되자, 해녀조합의 공동판매고는 1921년에 9만 원, 1922년에 19만 원, 1923년에 22만 원, 1924년의 경우 30만 원으로 급신장했다.

그 결과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출가 해녀의 급증으로 경상남도의 지역 어업조합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해녀조합의 활동 이후 1923, 4년경에는 그 지역 어업조합의 반대로 제주 해녀의 입어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기장 지역에서는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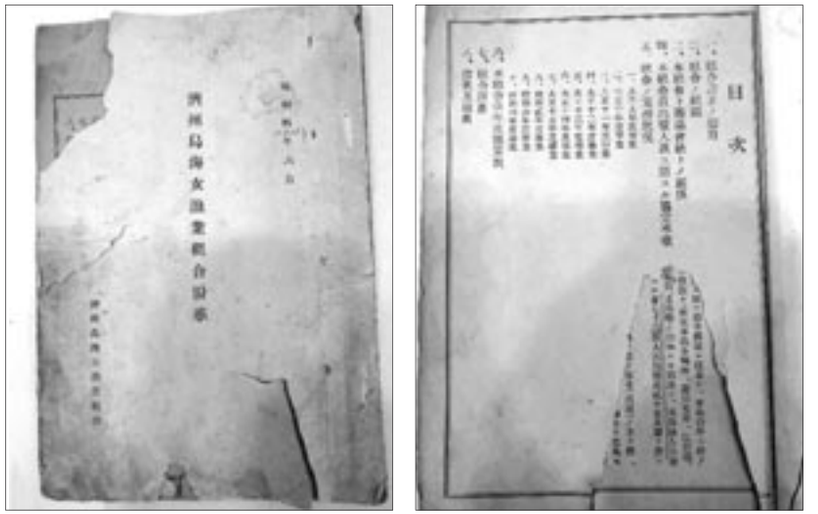
1924년 4월 24일 아침 부산어업조합 측에서 부산 동삼동 방면을 지나가는 해녀 20여 명의 행선을 욕설과 폭력으로 막는 일이 발생했다. 당

시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해녀들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한 해녀조합이 있는 이상에는 남의 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연 거절하여 오던 원인으로 작년부터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서 동래군 기장 방면의 어업조합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조합에 가입치 않으면 제주 '보작이'들은 바다 근방에도 발을 못 들여 놓게 한다고 하는 등 가진 핍박을 받아오다가 금년에도 4월 16일이 해조류 채취를 시작하는 법정 기일인데 금년은 해조 발육 상황이 좋지 못하다하여 아직 채취하기가 좀 이르다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야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제주도 해녀조합원을 총계하면 2천여 명이고 기타 종업자 1천여 명을 합하면 약 3천여 명의 해녀들은 두 어깨에 대바구니 하나씩만 걸머지고 수륙 수백 리의 원역을 건너와서 자기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해초를 절취하기 위하여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부산어업조합에서는 강제적 수단으로 해녀 십여 명을 감언이설로 유인하여 조합에 가입케 하고 그 가입된 해녀들에게는 법정기일 전에 해초 채취를 용서한 까닭에 기일만 기다리고 있던 해녀들과 서로 충돌이 생겼다."[2)]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당국 사이의 협상을 거친 끝에 1925년 2월에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제주 해녀들은 경상도 지역 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생산물의 거의 절반 이상을 해조회사에 팔지 않으면 안 되

2) 《동아일보》, 1924. 4. 28.



1929년 6월에 작성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연혁〉(제주해녀박물관 소장).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임시총대회(1936. 5. 20.).

었고, 입어료도 거의 5할 이상 인상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해녀는 1,712명에 한하여 부산·동래·울산 지방에서의 입어를 허가받게 되었다. 결국 1925년의 협정으로 제주도 해녀들은 출가로 인한 수입 확보에 불리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해녀조합의 수탈에 맞선 투쟁

일본인 제주도사(濟州島司)가 조합장을 겸임하던 해녀조합은 1920년대 후반부터 어용화되어 갔다. 일제는 축산조합·임야조합·도로보호조합·연초조합·해녀조합·어업조합 등 다양한 관제조합을 통해 수탈정책을 자행했다. 이들 관제조합은 생산물의 판매에 적극 개입하여 소수의 일본인 상인이나 조선인 중간상인과 결탁하여 생산자의 자유 판매를 금지하고 생산비에 충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지정가격을 설정하여 수탈했다. 그리고 지정상인의 불법적 매수 행위를 관제조합의 힘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이들 관제조합 가운데도 해녀들이 가입하여 있는 해녀조합의 수탈은 특히 극심했다.

제주도 바깥으로 출가한 해녀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해녀조합이 오히려 해녀들을 수탈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갔다. 1925년의 해녀 입어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서 해녀가 출가지에서 채취한 해조류는 대부분이 부산의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의해 판매됨으로써 해녀조합은 해녀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매상고의 5할은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1.8할 정도는 해녀조합의 수수료로 공제했다. 여기에다 조합비, 선두(船頭)의 임금, 거간 사례비 등으로 다시 공제했으므로, 해녀의 실수입은 2할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해녀조합 운영자들은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지정상인을 만들어 상권을 좌우하고, 각종 생산물은 아직 채취하기도 전에 매입이 행해지고 있었다. '선구전제(先口錢制)' 판매라고 하여, 아직 바닷속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기도 전에 지정상인들에게 입찰시켜서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여 지정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강요했다. 그러므로 그 대상 물건의 지정 가격은 시가의 반액 정도로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생산자는 시가를 알면서도 지정가격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은 이윤은 생산자인 해녀가 아니라 해녀조합과 상인들에게로 넘어갔다.

1932년 해녀항일투쟁에 나선 해녀들(강요배 화백 그림).

생산자에게 지불할 대금은 생산물이 완전히 상인에게 인도된 후 상당한 시일을 두어 결제하여도 무난했으므로 해녀들에게는 대금 지불이 상당히 늦어졌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채취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권리조차 없었다. 또한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부당한 수수료나 선주들의 교제비를 부담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배급물자도 선주에게 가로채이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관제 해녀조합에 대한 해녀들의 불만은 누적되었고, 결국 1932년 구좌·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녀항일투쟁이 발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32년 1월 제주섬 동쪽의 하도·종달·세화·우도·시흥·오조리 지역 해녀 1천여 명이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이 지역의 토지는 척박하기 그지없어 여성이라면 모두가 물질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다. 한낱 먹고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던 물질노동의 가치에 대해 해녀들은 야학을 통해 새로 자각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마을의 청년

海女三百餘名に
取圍まれた島司
田口さんヒック リ

1월 12일 다쿠치 제주도사에게 항의시위를 벌였던 상황을 보도한 신문기사(《朝鮮新聞》, 1932. 1. 16.). 사진은 다쿠치 데이키 제주도사.

지식인 교사들에게 근대적인 민족 교육을 받았다. 농민독본·노동독본 등의 계몽서를 배우고, 한글·한문뿐만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까지 교육받았다.

1930년대에 접어들자 잠녀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해녀조합은 철저히 어용화되어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다. 김옥련을 비롯한 해녀들은 관제 해녀조합에 대항하여 해녀회를 조직하여 단결하여 갔다. 결국 1931년 12월부터 시작된 해녀조합에 대한 투쟁은 이듬해 1월 7일과 12일 오일장날을 이용한 대규모 시위로 전개되었다.

1월 12일 시위에서 해녀들은 세화리를 지나던 다쿠치 도사 일행을 향해 호미와 비창을 들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써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라고 외치며 달려들었다. 일제 경찰은 이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했다. 김옥련·부춘화·부덕량 등 해녀 주동자들은 함께 검거되어 6개월간 경찰서에서 고문과 취조를 받으면서도 항일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제주 해녀투쟁은 일제강점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대중의 항일운동으로서 한국사에서도 높게 평가된다. 2003년 정부는 해녀투쟁의 전면에 나선 해녀들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비로소 이 투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렸다.

제주해녀항일운동 일지[3)]

구분	일시	투쟁 과정
배경	1919. 10.	김태호와 제주유지 소수가 발기인이 되어 조합 추진
	1920. 4. 16.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설립
	1924. 4. 28.	조합가입 압박: 부산·동래 2개 조합과 울산 5개 조합
		해녀조합 이해관계자, 조합장 등 간부 일동의 총 사직
	1924. 5. 4.	해녀 문제와 6조의 타협책 협의안 구성
	1924. 5. 13.	거주지 문제로 해녀조합 분규
	1924. 6. 14.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부산어업조합과의 입어분쟁 발생
	1927. 5. 6.	경남도 연해 활동의 제주 해녀 중 초과인원 축출
성산포 사건	1931. 9.	성산포에서 해녀조합의 천초 부정판매로 해녀 대표 면위원회 개최, 수천 해녀들이 항의운동 전개, 다나카 제주도사에게 항의
	1931. 10. 20.	성산포사건으로 현재성·임춘삼, 경찰에 구류, 해녀들의 봉기
	1931. 11. 4.	구좌면·정의면에 관제조합 규탄하는 격문 산포 오문규·부승림·채최선·오동진, 경찰에 체포, 검찰에 송치
1차 시위	1932. 1. 7.	하도리 해녀 300여 명 하도리에서 세화리 장터까지 시위, 행진
		생복과 감태재 판매의 불이익, 해녀조합의 무책임함 성토
		경관, 면지부장, 지부계원, 하도리 구장 등과 교섭 승낙, 요구 전달
2차 시위	1932. 1. 12.	제주도사 초도순시일, 세화 장날-사전계획 후 실행
		동리별 대표 해녀의 불만 11개 항 요구, 시위대의 무력행사에 저항
대치검거	1932. 1. 24.	해녀 1,500명의 경찰 차 파괴, 해녀주모자 34명 검거
	1932. 1. 26.	우도 청년 11명 검거, 해녀들의 저지 투쟁
	1932. 1. 27.	구좌면 종달리 해녀 100여 명 피검자 석방요구시위
배후수사	1932. 1. 29.	해녀시위선동 혐의로 민중협의회원 40명 체포, 탈환운동 대치
	1932. 3. 4.	해녀주동자(부춘화·김옥련·부덕량)를 제외하고 해녀 전원석방
		민중운동자협의회 38명 검속 – 하도리 9명, 세화리 8명, 연평리 13명, 종달리 8명
석방기소	1932. 4. 22.	해녀주동자 3명 석방, 비밀결사단체인 '민중협회'로 관심 집중
	1932. 5. 14.	민중협회 회원 50여 명 중 27명 검거, 목포압송 – 유죄로 기소
판결	1932. 12. 11.	제주도 비사(秘社)사건으로 총 40명 기소 – 치안유지법·가택침입·보안법위반·협박폭력행위
		제주도 비사사건 예심종결 – 병합예심 후 최종 판결

3) 당시 신문자료와 현상호의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 등을 토대로 해녀조합 분규 이후인 1924년 5월부터 검거 및 종결 과정까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도표화했다.

해녀투쟁 참여자의 역사적 기억

'1931~1932년 제주해녀투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90여 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주민의 뇌리에 뚜렷이 각인되어 왔다. 이 사건은 해방 후 3·1사건과 4·3항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저항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대중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 하에서는 4·3의 피해의식과 반공의 이념이 지배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향토사가들은 해녀투쟁에 대해서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성격보다는 해녀들의 단순한 이권수호운동 정도로 평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일제하 대중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더불어 실증적인 연구물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해녀투쟁의 주역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해녀투쟁은 국가로부터 항일독립운동의 공적 기억으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해녀투쟁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민족운동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들이 의식적으로 해녀들에게 민족의식을 이입시킨 결과, 해녀들이 몸소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나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해녀들의 투쟁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닌 항일운동으로 자각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부춘화·김옥련·고순효 등 해녀투쟁 주동자들의 기억 속에는 항일운동으로 뚜렷이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세 사람은 당시 1932년 1월 하도·종달·세화·우도·시흥·오조리 지역 해녀 1천여 명이 참가한 투쟁을 주도했던 여성이다. 모든 해녀투쟁 참여자를 대표하여 일본인 제주도사와 협상을 직접 했고, 부춘화·김옥련은 경찰에 체포되어 미결수로 6개월간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러므로 해녀투쟁 참여자들의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이들이 남긴 기억의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부춘화는 1908년 구좌면 하도리에서 부원돈의 장녀로 출생하여 1922년 당시 15세 때부터 해녀 생활을 했으며, 1923년 구좌면 하도리 보통학교 야학부에서 한글 공부를 하고 근대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는 21살이던 1928년 제주도해녀조합 산하 조직인 구좌면 해녀조합 대표로 선임되어 해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옥련은 1909년 구좌면 하도리 서문동에서 1남 4녀의 막내딸로 태어나 9살 때부터 물질에 나섰다. 잠수 실력이 좋아서 비슷한 또래 해녀들 가운데 1, 2등을 다투었다.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학을 다니면서 신학문을 깨우쳤다.

제주섬 동쪽의 토지는 척박하여 여성이라면 모두가 물질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다. 먹고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던 물질노동의 가치에 대해 두 해녀는 야학을 통해 새로 자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도보통학교 야학강습소 1회 졸업생으로서, 오문규·문무현·부대현·김태륜 등 청년 지식인 교사들에게 근대적인 민족 교육을 받았다. 《농민독본》·《노동독본》 등의 계몽서를 배우고, 한글·한문뿐만 아니라 저울 눈금 읽는 법까지 교육받았다.

부춘화는 해녀투쟁을 자신이 주동한 것으로 기억했으며 항일투쟁으

로 정확히 인식했다.

> "(나는) 1928년 제주도해녀조합 산하의 조직인 구좌면 해녀조합 대표로 선임되어 해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1931년 5월 일본 식민지 정책하에서 제주도 해녀조합의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해녀들이 어렵게 채취한 해산물을 일본인 주재원으로 하여금 일괄 수납시켜 부당하게 착취 행위를 하는 실정을 목격하고, 일본인들이 강제적으로 침탈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시정되는 일이 없었다. 이에 구좌면 해녀회원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하며 직접 진정서(9개 항의 요구사항)를 작성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4]

그는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이 없음을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얘기만 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별별 수단을 다 썼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해녀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략) 그 사건으로 인해 사상범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배후 조종 인물을 찾는다고 검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구술하였다.[5] 그의 기억에서 혁우동맹이나 지역 청년과의 연계·지도 같은 내용은 감춰져 있다. 사회운동가들은 단순히 배후 조종자로 기억되었다.

4)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1995.

5) 〈삶의 순수한 투쟁-주동자에게 듣는 '세화리 해녀사건'〉, 《월간 관광제주》 1985년 3월호.

부춘화의 기억은 1985년 당시 군사정권체제의 정치·사회적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4·3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가 해녀투쟁의 기억에 중첩되어 있다. 즉, "그 후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4·3 사건을 겪고 토벌대가 가고 난 후 또 한 차례의 수난이 있었다. 그때 각 마을마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끝내 거부했다. 뭘 잘못했는지 얘길 해주면 반성문을 쓰마고 하자 대뜸 해녀사건을 들춰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호통을 쳤다. (중략) 해녀사건은 약 50년쯤 전인 내가 스물네 살 나던 해 초봄의 일인데 일생 나를 쫓아다닌 셈이다."라고 하여 4·3 당시 해녀투쟁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개인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옥련은 해녀투쟁에 대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일본한테 압박받고 해녀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그뿐이야."라고 기억한다. 특히 해녀투쟁의 몇 가지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해녀'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으로서 '해녀조합'이 조직되었는데, 여성도 '직업인'으로 인식되었다는 시초가 된 점이다. 둘째, 제주도 최초의 여성 중심의 생존권 투쟁의 운동인 점이다. 셋째, 여성 중심의 조직적인 모임(부인회·부녀회)이 태동하였다는 점이다."라고 그는 기억하였다.[6]

6) 김옥련의 증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1995;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제주해녀항쟁의 주도자 김옥련 할머니의 삶〉, 《4·3과 역사》 3, 2003.

특히 그는 야학강습소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기억하였다.

> "이러는 중에 내 생애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즉, 마을에 야간학습소가 생기고 나는 저녁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치다시피 하여 야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2년간 계속된다. 나는 이 야학에 다님으로써 나의 '남편'과 만나게 되고 해녀사건을 주동하게 되는 '인연'과 맺어지게 된다. 이 야학소는 일본식민시기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의식 있는 젊은 남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계기가 된다. 당시에는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노출되어 탄압받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독립을 위한 준비로서 전국적으로 교육이란 방법으로 계몽을 하였다."

해녀투쟁은 "제주도청년회의 핵심인 오문규·김순종에게 지도를 받은 부춘화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 조직적 항일투쟁"이라고 하였다.

그는 해녀투쟁의 주역으로 나섰다가 일제에 검거돼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취조 과정에서 소 채찍을 맞고 두 팔을 뒤로 비틀리며 나무 봉 위에 무릎을 꿇린 채 짓눌리기를 수차례 당하였다. 유치장에서 그는 배식·세탁 등을 맡았다. "감옥에서도 조국 독립을 의논하고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하였다. 김옥련은 해녀투쟁 전에 일제의 눈을 피해 한글과 한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주던 야학 교사들과, 당시 해녀투쟁에 연루돼 함께 옥고를 치렀던 사회주의운동 계열 청년들도 기억했다. 그에게 해녀투쟁은 단순한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7]

해녀투쟁의 또 다른 주동자인 고순효는 부춘화·김옥련·부덕량 등과 하도강습소를 다녔고, 해녀투쟁 때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시위를 같이 이끌었다고 기억하였다.[8] 그는 "물건 값을 잘 쳐주지 않아서 파동이 일어났는데, 오문규·부승림 등이 주동을 하여서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였는데도, 매일같이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였다. 오문규 선생과 김옥련·부춘화 등과 내가 같이 의논하여 제주읍내의 해녀조합 사무실로 항의하러 간다고 바닷길로 갔으나, 파도가 세어서 결국 가지는 못하였다. 조합에 가서 물건 값을 따지는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위 계획을 세웠다. 해녀운동 외에도 항일활동에 관련된 회의를 청년들과 더불어 하였다. 해녀들은 우리 일행(부춘화 등)만 참여하였다. 오문규는 참석뿐만 아니라 거의 주동하였다. 오문선(오문규 동생)·부승림·김순종 등이 참여하고 회의와 활동을 이끌었다. 해녀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다 뒤에서 지도하였다."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청년지식인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순효는 "나는 굴동에서 부춘화와 같이 살았다. 정식 학교를 다니지

7) 김옥련은 해녀투쟁에 동참한 종달리 청년 한영택과 뒷날 결혼했으나, 해방 후 남편이 일본 도항 후 재일동포 '북송' 때 북한으로 가버려서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해녀투쟁 주역들의 항일투쟁으로 인한 체포와 고문, 구금의 아픔은 해방 후 4·3사건과 분단의 피해로 이어졌다.

8) 1996년 12월 1일, 서울시 공항동 고순효의 자택에서 채록.

하도강습소 제1회 졸업기념 사진. 해녀항일운동 주동자인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고순효(고차동), 김계석 등 5명 모두 하도강습소 제1회 졸업생들임.

못하였기 때문에 (하도보통학교) 오후반(하도강습소)을 다녔다. 꼬박 6년을 다녔다. 나이 차이가 있었으나 다들 같이 다녔다. 내가 가장 어렸다. 부춘화와 내가 7살 차이다. 공부한 과목은 일본어만 빼고는 주간과 같았다. 일본어는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와 한글은 가르쳤다. 《노동독본》이라는 책도 본 적이 있다."라고 구술함으로써, 야학강습소의 중요성을 엿보게 한다. 즉, 해녀투쟁의 이면에 야학강습소를 통해서 해녀들에게 의도적으로 교육된 민족·계급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계석은 또 다른 잊힌 해녀투쟁의 주역이다. 김계석은 구좌읍 하도리 서문동에서 태어나서 15세부터 해녀 생활을 시작하여 16년간 활동

했다. 부춘화·김옥련·부덕량·고순효 등과 함께 하도보통학교 야학강습소에서 수학했다. 제1회 졸업생이었는데, 졸업식에는 일본에 출가물질을 다녀오게 되면서 참석하지 못해 졸업 기념사진에는 빠져 있다.

김계석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평소 (하도 야학강습소) 선생님들로부터 민족의식 교육을 받아왔던 우리 하도리 해녀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해녀 대표자로 나와 부춘화·김옥련·부덕량·고순효 등과 5인을 선출하고 일본인 어업조합의 횡포를 성토하고 일본 어업조합과 투쟁할 계획을 세우는 등 항일투쟁의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해녀들이 항일투쟁의 계획을 세우고 방법 등을 세울 때는 젊은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지도하여 주었다."[9]

"그 해(1931년) 추운 겨울(12월)에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고순효, 나를 비롯해서 해녀대도 13~14명이 어업조합 본부(제주도사 겸직)가 있는 제주읍내로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육로로 가다가는 일본 순사에게 들킬까 봐서 바다로 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발동기선 주길환(住吉丸)을 타고서 제주읍내로 가다가 김녕인가 골막(동복리) 부근에서 풍파를 만나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먹을 양식으로는 메밀가루로 만든 메밀떡 6개를 전대에 넣고 허리에 차서 머리에는 흰 수건으로 동여매고 빗창을 갖고 흰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었다.".[10]

9) 김계석, 〈제주해녀항일투쟁 실상〉(2003년 12월 31일 증언; 2004년 2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위원회가 제출한 김계석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에 수록).

10) 위와 같음.

세화 오일장 날에는 항일투쟁을 위해 성산면 오조리, 시흥리, 우도, 종달리, 하도리, 세화리 등지를 다니면서 집결하도록 소식을 알렸고, 항일투쟁에 앞장섰다. 해녀들의 요구 8개 항 구호를 외쳤고, 요구조건을 내세웠지만 일본 경찰이 주동인물 색출에 나섰다.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이 검거되었고, 김계석은 시집이 있는 평대리로 피신해서 검거를 면했다.

해녀투쟁을 항일운동으로 기억하게끔 하는 학계와 지방정부의 일련의 성과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과정을 밟았다. 해녀투쟁기념사업회에서는 정부에 2001년 3월 해녀투쟁 관련자 11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해녀투쟁이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했다는 점과 해녀투쟁 관련자들의 해방 후 행적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을 유보하였다.[11]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녀투쟁은 사회주의 이념을 방편으로 한 것이었지 실제로는 조국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항일운동의 범주를 문화운동·사회운동으로 외연을 확대하게 되었고, 해녀투쟁은 주재소 습격, 폭력시위의 전개 등 3·1운동 못지않은 항일투쟁의 양상을 띤 사회운동으로 정부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003년 8월 15일 정부는 해녀투쟁의 전면에 나선 부춘화·김옥련 등 2명의 해녀와 혁우동맹원 문도배·한원택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함

11)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 8월 7일자로 ① 사회주의 활동의 평가 문제 ② 독립운동 내용 불명확 ③ 활동 이후 행적 미상 ④ 광복 후 좌익 활동 ⑤ 독립운동 불분명의 사유를 들어 전원 탈락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왔다.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으로써 비로소 이 투쟁에 대해 항일독립운동으로서 공식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서 2005년 3월 1일에는 제주야체이카의 총책임자였던 강창보와 혁우동맹원 강관순·김성오·김순종이 선정되었다. 2005년 8월 15일에는 해녀투쟁의 주역 3인 가운데 한 사람인 부덕량과 혁우동맹을 실질적으로 지도한 신재홍과 혁우동맹원 채재오 등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해녀투쟁은 국가에서 공인된 항일독립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역사적 기억이 반공체제하에서 억압을 받다가 민주화시대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맺음말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1932년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역사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김계석·김옥련·부덕량·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됐다."라면서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 7천 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언급했다.

1932년 제주도 해녀항일투쟁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민중운동이다. 운동의 주체가 여성 해녀라는 독자성이 우선 돋보인다. 연인원 1만 7천 명이 참여한 일제강점기 최대

연두망 동산에 세워진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의 흉상.

의 제주도 항일운동이자 한국에서의 최대 어민항쟁이다. 제주지역 내 청년사회운동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돋보이는 조직적 항일운동으로도 평가된다.

해녀항일투쟁은 당시 신문기사 기록과 체험자들의 기억을 통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민족해방을 위한 사회운동에 투신했던 기자들이 쓴 해녀투쟁 기록은 일제의 탄압 아래 운동조직과 해녀 대중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자 출신 청년운동가들이 해녀투쟁을 배후에서 지휘한 혐의로 검거되고 징역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해녀투쟁을 주도했던 다섯 사람의 주동자 해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들의 지도를 받은 것이었고, 적극적인 항일의 의지를 가진 운동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4·3사건 때 주민집단희생과 탄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반공국가 체제하에서 해녀투쟁은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연결된 운동으로 불순한 움직임으로 치부되어 오히려 투쟁 주체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전의 민족의 독립을 위했다는 자신에 찬 싸움의 기억은 다시 숨어들었다. 향토사학자들은 생존권·생활권·이권 수호를 위한 해녀들의 움직임 정도로 기록함으로써 해녀투쟁의 기억을 위축시켜 놓았다.

해녀투쟁의 기억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자유화·민주화의 결과였다. 1996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항일독립운동사》는 해녀투쟁을 비롯한 일제하 대중적 항일운동의 재평가를 수용하는 공적(公的)인 기억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이후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의 편찬, 해녀항일투쟁기념탑의 건립, 기념공원의 조성, 해녀박물관의 건립, 해녀항일운동 기념식 개

최, 해녀항일운동 주역 흉상 건립 등 공식적인 기억으로 전승되어 갔다.

제주도 내에서도 2018년 9월 해녀축제 기간에 해녀투쟁 주역 3인, 부춘화·김옥련·부덕량의 흉상을 만들어 연두망 동산 기념탑 옆에 세움으로써 전향적인 기념사업에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순효(차동)·김계석 등 해녀들과 수많은 청년 등 해녀운동 주역의 독립유공자 선정, 해녀운동 관련 사료에 대한 추가 발굴과 각종 기념사업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해녀항일투쟁은 1932년 이전부터 잠재된 일제의 부당함에 대한 고발이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이었다. 주도층과 20여 명의 해녀 대표인물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옥고를 치렀던 부춘화·김옥련·부덕량은 서훈을 받았고, 같은 동네에서 회의를 하며 계획하고 실행했던 고순효(차동)와 김계석 등 대표해녀 2명은 검거를 피해 은신해 버렸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없어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녀 항일투쟁의 주체였던 해녀회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대한 자신들의 처지를 직시하고 생존의 열악성을 절감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낸 하나의 주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서 해녀항일투쟁은 해녀라는 공동체를 넘어 제주도민의 지지와 호응으로 이어져 제주도 항일운동으로 확장되었다. 해녀항일투쟁에 참여했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과 독립유공자 서훈의 명예회복을 통해 전국,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창훈,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5.

김수희, 〈일제시대 제주 해녀의 해조류 채취와 입어〉, 《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06.

김영돈, 〈제주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 비교민속학회, 2000.

박용옥, 〈제주해녀 항일투쟁과 그 여성사적 의의〉, 《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박물관, 2006.

박찬식,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_____,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 2007.

_____, 〈제주해녀항일운동의 기억과 전망〉,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 학술포럼, 2018.

안미정, 〈바다에서 바다로: 한·일 잠녀, 해녀들의 이동과 제국의 바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 학술포럼, 2018.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1996.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제주여성사료집》 I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8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해녀, 문화와 항일정신으로 빛나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9.

조성윤, 〈제주 해녀투쟁의 사회사적 의미〉,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 학술포럼, 2018.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7권 1호, 한국정신문화원, 2004.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 여성을 중심으로

김창후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 여성을 중심으로

머리말

1923년 12월 15일, 제주와 오사카 간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인들은 일거리를 찾아 일본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오사카에 거주하며 자이니치 제주인(在日濟州人) 커뮤니티를 형성해 생활하고, 힘든 노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절약해 고향 마을과 가족을 위한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이들의 공덕을 기리는 약 900여 기의 '재일제주인 공덕비'가 소재해 있기도 하다.

오래전, 이들 자이니치 제주인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60년대 이들이 깨끗이 세탁해 보내준 헌옷을 자랑스레 입어본 경험이 있는 필자는 이들을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한 고마운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둬 고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필자는 비로소 이들의 실상을 알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던 것을 기억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이들 자이니치 제주인 1세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 운동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자이니치 제주인 1세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일본인들은 하지 않는 힘든 공장 노동이나 일용노동자로 간난의 세월을 보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강제 징병되거나 징용돼 전선이나 탄광으로 보내져 많은 생명이 스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국을 찾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의 본고장에서 힘든 투쟁을 벌였다.

필자에게 주어진 글의 주제는 '일본에서의 제주인 여성항일운동가'였다. 그러나 국내와는 달리 일본 지역 제주 출신 여성 항일운동가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먼저 1923년 일본으로의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자이니치 제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의 역사와 삶을 살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종주국 일본에서의 제주인, 특히 제주인 여성들의 항일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래의 자이니치 제주인 역사

제주 오사카 간 직항로(1923) 개설 이후, 제주인들은 힘들여 도항증명서를 얻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그 후 연고자를 찾아 오사카 등지로 흩어져 비싼 하숙집을 얻고(하숙집 대문에는 '개나 조선인은 사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도 했다.), 일본인은 기피하는 유리나 고무, 철, 방직, 메리야스 공장에서 일본인보다 훨씬 낮은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종일 먼지로 온

몸이 새까매지도록 일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고향에 송금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거나 항일운동에 나섰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는 '우리는 우리 배로!' 구호로 시작된 동아통항조합운동이 있다. 이 시기 무정부주의자 고순흠의 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며, 김문준과 조몽구 등의 일본조선노동총동맹과 전협 활동, 민중시보 간행 운동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아울러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공장에서 대우개선과 일본인과의 차별 금지를 요구하며 벌였던 자이니치 제주인 여공들의 투쟁도 그 의미를 새겨볼 만하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 많은 제주인들이 귀환했다. 그러나 곧이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4·3으로 다시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과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여서 제주인들은 밀항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현재 자료가 없어 정확한 밀항자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대충 1만 명 정도의 제주인이 일본에 재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밀항자들이 일본경찰에 검거돼 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됐다 한국으로 추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오무라수용소 전경.

1) 제주인의 일본 이주자와 잔류자 수

일제강점기 많은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중 가장 많이 이주했던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숫자가 자료로 남아 있다. 그중 일본에 잔류한 제주인이 가장 많았던 1934년에는 제주도 인구의 1/4에 달하는 50,045명에 이르렀다.[1)]

제주인의 일본 도항자(渡航者)와 귀환자(歸還者) 수

(단위: 명)

연도	도항자			귀환자			잔류자 누계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1926	15,862	11,742	4,120	13,500	10,029	3,471	28,144
1927	19,224	14,479	4,745	16,863	12,015	4,848	30,305
1928	16,762	11,745	5,017	14,703	10,100	4,603	23,564
1929	20,418	15,519	4,903	17,660	13,326	4,334	35,322
1930	17,890	12,029	5,861	21,416	15,175	6,251	31,786
1931	18,922	11,635	7,287	17,685	12,512	5,533	33,023
1932	21,409	11,695	9,719	18,307	10,382	7,925	36,125
1933	29,208	15,723	13,485	18,062	12,356	5,706	47,271
1934	16,904	9,060	7,844	14,130	8,115	6,015	50,045
1935	9,484	4,327	5,157	11,161	5,986	5,175	48,368
1936	9,190	4,739	4,451	11,095	6,037	5,058	46,463

김찬정, 《이방인 군대환 타고》, 일본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1985, 60~66쪽.

1) 참고로 1923년의 제주도 인구는 209,925명이었다.

2) 이방인 군대환 타고

《이방인 군대환 타고》는 자이니치 논픽션 작가 김찬정이 1985년에 발간했다. 김찬정은 이 책에서 기미가요마루(군대환, 君代丸)를 타고 일본으로 이주해 차별과 저임금 속에 온갖 고초를 겪었던 제주인들의 실상을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을 비롯해 다른 여러 자료를 보면 당시 제주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위해 겪는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타고 갔던 기미가요마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한다.

제주인들은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고향이 생각날 때 자주 노래를 불렀다. 그중 오래전에 부르던 청춘가에 일본살이의 괴로움을 담아 부른 아래 노래에는 기미가요마루 이야기도 등장한다.

> 무정한 군대환은 무사 날 태와 완, 이추룩 고생만 시켜신고
> 청천 하늘엔 별도 많지만, 내 몸 위에는 고생만 많구나
> 이 몸은 이치룩 불쌍허게, 일본 어느 구석에 데려지고
> 귀신은 이신건가 어신건가. 날 살리젠 올 건가 말 건가
> 나신디 날개가 이서시문 나랑이라도 가구정 허건만,
> 날개가 어신 것이 원수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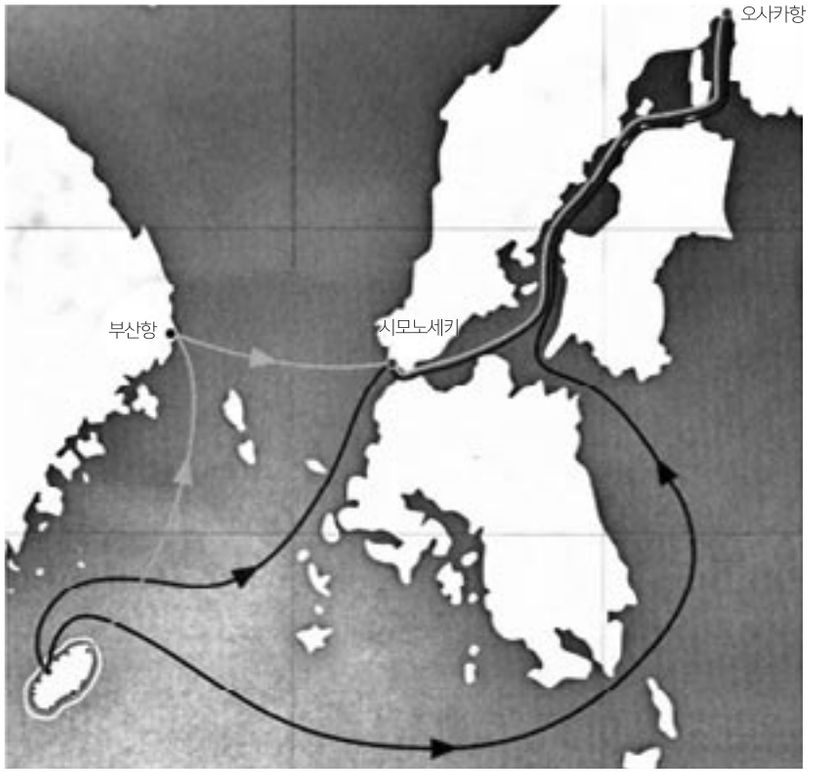
기미가요마루 모습.

노래에도 나오는 기미가요마루는 1922년부터 1945년 4월까지 온갖 애환을 담고 제판항로(제주-오사카 항로)를 운항했다. 제1 기미가요마루는 1922년~1925년까지 운항했고, 1926년부터는 제2 기미가요마루[3)]가 제주인을 싣고 날랐다. 자이니치 제주인 1세들이 "군대환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지."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제2 기미가요마루를 의미한다.

당시 기미가요마루가 오사카까지 가는 데에는 4일이 걸렸다. 당시 항로를 보면 먼저 산지항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며 면소재지 11곳에서 승객들을 태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큰 배가 입항할 수 있는 항구시설이 돼 있지 않아 보통 먼바다에 기마가요마루가 정선하면 항구에서 종선이 승객들을 실어날랐다. 그렇게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면 이틀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산지항에서 오사카로 출항하게 된다. 배는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데 하루, 그리고 세토나이카이(瀨戶

2) 신재경,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도서출판 보고사, 2014, 37쪽.

3) 제2 기미가요마루는 아마가사키기선(尼崎汽船)이 1925년 러시아에서 구입해 개조공사를 한 후 1926년부터 1945년 4월 중순 오사카 인근 해역에서 미군의 폭격에 격침될 때까지 약 20년을 운항했다. 이 배는 철선으로 제원은 919톤, 830마력, 길이 62.7m, 폭 10.6m, 흘수 12.7m로 승선 인원은 365명이었고, 최대 승선 가능 인원은 685명이었다.



제판항로. 제주항에서 출발해 시모노세키항에서 하루 정박하고 세토나이카이를 거쳐 오사카항에 이르는 데 이틀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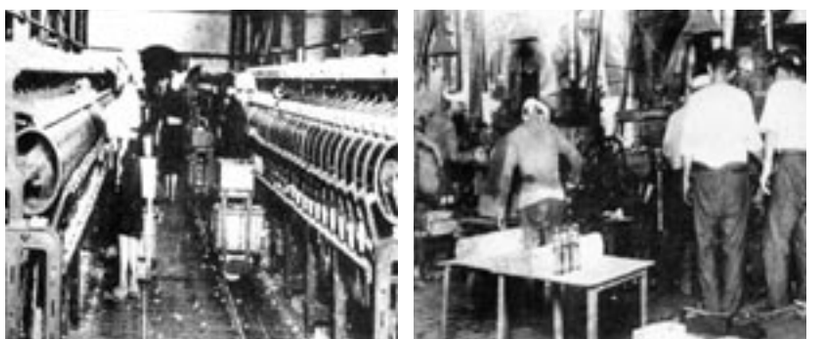
內海)를 거쳐 오사카항까지 가는 데 하루가 걸렸다. 결국 산지항에서 오사카로 직접 가는 승객은 이틀이 걸린 셈이 된다.

한편, 점차 오사카에 제주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뱃삯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오사카의 제주인들은 1928년이 되자 아

마가사키기선과 제판항로의 또 다른 기선 케이조마루(경성환, 京城丸)를 운항하는 조선우선(朝鮮郵船)의 뱃삯 12원 50전이 과도하다며 항의집회를 열고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선사는 "새가 아니라서 날 수도 없고, 물고기가 아니라서 헤엄칠 수도 없으니"라고 놀리며 거부한다. 이에 제주인들은 '우리는 우리 배로!' 슬로건을 내걸고, 동아통항조합운동을 시작해 일제에 항거한다.

3)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직업

일본으로 이주한 많은 제주인들은 오사카의 이카이노(猪飼野, 현재 이쿠노구 이카이노초生野區 猪飼野町 지역)에 모여 살며 힘든 삶을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인들은 기피하는 고무공장이나 유리공장, 철공장, 플라스틱공장, 방직공장에서 '새까맣게 되도록 일했으나',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1920년대 기시와다방적 여공(왼쪽)과 오사카 신야유리 공장(오른쪽).

적었다.' 탄광이나 토목공사장에서 막일꾼[4]으로 주로 일한 것도 자이니치들이었다.

4) 월등히 많은 오사카의 자이니치 제주인

오사카부에 이주한 조선인들 가운데에는 제주인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다음의 표가 이를 입증해준다.

오사카부 재주(大阪府 在住) 조선인 출신지별 비율표

(단위: 명)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출신지	인수
제주도	609	경남	85	충북	3	황해도	-	함남	3
전남	192	경북	55	경기도	18	평남	3	함북	2
전북	9	충남	17	강원도	4	평북	-	계	1,000

조선총독부, 《阪神·京浜 지방의 조선인 노동자》, 1924.7.

해방 후 자이니치 제주인 인구는 크게 출렁인다. 1980년대까지는 밀항 등으로 이주해 소폭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2012년 현재, 자이니치 제주인 인구는 86,231명으로 자이니치 총인구 545,401명의 15.8% 정도이다.

4) 도카타(どかた 土方).

자이니치 제주인의 인구 추이

(단위: 명, %)

연도	인원	증감	비율	연도	인원	증감	비율
1964	86,490	40,540	88.2	2001	109,022	△951	△0.9
1974	101,378	14,888	17.2	2002	107,666	△1,356	△1.2
1986	117,382	16,004	15.8	2003	106,072	△1,594	△1.5
1988	116,683	△699	△0.6	2004	103,839	△2,233	△2.1
1989	117,687	1,004	0.9	2005	102,019	△1,820	△1.8
1991	117,513	△174	△0.1	2006	99,421	△2,598	△2.5
1993	117,110	△403	△0.3	2007	97,651	△1,770	△1.8
1995	115,958	△1,152	△1.0	2008	95,247	△2,404	△2.5
1996	114,716	△1,242	△1.1	2009	93,162	△2,085	△2.2
1997	113,694	△1,022	△0.9	2010	90,882	△2,280	△2.4
1998	112,048	△1,646	△1.4	2011	88,510	△2,372	△2.6
1999	111,058	△990	△0.9	2012	86,231	△2,279	△2.6
2000	109,973	△1,085	△1.0				

5)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고향으로의 송금

자이니치 제주인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고향에 송금했다. 당시 이들의 송금은 제주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제주인들의 송금고를 나타내는 다음 표를 보면 연평균 100만 원, 1인당 40원에 달했다. 하루 일당이 1원이었던 당시 일당을 고려하면 한 달 반 정도의 봉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해녀들도 출가해 고생하며 모은 돈을 송금했다. 자료를 보면 1903년에 처음으로 규슈에 출가한 후 1930년대 들어서도 매년 1,500명이 일본

제주 출신 도항자 (우편국) 송금고표(送金高表)

(단위 : 원)

연도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송금액	956,571	1,289,714	1,243,301	799,180	715,012	685,155
일인당	31.36	39.54	35.2	25.14	21.65	18.96
연 도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송금액	857,919	1,053,940	1,006,985	1,087,518	1,073,870	1,470,703
일인당	29.39	21.05	20.88	23.4	23.37	32.01

제주도청, 《제주도세 요람》, 1937, 1939에서 작성.

으로 출가했다. 당시 한국의 다른 지방으로 출가한 것보다는 일본으로 출가했을 때 약 3배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지 출가 해녀의 약 1/3이 일본으로 출가해 고향에 송금했다.

제주도 출가 해녀의 송금 현황

(단위: 엔, 명)

연도	출가 해녀 수	총 송금액	1인당 송금액	비고
1929	4,310			
1930	3,860	908,000	235	
1931	3,950	687,350	174	
1932	5,078	1,100,000	217	일본 1,600명, 국내 3,478명
1936	3,360	770,000	229	
1937	4,402			일본 1,601명, 국내 2,801명
1939	4,132			일본 1,548명, 국내 2,584명

자료: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6)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이카이노 생활 모습(1930년대 / 1960년대)

사진은 생활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1930년대 오사카에 살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은 그리 많지 않다.

1930년대 이카이노에서 살았던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다음 사진은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일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한국 어느 장터에서 신발과 그릇을 파는 가게 모습 그대로이다. 치마저

1930년대 이카이노의 자이니치 제주인 생활 모습.

고리에 머릿수건을 쓴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자이니치 사진작가 조지현은 이카이노의 1960년대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다. 히라노가와(平野川)를 노 젓고 가는 주민들, 할머니와 아이들, 넝마주의와 고물상, 조선시장 모습과 장례 모습….[5]

5) 제시한 10장의 사진은 조지현 사진집《이카이노-추억의 1960년대》에서 발췌한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생생한 생활 모습이다.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1) 오사카를 무대로

1932년 8월, 일제의 〈제주도의 치안상황〉 보고서는 오사카에 자이니치 제주인 사상운동가가 300명에 달하고, 그중 주요 요시찰인물만 해도 105,6명을 넘어선다고 보고하고 있다.

>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인은 약 4만 명에 이르고 매년 왕복자 또한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도항자 대부분은 오사카 지방에 거주하며 (중략) 현재 오사카 방면에서 사상운동에 종사하는 제주도 출신자는 약 300명에 달하고, 혹은 통신뉴스로, 혹은 출판물 뉴스로 불온사상을 유포하여 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략) 산북 지방 출신 요시찰인 요주의 인물은 80여 명이고, 산남 지방 출신은 25,6명을 넘어서고 있다.[6]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항일의식은 1912년 10월 27일 '조선유학생학우회'(회장 신익희)가 결성되자 당시 간사부장으로 일했던 김명식(와세다대학, 조천 출신)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제주 출신 유학생들에게도 애국정신을 고취하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제주도 최초의 무정부주의자였던 고순흠은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사상으로 일제와 맞서면서 제주 출신 여공들이 다니는 방직공장이 많은 오사카에서 '조선인여공보호회'를 조직해 이들의 대우개선과 분쟁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1910년대 중반~1930년 중반까지의 시기, 사상운동의 조류는 민족주의적인 것과 무정부주의적인 것, 공산주의적인 것들이 혼재해 있었다. 그러나 자이니치 한국인들 속에 보급된 사상은 공산주의 운동도 초민족적인 계급운동이 될 수 없었고, 민족주의 운동도 초계급적인 독립운동만이 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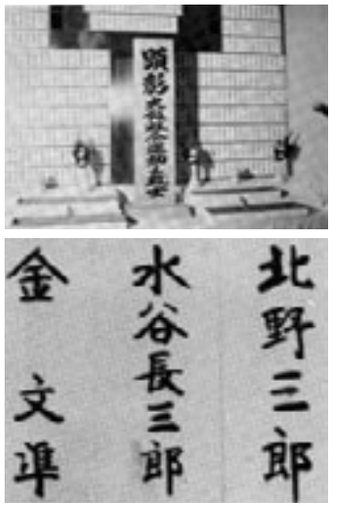
자이니치 제주인들은 1911년 이후 학우회와 1927년 신간회, 1928년 근우회운동을 통해 항일운동 전선에 뛰어들었다. 1930년 전후, 자이니치 항일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토대로 자이니치 제주인 항일운동가들은 각 방면에서 고향 사람들의 지지를 토대로 일제에 투쟁에 나섰다.

2) 김문준의 항일운동

김문준.

김문준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1894년 2월 10일 출생했다. 그는 1927년에 도일한 후 오사카 지역 항일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며 전협(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조 오사카지부를 조몽구, 현호진, 김용해와 함께 이끌었다. 이런 그를 한 일본인 학자는 "그 첨예한 이론가로서의 명성은 오사카 한국인 노동계에 주요한 지위를 점하게 했다. … 무정부주의 운동은 이미 쇠퇴하여 고순흠의 시대는

6)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월보》 제2권 제5호, 1932.8. 11쪽.



'일본사회운동현창탑'에 걸린 김문준 위패(오사카시 오사카성공원 소재).

지나고 점점 김문준의 천하로 바뀌어 극좌운동의 전성시대를 현출함에 이르렀다."[7]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1930년 6월, 고무공장 파업을 지도하다 일제에 검거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3년 6월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김문준은 석방 후 한글신문《민중시보》를 창간했다.《민중시보》는 1935년 6월 15일 창간호를 낸 이래 월 2회씩, 1936년 들어서는 월 3회씩 발간되다 같은 해 9월 20일 제27호를 마지막으로 발행하고 11월 1일자로 일제에 강제 폐간됐다. 그는 신문이 발간되던 1936년 5월 26일, 일제의 고문 후유증이 겹쳐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4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8]

7) 坪江汕二,《조선민족독립운동비사》, 일본노동통신사, 1959, 280쪽.

8) 김문준 사망 후 민중시보를 계속 발행한 것은 그의 사위 이신형이었다. 그는 1936년 6월 21일자 제23호부터 편집 겸 발행인에 취임해 27호까지 신문을 이어가다 같은 해 9월 25일 일제에 검거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민중시보의 간부였던 한진섭도 함께 검거돼 2년형을 언도받았다. 한편, 김문준의 사망 소식에 고향 선배였던 김명식은 〈목우(木牛는 김문준의 아호)군을 곡함〉이라는 추도문을《민중시보》제23호(1936.6.21.)에 실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민중시보》창간호 표지.

3) 각 부문에서의 항일운동

① 신간회 운동

1927년, 좌우합작 민족단일당 신간회가 일본에서도 창립됐다. 신간회 오사카지회에서는 김문준, 송병구, 조몽구, 김달준, 김용해가 활동했고, 도쿄지회에서는 홍양명이 간사로 활동했다.

② 근우회 운동

한국에서 종래의 여성운동계는 비혁명적 계몽주의와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운동의 두 노선으로 양분돼 있었다. 그러던 1927년 두 단체는 조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해 근우회를 결성했다. 이에 일본에서도 발맞춰 1928년 1월 21일, 근우회 도쿄지회가 도쿄대 기독청년회관에서 창립됐다. 이때 박화성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강평국이 정치문화부 역원으로 선임됐다. 그후 도쿄지회는 같은 해 3월 28일 여성문제 대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1929년 이후에는 별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산됐다.

오사카 신간회 발족 포스터(1927. 12. 3.).

③ 재일본유학생학우회 운동

재일본유학생학우회는 1911년 10월 창립 후, 1919년 도쿄 2·8선언과 3·1운동에서 지도적 활동을 벌였다. 그러다 1926년 이후 공산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1931년 2월 재도쿄유학생학우회는 해체됐다. 그 무렵 오사카에도 한국인 유학생 300여 명이 가입한 재오사카유학생학우회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회원들 다수가 검거되면서 이 단체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던 제주 출신 김재림(나니와상업학교, 23)도 검속됐다.

④ 공산주의 운동

1927년 5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가 결성되자 이에 소속된 활동가들은 재일 한국인의 각 계층별 조직과 일부 지역에 조직원을 파견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 일본에서 가장 이름을 날린 것은 제주 출신 고경흠이었다. 그는 1927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간 후 활동을 시작해 다음 해부터 여러 필명으로 빼어난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9] 그는 이론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날리다 1931년 8월에 서울에서 검거된 후 전향했다.

9) 고경흠은 1928년 〈조선운동 발간 선언의 비판〉을 시작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공장의 속으로〉(1929), 〈개량주의와 항쟁하라-원산쟁의에 대하여 전조선 노동자 대중에게〉를 발표했다. 그후 1930년에 들어서는 〈전위당 볼셰비키화의 임무〉, 〈반제국주의 협동전선의 제 문제〉, 〈조선에 있어서 혁명적 앙양과 당의 임무〉, 〈민족개량주의의 반동적 도량을 분쇄하라!〉, 〈평양파업의 의의와 공산당의 활동 임무〉, 〈조선에 있어서의 농민 문제〉의 비중 있는 논문 6편을 무산자사 팸플릿 등에 발표했다.

○ 일국일당주의 노선 확립 후 일본공산당 활동

1920년대 초 일본에서의 한국인 민족해방운동은 민족별로 활동하며 일본인 조직과 연대하고 있었다. 일본공산당은 1922년 2월에 창건됐다. 일본 정부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공포하고, 1928년 3월 15일,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3·15사건을 일으켜 1,600명을 검거하고, 484명을 기소했다.

한편,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운동을 지도하던 코민테른은 1928년 제6차 대회에서 '일국일당주의' 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공청은 1931년 10월 공식 해체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인 공산주의 계열 항일운동가들은 그 후 일본공산당에서 활동하게 됐다. 일본공산당은 이런 상황에 화답해 기본강령에 '조선·대만 등의 완전독립' 항을 넣기도 했다.

이즈음 오사카 지역에서는 300여 명의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들이 사상과 노동운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제주 출신) 일공 활동가로는 오사카 지역에 김서호, 김태연, 강근생, 고진호, 현호경, 강주호, 양기형, 이영복, 김만선, 김경숙, 현호진, 현상호, 강원범이 있었고, 고베 지역에 고창옥, 김경득, 김태권, 송정권이 있었다. 그러다 검속된 활동가로는 오사카 지역에 한진섭, 강상호, 강주호, 현호경, 김태연, 김은환, 김갑환, 한문택, 김귀영, 강근생, 한봉삼이 있었고, 효고 지역에 고창옥, 김문옥, 고베 지역에 김병옥, 김광배, 김태권, 김경득, 와카야마현에 김희봉이 있었다.

○ 일본공산청년동맹에서의 활동

일공청동에서는 정우생, 부덕환, 부장환, 김태휴, 양기형, 송정권이 활동했다.

○ 일본반제동맹에서의 활동

일본반제동맹에는 오사카 지역에서 동아통합조합원 55명이 가입했고, 정우생, 강주호, 성자선, 고진호가 활동했다.

○ 일본적색구원회에서의 활동

보통 '적구'로 지칭되는 일본적색구원회는 1930년 8월에 발족했다. 당시 적구는 해방운동 관련 희생자는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구원·위안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⑤ 노동운동

○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서의 운동

일본에서는 1922년에 조선노동동맹회가 창립됐다. 그 후 1924년 2월에는 분산돼 활동하던 조직들을 모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됐다. 재일조선노총은 2년 후인 1926년 10월, 가맹조합 25개, 회원수 9,900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재일조선노총은 당시 '조선민족해방을 중심노선으로 설정하고 일본인들과 협력해가며 일제와 과감한 일상투쟁에 나섰던 노조원들의 조직'이었다.

재일조선노총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은 가입 조합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던 오사카 지역이었다. 당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한신공업지대는 일본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오사카 지역에는 제주 출신 남녀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일하고 있었고, 이들 다수가 노동운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나섰는데 그 중심에는 김문준이 있었다. 일본의 미키(三木今二) 검사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했다.

> "공산주의 이론에 밝고, 홀연 오사카 한국인 노동운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오사카조선노조의 상임위원이 되어 재오사카 제주인을 규합하고… 노동운동의 패권을 획득했다. 이에 제주 출신 노동자는 거의 김문준의 지도 아래 있고, 극좌운동의 주력은 제주도민의 손에 있었다."

김문준은 1929년 가을, 제주인이 많이 살던 히가시나리구의 중소고무공장에서 1,000여 명의 노동자를 규합해 오사카고무공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다음 해 봄, 동 조합을 전협일본화학노조 오사카지부에 가맹시키며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 일본 사상·노동운동 조직 내의 갈등으로 활동 내막이 일제에 탐지되면서 1930년 8월 18일에 검거됐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성읍 출신의 조몽구로 그 후 그는 전협화학노조 오사카지부의 책임자 겸 일본공산당 오사카지방위원회 민족부장의 직책을 맡고 활발하게 활동했다. 1931년 전반기, 전협화학노조 오사카지부는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나 그해 8월 26일, 조몽구와 제주 출신 김서호, 황운학, 강항인, 이좌구, 이재원이 치안유지법위반 혐의로 검거되며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다.

○ 산별노조 활동

당시 전협간사이지부에는 김갑환, 강상호가, 전협일반간사이지부에는 김귀영, 임길봉이, 전협섬유간사이지부에는 강규찬, 유신출이, 전협출판간사이지부에는 부장환, 한진섭, 강상호가, 전협토건간사이지부에는 강상호, 현호진, 현상호가, 전협화학간사이지부에는 이좌구, 김갑환, 김태연, 강근생, 현호옥, 한문택, 김은환, 부장환, 양기형이, 전협화학고베지부에는 김병옥, 김태권, 강원범, 송춘화, 송정권, 강계화, 강성도, 강성흡이, 전협금속오사카지부에는 홍원표, 오편윤, 정문봉 등이 활동했다.

⑥ 동아통합조합의 자주운항운동

1923년 12월 15일, 제주와 오사카 간의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이 항로를 이용해 일본으로 가는 제주인이 점차 증가했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 노선 이용자가 다른 지방 노선 이용자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황금항로가 되고 도항자와 귀향자가 한 해에 4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이 항로는 조선우선(朝鮮郵船)과 아마가사키기선(尼崎汽船)이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용자가 증가하자 전격적으로 뱃삯을 인상했다.

그 후 신간회 오사카지회가 대회를 열어 항의하고, 뱃삯 인하를 요구했으나 두 선사는 거절했다. 이에 1929년 4월, 김문준이 제주도민유지간담회를 열고 제주통항조합준비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그는 곧 전협 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그를 이어 문창래와 김달준, 현석헌, 현길홍, 김동인, 성자선들이 나서 '우리는 우리 배로' 구호를 내걸고 본격적으로 조합결성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조합준비회 측은 마침내 오사카의 제

주인 조합원 4,500명을 확보하고 1930년 4월 21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사카 나카노시마(中之島) 공회당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 대회에서 조합 명칭을 '동아통항조합'으로 정하고 조합장을 문창래로 선임해 공식 출범했다. 동아통항조합은 출범 후 조합 확장사업을 펼쳐 곧 조합원을 10,000여 명 확보했다.

동아통조는 1930년 11월 1일, 마침내 고오류마루(蛟龍丸)를 임대해 뱃삯 6원50전(당시 일본 선박업자의 뱃삯은 12원50전이었음)으로 첫 취항했다. 그러자 타 선박업자들은 일거에 뱃삯을 3원으로 내려 보복 항해를 시작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르주아의 배에 타지 말자!', '일시 싼 뱃삯에 속지 말자!'라는 구호를 걸고 운항에 들어갔다.

그러던 5개월 후, 교룡환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많은 결손 속에 조합은 1차 운항을 중단했다. 2차 운항은 배를 빌리지 않고 매입해 운항하기로 하고 1931년 11월 운영에 들어갔다. 매입한 선박의 첫 운항은 1931년 12월 1일 이루어졌다. 이날 후시키마루(伏木丸. 1,300톤급의 영국 강철선. 정원은 800명)에는 334명이 승선했다. 배에는 적기(赤旗)와 한국말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로!', '부르주아의 배에 타지 말자!', '복목환 도항저지 반대!'라고 쓰인 깃발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운항은 순탄치 않았다. 운항기술이 부족했고, 일제의 탄압이 이어져 첫 항해부터 조합 관계자 100여 명이 검거되는 등 많은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다음 해 3월까지는 운항이 어느 정도 순조로웠다. 곧 시련이 닥쳤다. 기술 미숙으로 배가 조난되기도 하고, 일제가 조합 관계자를 검거하고 승객을 탄압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도부는 조합의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일제는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곧 조합 운영을 계급투쟁보다는 순수 경영으로 돌려야 한다는 방향전환론이 대두해 조합을 새로이 개편했으나 더 견디지 못하고 1935년 조합 활동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

동아통항조합은 1930년대 전반기, 어려운 정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배로!'라는 자주적·민족적·대중적 요구에 따라 조직·운영돼 자이니치 한국인 특히 자이니치 제주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민족해방운동에도 기여를 하는 큰 자취를 역사에 남겼다.

⑦《민중시보民衆時報》를 통한 운동

《민중시보》는 1935년 5월, 김문준을 대표간사로 하여 '우리는 일본 내 거주하는 조선인 민중의 생활 진상과 여론을 보도하는 불편부당적 언론기관으로의 존립과 성장발전을 기함'이라는 강령 하에 창간됐다. 《민중시보》는 1935년 6월 15일 창간호를 낸 이래 월 2회씩, 1936년에는 월 3회씩 발행되다 그해 9월 20일, 27호를 마지막으로 일제에 강제 폐간됐다. 한 회당 4~8쪽 분량으로 1면에는 사설, 정치, 경제, 2면에는 국제문제, 3면 이하에는 사회문제를 실었다. 특히 사회면에는 재오사카 한국인의 셋방문제를 다룬 연재물을 비롯해 노동자의 생활실태, 노동쟁의, 교육문제, 범죄, 그 외 남녀의 애정문제 등 당시 오사카에 사는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알리며 자아니치 한국인들의 일상을 도왔다.

창간호에는 당시 조선일보 외신부장이었던 홍양명이 〈언론기관의 지도자가 되소서〉라는 축하의 글과 객원논설위원으로 참여한 김명식이 〈북중문제와 영미제휴〉라는 논설을 싣기도 했다. 《민중시보》는 창간 후 민족운동의 기관지 역할을 다했으나 곧 일제의 탄압이 이어졌고, 김문준이

1936년 5월 26일, 폐결핵이 악화돼 요양소에서 사망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됐다.

김명식은 고향 후배였던 김문준의 죽음에 장문의 추도문을 작성해 《민중시보》에 실었다. 〈木牛군을 哭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다 보면, "군을 보내고 나는 울었다/ 군을 잃은 나의 불행은 귀머거리가 된 불행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 빈한한 사람의 일이라 (수원)농림학교는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군의 心緖는 심히 울적하였다/ 군은 인자하고 총명하고 능력이 많았다." 하는 등 가슴이 시려온다.

김문준 이후 《민중시보》를 이끈 것은 그의 사위 이신형이었다. 그는 1936년 6월 21일 제23호부터 편집 겸 발행인으로 신문을 발행하며, 친목단체나 노동단체의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등 민족운동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런 신문사의 활동을 일제는 더 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일제는 그와 신문사 간부들을 그해 9월 25일 검거했고, 《민중시보》는 위기를 맞아 11월 1일 강제 폐간됐다.

일본에서의 제주인 여성 항일운동

1) 오사카 지역의 제주인 방적여공 쟁의

1923년 12월 제주와 오사카 간의 직항로 개설 이후 오사카에는 제주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 1934년에는 정점을 이뤘다. 1934년 당시 제주

제주 출신 여성 인구와 직업

(1934년 4월 말 현재)

제주인 수	여성 수	방직공	고무공장 노동자	미싱봉재업 노동자	유리공장 노동자	성냥공장 노동자
50,045	20,699	5,375	1,756	1,183	1,050	945

출신 여성노동자의 수와 직종은 다음 표와 같은데 방직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방직공은 제주 출신 여성노동자들의 대표 직업으로 이들이 다니던 공장은 특히 오사카의 남부 사카이시(堺市), 기시와다시(岸和田市), 센난군(泉南郡)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이들 여성노동자는 아래 사진에서 보듯 거의 10대로 고향에서 생활고로 출가했다. 일본인 사업자들은 이들 제주 출신 여성노동자들이 '온순하고 품행이 방정해서,' '근면하고 내지인 여공들과 차이가 없어서' 고용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루 주야 2부제로 12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임금도 하루 50전에서 1원 20전 등 자

셋스방적 노다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작업복 차림의 조선인 여공.
(《오사카 아사히신문》, 1913.12.16.)

오사카 거주 조선인 직업여성 생활 개선대회.
(《오사카 아사히신문》, 1922. 6. 1.)

료마다 다르나 1930년 10월 오사카시 여성 섬유노동자의 하루 평균임금은 82전에 불과했다는 자료가 있기도 하다. 이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 10 ~15전의 기숙사비, 매월 20전의 상애회 회비 등을 지불해야 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용돈을 아껴 나머지 돈은 대부분 고향으로 송금했다.

당시 이들 여공들이 살던 기숙사는 비위생적이어서 특히 불만이 높았다. 이불을 교체해주지 않아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빈대가 들끓었다. 전염병도 자주 발생했다. 식사도 형편없었다. 주로 나오던 무말랭이 반찬에는 벌레가 기어다녔고, 고향 제주도서는 먹지도 않았던 정어리나 고등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썩은 머리나 꼬리가 주로 나와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편, 친일단체 '상애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나쁜 사람들, 예쁜 여공이 있으면 데려가 첩을 삼았다.'라는 소문이 돌아 1928년 8월 오사카 우쓰미방적 쟁의 때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상애회 추방이 나올 정도였다.

1920년대 테라다방적공장에서 근무하는 여공들의 춘계운동회. 옷차림이 여학교의 교복과 흡사해서 인기가 있었다.(《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에서)

① 기시와다방적 쟁의

센슈 지방의 최대 방적자본인 기시와다방적은 제주 출신 여성을 포함한 조선인 여성들의 대표적인 취업처였다. 1924년 3월 말, 이 회사에는 조선인이 본사공장에 210명(그중 여성 199명), 사카이공장에 98명(여성 96명), 노무라공장에 220명(여성 212명), 하루키공장에 250명(여성 219명)이 있었다. 조선인은 모두 778명이나 그중 여성이 93.3%(72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1928년 8월 6일 쟁의 신문기사

조선 여공 300명 중 100명이 '반찬을 담을 때 내지인 직공과 같이 해 달라. 다다미를 새로 깔아 달라.' 등을 요구하며 아침부터 파업했다. 그러나 얼마 없어 상애회 간부와 기시와다 경찰서장이 조정에 나섰고, 여공들은 오후 들어 작업에 복귀했다.

○ 1930년 사카이공장 파업

사카이공장은 1930년 1월 이후, 잇따른 임금인하와 조업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4할 이상 감소했다. 이에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 185명은 5월 3일 파업을 결의하고, 조선인 여공을 중심으로 약 100명이 공장을 탈출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오사카조선노동조합이 이 파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5월 15일 밤, 동조 노동자 약 100명이 사카이공장을 습격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탄압을 불러와 쟁의는 위기에 처했다. 그 후 쟁의단은 역경을 타개하고자 기시와다방적 전 공장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27일에는 조선인 자유노동자 등 약 30명이 하루키

제주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한 기시와다방적 여공들의 파업.

공장을 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쟁의단은 결국 6월 13일,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2일간에 이르는 파업을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여공 약 30명(그중 조선인 20명)이 쟁의단 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이들 노동자들은 쟁의를 벌이며 파업 첫날인 5월 4일에 자신들의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다.

'임금인하 철회, 통근수당 및 주택수당 제정' 외에도 '귀국 퇴직수당 제정' 등이 있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때는 기계를 멈추고 30분간 휴게시간을 줄 것, 매점의 판매시간을 연장할 것, 이부자리는 여름용과 겨울용 두 가지로 마련해 줄 것, 겨울에는 화로를 마련해줄 것,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빨아줄 것, 서신·면회를 절대 자유롭게 할 것' 같은 생활환경 개선요구도 있었다.

1930년 사카이공장 파업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파업은 자이니치 조선인 여공의 대표적인 쟁의 사례로 평가됐고, 당시 얼마 안 되는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이끌어 그 후 각종 파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② 1930년대 초 자이니치 제주 출신 여공들이 참여한 오사카 지역 노동쟁의

1920년 말~1930년대 전반은 자이니치 조선인 노동운동의 고양기로 오사카에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중 제주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 참가했다고 여겨지는 다음 두 건의 쟁의는 흥미롭다.

○ 1931년 7월 오사카의 마쓰모토(松本) 고무공업소 쟁의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 지금의 이쿠노구生野區)에는 제주인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이곳에는 화학, 금속, 기계, 섬유공업의 중소공장이 몰려 있었다.

쟁의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에는 이날 경영진과 쟁의단 여공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다. 사건 경위는 조선인 여공 약 30명이 경영자와 교섭 중 경영자의 남동생이 여공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이에 격분한 여공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었는데 그 후 약 15명의 조선인 여공이 검거됐다 한다.

○ 1932년 4월 22일 오즈부린기교(小津武林起業) 파업

이날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西定川區) 해당 기업 연사부에서 동료의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조선인 여공 36명이 연사기계 54대의 실을 끊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중 한 사람은 제주 출신 안평화였다. 이 쟁의는 조선인들 중 제주 출신 활동가가 다수 참여했고, 일본공산당계 노동조합인 전협의 지도 아래 전개된 투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후 쟁의는 5월 14일에 100여 명의 데모 감행으로 이어졌고, 18일에는 조선인 노동자 약 100명이 동원돼 공장으로 몰려갔다. 6월 29일에는 검거자 5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징역 3개월)에 반발해 조선인 노동자 70여 명이 공장을 습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투쟁이 지속됐다.

2) 일본에서의 제주인 여성 항일운동

① 강평국

강평국은 1900년 6월 19일, 제주읍 일도리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강두훈과 어머니 홍소사의 둘째 딸이었다. 부친은 1901년 신축 천주교난 당시 희생됐는데 그와 오빠 강세독은 천주교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다.

강평국은 1914년 신성여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그 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경성여고보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했다.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에서는 경성여고보 기숙사생 70여 명과 함께 활동하다 검거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함께 활동한 제주 출신으로는 최정숙과 고수선, 경성고보의 박규훈

이 있었다. 그는 경성여고보 학생 7명과 함께 수감돼 있다 3월 24일 석방됐고, 다음 날 졸업식에는 참여치 않고 귀향했다. 그 후 최정숙과 함께 1921년 '여수원'을 설립해 여성의 문맹퇴치와 여성인권 신장에 힘을 썼다.

그러던 강평국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자이니치 제주인 중 지식인들은 주로 도쿄 지역의 신간회를 비롯한 각종 조선인·일본인단체에서, 보통사람들은 오사카 지역의 한신공업지대에 위치한 여러 공장에서 힘든 생활을 영위하며 나름대로 항일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신성여학교 교사 시절의 강평국(가운데). 왼쪽은 최정숙.

강평국은 일본 이주 다음 해인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가 창립되자 부인부 책임자로 선임돼 활동하고, 다음 해인 1928년 1월 21일에는 근우회 동경지회가 창립(위원장 박화성)되자 정치문화부 소속 역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한편, 1927년 1월 16일에는 도쿄조선여자청년동맹(다음 해 2월 22일 해체)이 창립되자 초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같은 해에 재일본동경동부조선노동조합에서는 부인부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33년 들어 그는 병마와 싸우다 3학년생으로 학업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했다. 이즈음, 일제는 전남 일대의 여자청년회를 탄압하며 여성항일운동가들을 검거하고 있었는데 그녀도 광주로 구인돼 조사를 받다 같은 해 33세로 운명했다. 강평국은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로, 제주 최초의 여교사였고 해외유학생이었다. 그는 현재 제주시 황새왓 천주교 묘역에 안장돼 있다.

② 김시숙

김시숙은 1880년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3·1만세운동 후 늦은 나이에 민족의식에 눈을 떠 활동을 시작하고 40대에 일본으로 이주했다.

1925년,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신여성 최정숙과 강평국, 이재량이 중심이 돼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계몽운동을 목적으로 '제주여자청년회'를 결성했다. 이때 김시숙도 이들과 앞장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27년 봄, 조천주재소 경찰에 연행돼 야학운영에 대한 조사를 받다 석방됐다. 그는 고향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일본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사카에서 고순흠과 김문준 등 고향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재일여공보호회'를 조직해 책임자가 되었다. 그 후 여공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1930년대 초 성행하던 소비조합운동의 일환으로 '재일본여공노동소비조합'도 결성해 여공들을 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기금을 마련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싼 값에 물건을 매입해 싼 값에 되팔며 여공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그는 1933년 7월 오사카 적십자병원에서 54세의 나이로 운명했다.

그 후 그의 공을 기려 '여공보호회'와 소비조합 임원들은 '선각여성 김시숙 호상부인회'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그의 시신을 군대환에 실어 고향으로 운구했다. 그리고 3년 후인 1936년, 호상부인회는 김시숙 비문 건립을 계획하고 죽암 고순흠이 비문을 쓴 묘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③ 현호옥

현호옥은 1913년 성산포에서 현길홍의 큰딸로 태어났다. 현호경과 현호진 두 오빠는 모두 일본에 유학 가 항일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성산공립보통학교에서 수학하다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 야간부에 다니며 낮에는 자전거공장 여공으로 일했다. 1933년 2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전협) 화학노조 오사카지부 회원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남해고무공장 여공이 되어 오사카지구 동북구 남해공장 분회원이 됐다. 1934년에는 전협오사카지구 화학노조준비회 부인부장 및 동지구 야츠이고무공장 부인부 책임자로 활동하며 여러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다 1934년 7월 20일 검거된 후 1935년 10월 26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는 1986년 별세했다.

④ 이경선

이경선은 1914년 경기도 시흥군에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가파도로 대정중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이도일의 딸이다. 그는 대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덕여고보에 입학했다. 그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해 1학년을 수료하고 일본에 유학하기 위해 자퇴했다. 1935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후 그는 일본 고베시 나카노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당시 정세는 그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공부하던 중 효고현에서 1941년 12월 9일 또다시 체포됐다. 그는 다음 해 10월 23일 고베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⑤ 그 외 '일본적색구원회'와 '일본소비조합연맹'에서의 활동

'일본적색구원회(赤救)'는 1930년 8월에 발족했다. 원래 이 단체는 1928년 '해방운동의 희생자는 그 정치적 경향 여하에 관계없이 사회진화의 희생자이다.'라는 모토 아래 일제와 싸우다 희생된 희생자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 단체에도 많은 제주 출신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적구는 1932년 7월에 '제주도 해녀사건의 희생자를 돕자!'라는 격문을 발송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1930년을 전후한 시기 오사카에서는 소비조합운동과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운동, 민주의료기관 설립 등의 대중운동이 광범위하

게 벌어졌다. 재오사카 조선인 거주 지역 소비조합운동에는 1931년 신촌리(新村里)소비조합을 필두로 많은 소비조합들이 생겨나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재오사카 조선인들은 민주의료기관 설립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1931년에는 '오사카조선무산자진료소'가 설립돼 조선인의 독자적인 의료기관이 갖춰지게 됐다. 그러다 다음 해 2월에는 히가시나리구와 니시나리구에서 민중진료소 설립운동이 벌어졌는데, 1933년에는 요우수나(西浜)에 진료소가 생기고, 히가시나리 무산자진료소가 설립되자 김문준의 딸들(김숙희와 김정희)이 간호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맺음말

1923년 12월 제주와 오사카 간 직항로가 개설되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많은 제주인들이 일본의 오사카 등지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전성기인 1934년에는 제주도 인구의 ¼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일본의 각종 공장에서 일을 했다.

오사카에 정착한 제주인들은 연고자를 따라 당시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한 한신공업지대의 여러 공장에서 일본인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낮은 일당을 받으며 시작했다. 당시 여성들은 방직공장이나 고무공장에 많이 취업하였는데 제주 출신 여성 노동자들도 이들 공장에 취업해 하루 12시간씩 먼지투성이가 된 채 힘들게 일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제주 출신 여공들은 힘들게 번 돈을 고향에 보내 제주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인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도쿄(주로 지식인들이 항일운동전선에 나섬)와 오사카 지역(주로 현장 노동자들이 항일운동에 나섬)에서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대표적인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는 김문준으로, 그는 1927년 도일 후 오사카 지역 조선인들을 배경으로 사상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한 항일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 무렵, 제주 출신 여성 항일운동가로는 강평국과 김시숙, 현호옥, 이경선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강평국과 이경선은 유학생 활동가로, 김시숙과 현호옥은 현장 활동가로 각각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항일운동에 나섰다.

한편, 당시 오사카 지역에는 기시와다 방적공장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통해 항일운동전선에 나섰던 이름 없는 제주 출신 여성노동자, 혹은 여성항일운동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자료나 사진, 증언 등 모든 것이 부족해 그 실상을 보다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더 많은 자료와 증언이 확보돼 이들 제주 출신 여성들의 항일운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2004.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김찬정, 《이방인 군대환 타고-朝鮮人街 猪飼野 형성사》, 岩波書店, 1985.

김찬흡, 《20세기 제주인명사전》, 2000.

김찬흡 편저, 《제주항일인사실기》, 북제주문화원, 2005.

김창후, 〈국외 제주인들의 항일운동〉, 《제주항일운동사》, 제주도, 1995.

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2001.

제주도 제주여성특별위원회, 《시대를 앞서 간 제주여성》, 2005.

제주문화원, 《제주 여인상》, 1988.

제주발전연구원, 《일제강점기 제주여성사 2》, 2011.

그 외 《민중시보》 등.

三木今二, 《내지에 있어서의 조선인과 그 범죄에 대하여》, 사법연구 제17(2), 1933.

岩村登志夫, 《재일조선인과 일본노동자계급》, 1995.

外村大 저, 김인덕 역, 《재일조선인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20세기 제주도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제주4·3사건,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제주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특히 제주의 여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풀어쓰고 있습니다. 최정숙·고수선·강평국·부춘화·김옥련·부덕량. 그리고 무명의 여성들.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민족이 처했던 정치적 한계, 여성이 처했던 사회·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 제주인의 자존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제주의 여성들입니다. 그동안 뜻있는 연구자 등에 의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도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그들의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주학 인물사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 강좌는 도서관 자료로, 책 속에 파묻힐 수 있는 감동의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보배로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자료화한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의를 함께한 수강생들께서는 "왜 지금까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총서 55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ISBN 979-11-6867-003-7 비매품